『瑜伽師地論』(卷20)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南豊鉉*

Ⅰ. 序言

高麗時代의 釋讀口訣을 가진 『瑜伽師地論』 卷20은 卷子本으로 卷末에 '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刊記가 쓰인 것이다. 이는 1246年에 새겨진 再雕大藏經임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張數는 모두 32장인데 발무늬가 없는 두터운 楮紙이어서 高麗時代 韓紙의 특징을 보여 준다. 卷頭의 裝飾에서부터 첫 장은 손실되었으며 둘째 장도 군데군데 훼손되어 총 40字 정도의 본문은 읽을 수 없고 여기에 달린 口訣字들도 함께 없어졌다. 셋째 장은 약간의 毁損이 있으나 1, 2자가 불확실할 뿐 모두 읽을 수 있고 넷째 장 이하는 거의 완전하여 본문과 口訣이 잘 보존되어 있다. 卷의 첫머리부터 끝까지 墨書로 行의 오른쪽과 왼쪽에 구결자와 逆讀點을 충실하게 기입하였다. 32장 가운데 남아 있는 31장의 卷子本에 기입한 것이 보존되어 있어서 이 시대의 국어자료로서는 많은 양이라 할 만하다.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동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단국대학교

이 구결의 記入年代는 1246년을 上限으로 하는 것이다. 앞서 筆者는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연대를 12세기 중엽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 구결에 나타난 문법을 鳥瞰하면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문법과 거의 일치하고 13세기 후반의 것으로 보이는 楞嚴經의 순독구결보다는 훨씬 앞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280년대에 이루어진 『三國遺事』보다는 앞서는 시기에 이루어진 구결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구결에 나타나는 文語의 保守性으로 보아 13세기보다 앞서는 시기의 국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은 이 『瑜伽師地論』卷20 이외에도, 2行 남짓한 양에 불과하지만 10세기 중엽의 『釋華嚴敎分記』(均如述)를 필두로 하여 『華嚴經疏』 卷35(11세기말 내지는 12세기초), 『新譯華嚴經』 卷14(12세기 후반으로 추정), 『合部金光明經』 卷3(13세기 전반으로 추정), 『舊譯仁王經上』의 落張 5枚(13세기 중반으로 추정) 등이 발굴되어 있다. 이들은 行의 좌우 양쪽에 토를 달고 逆讀點을 찍어 한문을 우리말로 풀어 읽는 방법을 표시한 것으로 같은 계통의 석독구결들이다.[1)]

이 자료들을 해독하여 당시의 국어를 밝히는 작업을 하자면 먼저 이 구결의 형태소들을 분석해 내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구결들이 보여 주는 언어가 우리들에게 익숙한 15세기의 국어와는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音과 訓을 이용한 이 구결의 차자들을 올바르게 읽어 나가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하여 이 구결의 표기법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다음 한글로 轉寫하는 시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

1) 이 시대의 석독구결 자료는 이 계통의 구결과 그 표시방법을 달리하는 구결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15세기의 석독구결에서는 어순의 표시를 一, 二, 三, 四 등의 숫자로 하였는데 이는 신라시대의 전통을 계승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栃林寺所藏의 折帖本 法華經에서 특이한 부호를 사용한 구결이 보고된 바 있다.

Ⅱ. 表記法의 考察

표기법은 文字體系와 그 運用으로 이루어진다. 차자표기법의 문자체계는 音讀字, 訓讀字, 音假字, 訓假字로 나뉘는데 석독구결에선 한문의 본문이 音讀字나 訓讀字가 되고 토를 기입한 차자가 音假字나 訓假字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문자체계가 정해져 있으므로 용자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그 내용을 읽어 나갈 수가 있다. 토를 표기한 문자는 차자의 正字가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약체자가 쓰인다. 이 약체자는 본래 正楷體와 連繫되어 있는 것이지만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 관계가 끊어진 것도 있고 그 정자는 알아도 독법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작업을 다음에 하여 보기로 한다.[2)]

1. 文字 體系

이 釋讀口訣의 토를 표기한 借字는 모두 53字이다. 다음에 이 차자들을 讀音의 가나다 순으로 열거하고 略體字는 그 正楷體를 괄호 속에 넣어 표시한다. 訓借字는 *표를 붙여 표시한다.

1) 去(去) / 거　2) *在(在) / 겨　3) 古(古) / 고
4) *彌(彌) / 금　5) 果(果) / 과　6) 只(只) / 기, ᄀ
7) 艮 / ᄀ, ᄀ　8) 隱(隱) /(으)ㄴ　9) 那(那) / 나
10) *臥(臥) / 누　11) 尼(尼) / 니　12) *飛(飛) / 느

---

2) 이 석독구결의 독법과 표기법에 대하여는 拙稿(1993), 「高麗本 瑜伽師地論의 釋讀口訣에 대하여」, 『東方學志』 81, 延世大 國學硏究院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고 미진하였던 점은 보완하기로 한다.

13) *斤 / 놀　14) 丨(多) / 다　15) 支 / 다
16) 丁 / 뎌　17) 刀 / 도　18) 斗(斗) / 두
19) *入/ 드　20) 矢(知) / 디　21) *冬 / 둘
22) *厶(矣) / 듸　23) し(乙) / 롤, ㄹ　24) 尸 / 뗘
25) 罒(羅) / 라　26) *灬(以) / 로　27) 禾(利) / 리
28) 令(令) / 리　29) 音(音) /(으) ㅁ　30) 音(音) /(으)ㅁ
31) 丫(?) / 마　32) 尒(彌) / 며　33) 邑(邑) /(으)ㅂ
34) 七(叱) / ㅅ　35) 氵(沙) / 사, 뻐　36) 一(三?) / 삼?
37) 二(示) / 시　38) *白 / 숣　39) *氵(良) / 아
40) 亠(亦) / 여　41) *日(是) / 이　42) *成 / 일?
43) 衤(衣) / 의　44) *之(之) / 의, 잉　45) 齐(齊) / 제
46) 下 / 하　47) 丿(乎) / 호, 오　48) 勹(乎) /오, 호
49) 丂 / 히　50) *丶(爲) / ᄒᆞ　51) *十(中) / 긔
52) *令(令) / ᄒᆞ이　53) 子(?) / ?

이 차자들의 대부분은 그 정해체와 音價가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고증된 것이다.[3] 여기서는 이 구결에 처음 나타나거나 음가나 정해체의 추정에 문제가 있었던 차자들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5)의 ㅅ의 정자를 종래 臥자에서 온 것으로 추정한 바 있었으나 후대의 구결에서 자주 쓰인 果의 약체자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의 대표음은 '과'이고 문맥에 따라 '와'음으로도 전용이 되는데 臥를 정자로 보면 대표음을 '와'로 보고 그 '와'가 '과'음에 전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6)의 ㅅ는 자형은 후대의 구결에선 果자의 약체자로 흔히 쓰인 것이다. 이 구결에서는 '기'음과 음절말의 'ㄱ'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두와 향가에 쓰인 只의 약체자임이 분명

3) 이 방면의 논의들을 종합하고 새로이 정리한 논문은 白斗鉉(1997), 「高麗 時代 口訣의 文字體系와 通時的 變遷」,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口訣學會 編), 태학사刊을 참조하라.

하다.

7)의 艮은 고려시대의 구결 가운데서도 이 구결에만 나타나는 것이다. '今艮'으로 쓰인 예가 5회이고 '餘艮'으로 쓰인 예가 1회이다. 舊仁에는 '今ㅅ'의 예가 있어 '今艮'에 대응되고 '餘艮'은 '남즉'으로 읽을 수가 있다. 借字表記의 詩經釋義에서는 艮이 'ᄀᆞ'음의 표기에 쓰인 예가 있어 이 차자는 'ㄱ'음이나 'ᄀᆞ'음을 나타내는 차자임이 밝혀졌다. 9)의 ᄀᆞ는 那자의 뒷부분을 딴 자형으로 8세기초의 이두문인 上院寺鐘銘(725)에도 이미 나타나는 자형이다. 12)의 ㄷ는 飛자의 앞부분을 딴 것으로 'ᄂᆞᆯ'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ᄂᆞ'음의 표기에 더 많이 쓰여 'ᄂᆞ'음을 대표음으로 본다.

15)의 ᄎᆞ는 향가에서도 자주 쓰인 것이지만 이 구결에선 如자의 훈을 표기하는 데만 쓰였다. 이는 舊仁에서 如의 훈을 표기한 'ㅣ/다'와 일치하는 것이어서 '다'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合部金光明經』에서도 이 ᄎᆞ는 如의 훈을 표기하는 데만 쓰였다. 그러나 『華嚴經』 卷14의 구결에서는 분포가 다양하여 반드시 '다'음의 표기라고 하기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으나 『瑜伽師地論』과 『合部金光明經』의 구결로 한정할 때는 '다'음의 표기에 사용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16)의 丁은 '뎡'으로 읽을지 '뎌'로 읽을지 판단하기 힘든 것이다. 어미 '-뎡'의 기능이 확인되지 않아 '뎌'로 읽는다. 19)의 ㅅ은 그 훈 '들'을 차용한 훈가자이지만 '들'과 모음이 대립되는 'ᄃᆞᆯ'이나 'ㄹ'음이 탈락한 'ᄃᆞ'음의 표기에만 쓰였다. 24)의 尸은 향가와 舊仁에서 'ㄹ'음의 표기에 쓰인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15세기의 표기가 'ㅭ'로 되어 있고 'ㄴ/ㄹ'과 구별되어 쓰였으므로 'ㅭ'을 그 대표음으로 본다.

28)의 ᄉᆞ는 '리'음의 표기로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선 널리 쓰인 자형이다. 『合部金光明經』에 이 차자와 'ㅅ/ᄒᆞ이'가 서로 혼용되고 ᄉᆞ의 정자가 '令'임이 밝혀져 이 차자도 令자의 초서체에서 단순화된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4] 30)의 ㅊ은 '私ㅊ'으로 한 번밖에 안 쓰였다. 이는

29)의 ㅎ의 이체자로 '(으)ㅁ'음을 나타낸 것이다. 『華嚴經』의 석독구결에선 이 자형이 立에서 와서 '셔'음을 나타내는 차자로 쓰였다. 33)의 邑(邑)도 한 번밖에 안 쓰인 자형인데 후대에는 그 약체인 ㅌ이나 ㅍ이 쓰였다. 35)의 ㅅ는 '사'음의 표기에 널리 쓰인 것이지만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선 '쑈'음의 표기에도 사용되었다.

36)의 一는 이 구결에 3번, 『合部金光明經』에 2번 쓰였다. 이 구결에서는 3번 모두가 爲자에 현토된 것이고 합부금광명경에서는 種자와 一味에 현토되었다. 爲자에 현토된 것을 보면 '삼'일 가능성이 있고 種자에 현토된 것을 보면 '심'일 가능성도 있다. 우선 그 음을 '삼'으로, 정자를 '三'으로 보았으나 앞으로 다시 고구해야 될 차자이다. 40)의 亦는 亦자의 약체자로 후대의 구결에선 많이 쓰인 것이다. 舊仁에서는 이 자형이 ㅊ로 나타난다.

42)의 成은 이 구결에 처음 나타난 것이다. 이 구결에서도 단 한 번밖에 안 쓰였다. '說ノヰ成リンア矢ㅣ(23, 10)'에 쓰였는데 쓰인 환경으로 보아 音借보다는 訓借로 보는 것이 낳을 것으로 믿어져 대표음을 '일'로 보았으나 앞으로 더 많은 예들이 나오기를 기다려 고증해야 될 차자이다. 44)의 之는 舊仁에서 '一切之七'으로 쓰인 예가 몇 나타났었는데 이와 같은 예가 이 구결에서도 한 번 나타난다. 15세기에는 처격조사 '예'를 표기한 것이지만 之자는 국어의 屬格助詞에 대응하는 차자이므로 '의/이'음을 대표음으로 보아야 한다.

45)의 ㅋ는 종래에는 與자의 약체자로 본 것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석독구결 자료가 여럿 발굴되면서 이두에서 널리 쓰이는 齊자의 약체자임이 확인되었다. 이 차자는 신라시대의 이두에서는 哉자가 쓰였고 향가에선 制자가 쓰인 것으로 보아 말음에 'ㅣ'음을 가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져'음으로 읽는 것은 후대의 형태에 이끌린 것인데 '졔>

4) 拙稿(1997),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ㅅ와 ㅈ의 原字에 대하여」, 『語文學論叢』(淸凡陳泰夏敎授啓七頌壽紀念), 태학사 참조.

져'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제'를 그 대표음으로 삼는다.

47)의 ノ와 48)의 ᄀ는 乎자의 앞부분을 딴 것이다. ノ는 앞부분의 한 획만을 딴 것이고 ᄀ는 3획을 딴 것이다. 乎는 吏讀에서는 '오'음을 나타내고 구결에서는 '호'음을 나타내는데 이 구결에서는 두 음을 모두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ノ는 주로 '호'음을 나타내고 ᄀ는 주로 '오'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서로 혼용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어느 한 음으로만 쓰였다고 보긴 어렵다. 舊仁에서는 ᄀ자가 초서체인 ろ로 쓰였다. 52)의 ㅅ는 후대에는 '라'음의 표기에 쓰인 것인데 이 구결에서는 令자의 초서체에서 온 것임이 확인되었다. 같은 令자에서 온 ㅅ가 음가자로 '리'음의 표기에 주로 쓰이는데 이 자형은 훈독자로 'ᄒᆞ이-'로 읽힌다. 합부금광명경에서는 이 두 자형이 혼용되고 있어 이들이 같은 차자에서 나온 자형임을 말하여 준다.

53)은 舊仁에 3번, 이 구결에 1번 나타난 자형이다. 의존명사의 표기에 사용되는 사실만 분명할 뿐 아직 그 표음과 정자를 추정하지 못한 것이다.

2. 文字의 運用

차자표기법에서 문자의 운용법은 省略表記, 代表音의 轉用, 末音添記로 나뉜다. 그러나 석독구결에서는 한자의 훈을 전부 표기한 全訓讀表記를 하나 더 추가해야 석독구결의 형태들을 바르게 기술할 수 있다.

1) 省略表記

붓으로 써넣는 記入吐는 개인이 연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내어야 할 음을 완벽하게 써넣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모든 음을 거의 완

벽하게 써넣은 구결은 15세기에 한글로 간행한 諺解書의 구결에서나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훈민정음이라는 뛰어난 문자체계가 만들어졌고 諺解가 표준적인 독법과 해석법을 정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개인이 써넣은 記入吐는 교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자기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므로 개인에 따라 또는 기입하는 때의 심리적 상황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하나가 생략표기이다. 이 생략표기는 順讀口訣에서는 많은 양상이 나타나지만 이 구결에서 확인되는 생략표기는 다음과 같다.

舊仁에서는 현대국어의 '위하여'의 뜻으로 'ᄒᆞᅀᅡ/삼'이 쓰였다. 이는 『華嚴經』 卷14의 석독구결에서도 확인된다. 이 'ᄒᆞᅀᅡ'은 爲자의 全訓讀을 나타내어 '위하여'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두에서 爲를 '삼-'으로 사용한 예들이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舊仁』이나 『華嚴經』에서도 이 형태를 대개는 'ᄒᆞ'만으로 표기하였다. 이 『瑜伽師地論』의 口訣에서도 '위하다'나 '삼다'의 뜻을 나타내는 '삼'의 예는 자주 나타나는데 'ᅀᅡ/(으)ㅁ'을 생략하고 'ᄒᆞ'만으로 쓰인 예만 발견된다.

依止 [爲]ᄒᆞㄱㅅㄹ [由]ᄒᆞㄱㅅᄆ(依止 삼은 것에 말미암기 때문에)(3, 18)

에서 '[爲]ᄒᆞㄱㅅㄹ'은 '삼온 둘'을 표기한 것으로 'ᅀᅡ'의 표기가 생략된 것이다.

이 'ᄒᆞᅀᅡ'과 관련하여 'ㅅ/ᄒᆞ-'가 생략되는 예가 있다. '[爲]ᄒᆞㅅㅂ(4, 19)'는 '위하는 者'의 뜻인데 이것이 '[爲]ᄒᆞㅂ(4,22)'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爲]ᄒᆞㅅㅁ(5, 1)'가 쓰인 것으로 보면 ㅅ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ᄒᆞㅂ'로 표기된 것은 ㅅ가 생략된 것임을 말해 준다.

이밖에 'ㅅ'가 생략된 것은 '開示ᄆᆞ(3,7)'이 있다. '開示'는 타동사의 한자어이므로 'ㅅᄆᆞ'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敗壞ᄆᆞ<19,10-,16>과

같은 예에서 'ㅅ-'의 표기가 생략되는 예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예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順讀口訣에서 繫辭 'ㅣ/이'는 고려시대에도 자주 생략된다.[5] 그러나 釋讀口訣에서의 생략은 흔하지는 않은 편이다. 다음이 생략의 예로 확인되는 것이다.

大師尸 鄔波柁耶ㅅ(大師인 鄔波柁耶와)(25, 9)

에 쓰인 '大師尸'은 『舊仁』에 쓰인 다음의 예로 보아 '大師ㅣ尸'이 되어야 한다.

我ㅣ尸 今ㅅ 月光ㄱ(나인 지금의 月光王은)(舊仁11, 8)

여기서의 '我ㅣ尸'은 앞의 '大師尸'과 같이 '나인'으로 해석되어 이 형태가 계사를 갖는 것임을 말해 준다. 이밖에도 繫辭의 생략은 더 확인되지만 順讀口訣과 같이 많은 예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舊仁』에서는 以의 훈을 'ᄡᅳᆞ/쓰아'로 표기하여 원칙적으로 부사형 어미 'ᄋᆞ/아'를 표기하였다. 그러나 이 구결에서는 'ᄡᅳ'로 표기되어야 할 예가 20회에 가깝게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서 1회만 'ᄡᅳᆞ'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모두 'ᄡᅳ'만으로 표기하였다. 이는 'ᄋᆞ'의 표기를 생략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화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 'ᄋᆞ'의 생략은 添辭 '尒'의 앞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ᄋᆞ尒/ᄒᆞ아금'은 거의 예외 없이 'ᄋᆞ'가 표기되었다. '乏ᄋᆞ尒/없어곰(3, 15)', '[有]ㅐᄋᆞ尒/두어곰'등 여러 예에서 이 'ᄋᆞ'의 표기는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得尒/실어곰', '以尒/쓰어곰', '誓尒/벼기어곰' 등은 그 용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ᄋᆞ'의 표기를 모두 생략하였다.

---

5) 拙稿(1990), 「高麗末·朝鮮初期의 口訣硏究」, 『震檀學報』 69, 震檀學會 참조.

복수를 나타내는 '等ㅅㄱ'은 『華嚴經』 口訣에서 '等ㅣㅅㄱ'으로 나타나 '다ᄒᆞᆫ'으로 훈독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구결에서는 한결같이 '等ㅅㄱ'으로만 나타난다. '云何ㅅㄱㄴ'도 『華嚴經』 口訣에 '云何ㅊㅅㄱㄴ'로 나타나 '엇ᄒᆞᆫᄋᆞᆯ'로 읽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구결에선 '云何ㅅㄱㄴ'로만 나타나 'ㅊ/ㅅ'의 표기를 전혀 보여 주지 않는다. '俱ㅅㄱ'은 '-ㅅ/ᄒ-'가 연결되어 음독할 수도 있으나 『舊仁』에서는 '俱ㅊㅅㄱ'과 같이 'ㅊ/ㅅ'이 첨기되어 있어서 이 한자가 '다ᄆᆞᆺᄒᆞᆫ'으로 읽힘을 보여 주고 있다. 이 'ㅣ'나 'ㅊ'이 표기되지 않은 것을 생략표기라고 할 수는 없으나 훈독자의 말음이 표기되지 않아 그 훈의 형태를 엉뚱하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상의 생략표기는 한 吐 안에 표기되어야 할 차자가 생략되는 것이다. 이와는 성격을 달리하여 앞의 구성소에는 토를 달고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뒤의 구성소에서는 토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於]道ㅓ 道果涅槃ㅓㅅㅎㅜ 三種 信解ㄴ 起ㄴㄹㅁ 一ㅜㄱ 實有性ㄴ 信ㅅㅎ 二 有功德ㄴ 信ㅅㅎ 三 已ㅋ 有能ㅣㄱ 得樂ㄴㅎㄷ 方便ㄴ 信ㅅㅎㅅㄱ(道와 道果涅槃과 하는 것에서 三種의 信解를 일으킴에 있어 첫째는 實有性을 信하고 둘째는 有功德을 信하고 셋째는 자기의 有能인 得樂하는 方便을 信하며)<5,1-,6>

에서 '一'자에는 'ㅜㄱ/긘'의 토를 달아 이것이 'ᄒᆞᄃᆞ나긘'으로 읽힘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 다음의 '二'자와 '三'자에는 토를 달지 않고 있다. 이는 一자에 토를 달아 훈독함을 표시하면 뒤의 二와 三자는 토를 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훈독되기 때문에 토를 붙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생략이라기보다는 無表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크게 보면 생략표기가 되므로 이 항에 넣는다.

2) 代表音의 轉用

借字表記에선 異形態의 표기를 한 글자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구결에서도 一形態 一借字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였으므로 한 形態素의 異形態가 달리 표기되는 예는 극히 드물고 거의가 하나의 차자로 표기되고 있다.

15세기에 분포에 따라 '이, ㅣ, ∅'으로 표기되는 주격조사는 'ㅣ' 하나로 표기되었다. 대격조사 '을, 올, 롤, 를, ㄹ'은 '乙'자로, 속격조사 '익, 의'는 'ㅋ'자로 통일되었다. 처격조사는 'ㅈ十'가 주로 쓰여 15세기의 '애, 에, 예'에 대응하고 여격조사로는 'ㅋ十'가 쓰여 15세기의 '익게, 의게'에 대응한다. 造格助詞는 'ᄉᆞ'가 쓰여 15세기의 'ᄋᆞ로, 으로'에 대응하고 공동격조사로는 'ㅅ'가 쓰여 15세기의 '과, 와'에 대응한다. 주제화첨사도 'ㄱ'만이 쓰여 15세기의 'ㄴ, 은, 온, 는, 논'에 대응한다. 이 구결에서 異形態들이 15세기와 같이 발달되어 있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13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順讀口訣에선 이들이 거의 15세기와 같게 발달되어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6] 이로 볼 때 이 구결의 異形態들이 15세기와 같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그에 가까운 이형태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의 차자로 표기한 것은 대표음이 전용되어 쓰였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七'은 거의 'ㅅ'음의 표기에 쓰였다. 다만 '有'자의 訓讀末音을 표기하는 경우 '有七ㅣ/ 잇다', '有七ㅊ乃/잇거나'에서는 'ㅅ'음의 표기에 쓰였지만 '有七ㄱ/이슨', '有七ㅁ/이스며'에서는 '스'음의 표기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七(叱)'이 'ㅅ'음의 표기에 쓰이기까지는 '스'음의 단계를 거쳤을 것으로 믿어지지만 이것을 대표음으로 보면 체계가 복잡해지므로 대표음 'ㅅ'이 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6) 拙稿(1990), 前揭 論文, 93면 이하 참조.

斤의 대표음은 그 훈에 따라 '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구결에 자주 쓰인 '除ㅁ斤'에서는 '놀'로 읽어서는 문맥의 뜻이 통하지 않고 '논'으로 읽어야 한다. 이는 그 대표음이 전용된 것이다.

'氵'는 '沙'의 약체자로 '旣氵/이믜사(>이믜셔)', '[爲]氵-/삼-'에 쓰인 것은 '사'음의 표기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以氵ㅋ/쓰아'에 쓰인 것은 '쓰'음의 표기에 전용된 것이다. '由氵ㄱㅅ'는 '쁜ᄃᆞ로'로 읽혀야 될 것으로 여기서의 '氵'도 '쓰'음의 표기에 전용된 것이다.

'ㅊ'는 '著ㅅㅊㄱㅅ/著ᄒᆞ건ᄃᆞ로'에서와 같이 거의 '거'음의 표기에 쓰이지만 '異ㅊㅅㄱㅅ乙/異게 혼ᄃᆞᆯ'에서는 사동법 어미 '-게(긔)'의 표기에 전용되고 있다.

'ㅅ'는 '當ㅅ/반ᄃᆞ기', '必ㅅ/반ᄃᆞ기'에서는 '기'음의 표기에 쓰였다. 그러나 '唯ㅅ/오직'에서는 'ㄱ'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차자가 이 두 음을 나타냄에는 임의로 선택된 것이고 그 선택의 법칙을 추출해 낼 수가 없다. 따라서 그 어느 하나를 대표음으로 정하기가 어려워 두 음을 모두 대표음으로 본다. 이것은 'ㅅ'와 'ㅎ'의 경우에도 같다. 이들이 각각 '오'와 '호'음의 표기에 쓰이는데 이들이 그와 같이 바뀌는 문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두 음을 대표음으로 삼은 것이다.

3) 末音添記

釋讀口訣에서는 한문의 구성소를 음독하기도 하고 훈독하기도 한다. 말음첨기는 원칙적으로 훈독되는 구성소에 나타난다. 음독되는 구성소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드물다. 이 구결에서는 아직 음독되는 구성소에 말음이 첨기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구결의 말음첨기는 부사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용언과 체언의 순서로 나타난다. 또 말음은 수의적으로 첨기되는 것이어서 같은 한자라도 첨기되기도 하고 않기도 한다.

'當ㅅ'의 'ㅅ'는 '기'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當의 훈 '반ᄃᆞ기'의 말음을 첨기한 것이다. '及ㄴ'은 15세기의 접속부사 '밋'에 대응하는 것으로 'ㄴ/ㅅ'은 그 말음을 첨기한 것이다.

生자가 용언으로 쓰일 경우는 '生ㅣᄉᆞ', '生ㅣᄋᆞ', '生ㅣᄆᆞ'과 같이 현토되어 'ㅣ/이'가 그 어간말음을 첨기하고 있다. 이것이 때로는 '生ᄆᆞ(15, 10)'로도 나타나서 'ㅣ'가 수의적으로 첨기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

心자는 모두 97회의 사용빈도를 보여 준다. 그 가운데는 훈독될 것으로 보이는 용례도 40여회나 나타난다. 그러나 오직 한 예만이 '心ᄉᆞᆷ(24, 10)'으로 나타나 'ᄉᆞᆷ/(으)ㅁ'이 '心/ᄆᆞᅀᆞᆷ'의 말음을 첨기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말음첨기와 15세기 국어를 참고하면 訓讀字의 어형을 추정할 수 있는 예가 많이 나타난다.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체언

(1) 私ᅀᆞ/아ᄅᆞᆷ (2) 上ㅅ/웋, 우기 (3) 自ᄀᆞ/저의 (4) 自ᄆᆞᆫ/저로

2. 용언

(1) 有ㄴ/잇- (2) 無ㄴ/없- (3) 從ㄴ/좃- (4) 可ㄴᄂᆞᆫ/짓ᄒᆞ-
(5) 成ㅣ/일이- (6) 令ㅣ/ᄒᆞ이- (7) 合ㅣ/아ᄫᆞᆯ이- (8) 見ᄋᆞ/보아
(9) 得ᄋᆞ/얻어 (10) 樂ᄋᆞ/즐기어 (11) 說ᄋᆞ/니르아 (12) 永ᄋᆞ/길어
(13) 由ᄋᆞ/븥어 (14) 依ᄋᆞ/븥어 (15) 向ᄋᆞ/아아 (16) 現ᄋᆞ/낟아
(17) 名ᄒᆞ/일하 (18) 齊ᄋᆞ/곶아 (19) 止ᄋᆞᄉᆞ/긏어금 (20) 離ᄒᆞ/여희제
(21) 懷ᄒᆞ/품제 (22) 聞ᄉᆞ/듣으며 (23) 受ᄉᆞ/받ᄋᆞ며 (24) 誓ᄉᆞ/벼기어금
(25) 謂ㄱ/닐온 (26) 謂ᄆᆞ/니ᄅᆞᆯ (27) 入ᄆᆞ/들ᄋᆞᆯ (28) 知ᄋᆞ/알아
(29) 知ᄆᆞ/아ᄅᆞᆷ

3. 부사

(1) 更ᄋᆞ/가시아 (2) 先ᄒᆞ/몬지하 (3) 廣ㅣ/넙이 (4) 速ㅣ/ᄲᆞᄅᆞ이
(5) 常ㅣ/브질이 (6) 至ㅣ/니를이 (7) 多ㅣ/하이 (8) 勤ㄴ/브즐
(9) 及ㄴ/밋 (10) 與ㄴ/다ᄆᆞᆺ (11) 暫ㄴ/사ᄇᆞᆷ (12) 正ㄴ/맛

(13) 初ㄴ/처ᄉ (14) 通ㄴ/ᄉᄆᆞᆺ (15) 但ㅅ/오직 (16) 唯ㅅ/오직
(17) 當ㅅ/반ᄃᆞ기 (18) 必ㅅ/반ᄃᆞ기 (19) 設ㅅ/비록 (20) 如ㅅ/ᄀᆞᆮ기
(21) 相ㄱ/서로 (22) 隨ㅅ(ㄱ)/좇오 (23) 全ㄱ/오ᄋᆞᆯ오 (24) 還ㄱ/돌오
(25) 已(旣)ㅣ/이믜사 (26) 不ㅅ/안ᄃᆞ, 不ㅈ/안ᄃᆞᆯ, 不ᄉᆞ/안디
(27) 非ㅈ/안ᄃᆞᆯ, 非ᄉᆞ/안디 (28) 未ㅅ/안ᄃᆞ, 未ㅣ/아니, 未ᄉᆞ/안디

이 구결에는 말음첨기의 예가 이밖에도 더 있으나 그 어형을 추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倍ㅣ 昔尸 猶ㅣ 二ㅎ第七 卽ㄱ
復ㅅ 但ㅅ 善ㅿ 能ㅿ 何ㄱ 恒ㅣ

등이 그것이다.

접속부사 '故ㅅ, 故ㄱ, 故ㄷ, 故ㅿ, 故ㅡ, 故ㅣ'와 '而ㄱ, 而ᄭ'는 훈독되었을 것으로 믿어지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었는지 밝힐 수가 없다. 이들의 轉寫에서는 토의 표음만 표시한다.

4) 全訓讀 表記

석독구결에서는 이두나 향찰과는 달리 원문의 한자의 훈을 모두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파악해 두는 것이 석독구결을 읽는 데 중요하므로 여기 열거한다. 全訓讀되는 한자는 [ ] 속에 넣는다.

(1) [如]ᄒᆞ-/다- (2) [有]ᄀᆞ-/두- (3) [以]ㅣ-/ᄡᅳ-
(4) [用]ㅣ-/ᄡᅳ- (5) [由]ㅣ-/ᄡᅳ- (6) [爲]ㅣ-/삼-
(7) -ㅣ尸 [爲]入乙ㅅ-/잃ᄃᆞᆯᄒᆞ- (8) ㅅ [爲]人/ᄒᆞ과
(9) ㅅ [爲欲]人/ᄒᆞ과 (10) ㅅ [令]ㅣᄉᆞ/ᄒᆞ이리
(11) ㅅㅎ [應]ㄷ (ㅅ)-/ᄒᆞᆷ人ᄒᆞ- (12) ㅅ人 [雖]ㅐ/ᄒᆞ과두

이 전훈독표기에 덧붙여서 不讀字의 표기도 이해하여야 석독구결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 不讀字는 訓을 나타내는 토가 그 한자에 현토되지 않고 다른 한자에 붙는 토에 딸리어서 표기되므로 그 한자는 토가 붙지 않을 뿐 아니라 석독할 때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는 주로 한문의 語助辭의 경우에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不讀字도 全訓讀表記字와 석독상으로는 같은 것이라 하겠다.

다음에 예문을 들고 간단한 설명을 한다.

(1) -ㄱ/者

勝義正法隨轉圓滿ㅣㅣㄴㄱㅅㄱ[者] 謂ㄱ (勝義正法隨轉圓滿이라 하는 것은 이른바…)<3,05-,11>

者자의 토는 'ㅣㅣㄴㄱㅅㄱ/이다 ᄒᆞᆫ ᄃᆞᆫ'의 끝에 쓰인 'ㄱ/ㄴ'인데 이것이 者자에 현토되지 않고 勝義正法隨轉圓滿에 붙은 ㅣㅣㄴㄱㅅㄱ에 붙어 있어 이 토를 읽으면 者자는 읽지 않는 不讀字가 된다.

다음의 예들도 이와 같은 것들이다. 不讀字를 [ ] 속에 넣고 그 훈을 나타내는 토는 밑줄을 그어 표시한다.

(2) -ㅋ,ㄷ/之

非聖煩惱ㅋ[之] 隨逐ㄴㄱ 所 (非聖煩惱의 隨逐한 바)<4,2>

(3) 於/ㅇㅓ

ㄱ) 沙門果ㄹ 得ㅇ [於]沙門果ㅇㅓ 證得圓滿ㄴㅎ (沙門果를 얻어 沙門果에 證得圓滿하며)<3,5>)

ㄴ) [於] 聞ㄴㄱ 所ㄹ 隨ㄴ 究竟ㄴㄹ 所ㄷ 法ㅇㅓ (들은 바를 따라 究竟할 바의 法에)<11,20>

(4) 爲/ㄴ-

ㄱ) 何ㅁ 等ㄴㄱㄹ [爲]五ㅣㅣㄴᄉᆞᄆᆞ (어떤 것들을 5이라고 하는가)<9,21>

ㄴ) 是 如支ソ1 乙 名下 [爲]三摩地圓滿亠ノ禾丨 (이와 같은 것을 이름하여 三摩地圓滿이라 할 것이다.)<16,1>

이 구결에서는 훈독되는 한자에 토를 전혀 붙이지 않은 것들도 있다. 다음의 한자들은 전후 문맥이나 다른 석독구결의 예로 보아 훈독되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한자들인데도 全訓讀表記나 末音添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특히 체언의 경우 이러한 예가 많이 나타난다.

(1) 所/바

ㄱ) 增長廣大ソ1 有七1 所七 功德乚 證得ソ彡ソ尸矢丨(增長廣大한 있는 바의 功德을 證得하며 하여야 할 것이다.) (3,5)

ㄴ) 正法乚 聽聞ソ1ラ 得ノ1 所七 勝利亠ノ禾丨(正法을 聽聞한 이가 得혼 바의 勝利라고 할 것이다.) (6,7)

ㄱ)의 '有七1 所七'은 한문의 所有를 우리말로 풀어 놓은 것이고 ㄴ)의 '得ノ1 所七'은 한문의 所得을 풀어 놓은 것이다. 특히 ㄱ)은 '有七1'이 고유어 '이슨(>이신)'으로 훈독되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구를 이루는 '所七'도 '바ㅅ'으로 훈독되었을 것임이 분명한 것이다. 이에 준하면 ㄴ)의 所도 훈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구결에선 所가 훈독될 것으로 보이는 용례가 근 90회가 되지만 그 표지가 전연 없다. 舊仁의 경우는 '所氵'와 같이 '氵/아'를 첨기한 것이 있어 所자가 훈독되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다음의 예들도 그러한 것이다.

(2) 事/일

我1 是 [如]支ソ1 事乚 求ソ 爲人ソ尸入灬 故ノ(나는 이 같은 일을 求고져 하므로)<18,11>

(3) 是/이

是 [如]支ソ1 所受七 正法乚(이 같은 所受의 正法을)<3,15>

(4) 此/이

諸 弟子衆ㅣ 此 正法ㄴ 依ᄀ(여러 弟子衆이 이 正法을 依支하며) <3,5>

(5) 外/밧ㄱ

外ㄴ 諸欲ㄴ 依ᄉᆞᄀᆞᄅᆞᆫ 有ㄴᄀ 所ㄴ(바깟의 諸欲을 依支한 이에게 있는 바의)<30,15>

(6) 俱ᄉᆞᄀᆞ/다ᄆᆞᆺ ᄒᆞᆫ

思所成慧 俱ᄉᆞᄀᆞ 光明想ᄋᆞᆫ (思所成慧를 함께한 光明想에) (11,10)

이와 같이 훈독될 가능성이 있는 체언이지만 그 표지가 없는 한자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더 있다.

家/집<16,22> 其/그, 저<5,21> 內/안ㅎ<10,15> 首/머리<4,19>
意/ᄠᅳᆮ<3,22> 前/앒<5,10> 處/곧<12,10> 今/엳<3,23>

이들은 비교적 자주 쓰이면서도 훈독의 표지를 보여 주지 않는 것이다.

이상으로 이 구결에 나타난 훈독자들의 훈독 표지들에 대한 고찰을 전반적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는 분명히 훈독된 것들도 있지만 그 가능성밖에 보여주지 않는 것들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 음독과 훈독은 이 구결을 읽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사람이라도 읽을 때의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轉寫에서는 특별한 표지가 없는 한 한번 훈독을 하였으면 계속 훈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Ⅲ. 한글 轉寫

<02,23-03,05>
世俗正法施設圓滿ㅣㅣㅅㄱㅅㄱ[者] 謂ㄱ 卽ㅎ 彼 補特迦羅ㅣ 佛ㅣ 出世
世俗正法施設圓滿이다 ᄒᆞᆫ ᄃᆞᆫ 닐온 卽오 뎌 補特迦羅ㅣ 佛이 出世

ㅅ白ㅅ尸ㅅ入ㄴ 値白ㅎ 又 廣ㅣ 善不善法ㅗ 有罪无罪ㅗ 廣ㅣ 說尸 乃ㅈ 至
ᄒᆞ숣을 ᄃᆞᆯ 맛나ᄉᆞᆯᄇᆞ며 ᄯᅩ 너비 善不善法여 有罪无罪여 너비 니ᄅᆞᆷ 니를이

ㅣ 諸緣生法ㅗㅅ尸ㄴ 開示ㅅㅎ 及ㄷ 廣ㅣ 謂ㄱ 契經ㅗ 應頌ㅗ 記別ㅗ 諷
사 諸緣生法여 ᄒᆞᆷ올 開示ᄒᆞ제 밋 너비 닐온 契經여 應頌여 記別여 諷

頌ㅗ 自說ㅗ 緣起ㅗ 譬喩ㅗ 本事ㅗ 本生ㅗ 方廣ㅗ 希法ㅗ 及 與ㄷ 論議
頌여 自說여 緣起여 譬喩여 本事여 本生여 方廣여 希法여 밋 다ᄆᆞᆺ 論議

ㅗㅅ尸ㄴ 分別ㅅㅎㅅㄴ尸矢ㅣ
여 ᄒᆞᆷ올 分別ᄒᆞ제 ᄒᆞ싫디다

<03,05-,11>
勝義正法隨轉圓滿ㅣㅣㅅㄱㅅㄱ[者] 謂ㄱ 卽ㅎ 大師ㅣ 善ㅎ 爲ㅎ 俗正法ㄴ
勝義正法隨轉圓滿이다 ᄒᆞᆫ ᄃᆞᆫ 닐온 卽오 大師이 善며 삼오 俗正法을

開示尸 已ㅈ ㅅㄴㅁㅂ 諸 弟子衆ㅣ 此 正法ㄴ 依ㅎ 復 他人ㅋ 爲ㅎ 隨順ㅅ
開示ᄒᆞᆷ 이믜사ᄒᆞ곡 諸 弟子衆이 이 正法을 브트며 ᄯᅩ 他人ᄋᆡ 삼오 隨順

ㄱ 敎誡ㅗ 敎授ㅗㅅ尸ㄴ 說ㅅ尸ㅅㄴ 得ㅎㅅㅈ 三十七菩提分法ㄴ 修ㅅㅈ
ᄒᆞᆫ 敎誡여 敎授여 ᄒᆞᆷ올 닐옳 ᄃᆞᆯ 얻으며 ᄒᆞ아 三十七菩提分法을 修ᄒᆞ아

ㅿ 沙門果ㄴ 得ㅈ [於]沙門果ㅈㅓ 證得圓滿ㅅㅎ 又 能ㅎ 展轉勝上ㅅㅈㅿ
금 沙門果ᄅᆞᆯ 얻어 沙門果아ᄃᆡ 證得圓滿ᄒᆞ제 ᄯᅩ 能며 展轉勝上ᄒᆞ아금

增長廣大ᄂᆞᆫᄀᆞ 有ᄒᆞᆫᄀᆞ 所ᄒᆞᆫ 功德ᄉᆞ 證得ᄂᆞᆷᄌᆞᆫᄆᆞᆺ ᄒᆡ
增長廣大ᄒᆞᆫ 이슨 밧 功德ᄋᆞᆯ 證得ᄒᆞ제 ᄒᆞᆷ디다.

<03,11-,15>
正行不滅圓滿ᄆᆡ ᄒᆡᄂᆞᆫᄀᆞ ᄉᆞᆫᄀᆞ [者] 謂ᄀᆞ 佛世尊ᄀᆞ 般涅槃ᄂᆞᆫᄃᆞᄑᆞᄒᆞᆫᄉᆞᆷ [雖]ᅀᅡ 而
正行不滅圓滿이다 ᄒᆞᆫᄃᆞᆫ 닐온 佛世尊ᄋᆞᆫ 般涅槃ᄒᆞ심ᄉᆞ과ᄃᆞ 而

ᄀᆞ 俗正法ᄆᆡ 猶ᄆᆡ 住ᄂᆞᆸᄒᆞ 未滅ᄂᆞᆷ 勝義正法ᄆᆡ 未隱未斷ᄂᆞᆷᄌᆞᆫᄆᆞᆺ ᄒᆡ
은 俗正法이 猶이 住ᄒᆞ아금 未滅ᄒᆞ제 勝義正法이 未隱未斷ᄒᆞ제 ᄒᆞᆷ디다

隨順資緣圓滿ᄆᆡ(ᄒᆡᄂᆞᆫᄀᆞ ᄉᆞᆫᄀᆞ)[者] 謂ᄀᆞ 卽ᄀᆞᆼ 四種ᄒᆞᆫ 正法(ᄅᆞ) 受用ᄂᆞᆷᄉᆞᆫ
隨順資緣圓滿이(다 ᄒᆞᆫ ᄃᆞᆫ) 닐온 卽오 四種ᄉᆞ 正法(을) 受用ᄒᆞᄅᆞᆺ

因緣 現前ᄂᆞᆸᄒᆞ 正法ᄅᆞ 受用ᄂᆞᆷᄆᆞᆺᄅᆞ □ 有ᄂᆞᆫᄒᆡ
因緣 現前ᄒᆞ아금 正法을 受用ᄒᆞᆷᄋᆞᆯ □ 잇겨다

<03,15-,22>
正信ᄂᆞᆺᄒᆡᄒᆞᆫ 長者ᅀᅳ 居士ᅀᅳ 婆羅門ᅀᅳ 等ᄂᆞᆷᄀᆞᄅᆡᅀᅳ 彼ᄆᆡ 正法ᄅᆞ 受用ᄂᆞᆸᄒᆞ
正信ᄒᆞᄂᆞᆺ 長者여 居士여 婆羅門여 다ᄒᆞᆫ 이여 더이 正法을 受用ᄒᆞ아금

而ᅀᅳᆷ 轉ᄂᆞᆺᄐᆞᄂᆞᆷᄀᆞ ᄉᆞᆫᄂᆞᆯ 知ᄒᆞᆸ 恐ᄉᆞᆫᄀᆞ 資緣 乏ᄒᆞᆸᄒᆞ 是 [如]ᄒᆞᄋᆞᆫᄀᆞ 所受ᄒᆞᆫ 正
而로 轉ᄒᆞ누온ᄃᆞᆯ 알아 恐ᄃᆞᆫ 資緣 없어금 이 다ᄒᆞᆫ 所受ᄉᆞ 正

法ᄅᆞ 退失ᄂᆞᆺᄃᆞᄑᆞᄃᆞᆺᄂᆞᆫᄃᆞᄑᆞᄉᆞᆫᅀᅳᆷ 是故ᅀᅳᆷ 慇懃ᄒᆞᆺ 種種ᄒᆞᆫ 衣服ᅀᅳ 飮食ᅀᅳ 諸坐
法을 退失ᄒᆞ실거 ᄒᆞ실ᄃᆞ로 是故로 慇懃히 種種ᄉᆞ 衣服여 飮食여 諸坐

臥具ᅀᅳ 病緣醫藥ᅀᅳᄂᆞᆫᄃᆞᄑᆞ 供身什物ᄅᆞ 奉施ᄂᆞᆷᄆᆞᆺᄒᆡ 是 [如]ᄒᆞᄋᆞᆫᄀᆞ 十種ᄅᆞ
臥具여 病緣醫藥여 홇 供身什物을 奉施ᄒᆞᆷ디다 이 다ᄒᆞᆫ 十種ᄋᆞᆯ

名下 內外ᄅᆞ 依ᄂᆞᆫᄀᆞ 生圓滿ᅀᅳᄂᆞᆫᄒᆞᄒᆡ 卽ᄀᆞᆼ 此 十種ᄒᆞᆫ 生圓滿ᄅᆞ 名下 修
일하 內外ᄅᆞᆯ 依ᄒᆞᆫ 生圓滿여 호리다 卽오 이 十種ᄉᆞ 生圓滿ᄋᆞᆯ 일하 修

瑜伽處所ㅓㄴ尸ㅓ 此 所依ㅣㄱ 所建立處ㄴ 依止[爲]ㅣㄱㅅㄴ[由]ㅣㄱㅅ
瑜伽處所여 흖여 이 所依인 所建立處를 依止 삼은 둘 쁜ᄃᆞ로

故ㄴ 如來尸 諸 弟子衆ㅋ [有]ㅐ白ㄴㄱ 所ㄷ 聖法ㄴ 證得ㅅㅏㅎㄷㅣ
故호 如來ᄭᅮ 諸 弟子衆이 두숣온 밧 聖法을 證得ᄒᆞ겸ㅅ다

<03,22-04,06>
是 [如]ㅈㅅㄱ 聖法ㅇㅓ 略ㅁㄱ 二種 有ㄷㅣ 一 有學法ㅅ 二 无學法ㅅㅣ
이 다ᄒᆞᆫ 聖法아기 略콘 二種 잇다 一 有學法과 二 无學法과이

ㅣ 今 此 義ㄷ 中ㅇㅓ 意ㄱ 无學ㅋ [有]ㅐㄴㄱ 所ㄷ 聖法ㄴ 取ㄴㄱㅣㅣ
다 今 이 義ㅅ 中아기 意는 无學이 두온 밧 聖法을 取ᄒᆞᆫ이다

謂ㄱ 无學ㅣ 正見ㅅ 廣ㅣ 說尸 乃ㅣ至ㅣ 無學ㅋ 正智ㅅㅣㅣ 何以故ㅓ
닐온 无學사 正見과 너비 닐옳 니를이사 無學이 正智와이다 何以故여

ㅅㅁㄱ 諸 有學ㄱ 聖法 [有]ㅐㅏㅅ[雖]ㅐ 而ㄱ 相續ㄷ 中ㅇㅓ 非聖煩惱
ᄒᆞ곤 모ᄃᆞᆫ 有學은 聖法 두겨와두 而는 相續ㅅ 中아기 非聖煩惱

ㅋ[之] 隨逐ㅅㄱ 所ㅣ 現ㅇ 得ㅅㅎ 可ㄷㅅㄱㅅㄴ [由]ㅣㄱㅅ 故ㅓ 是
이 隨逐ᄒᆞᆫ 바이 낟아 得홈 짓ᄒᆞᆫ 둘 쁜 ᄃᆞ로 故여 이

[如]ㅈㅅㄱ 初支ㄷ 生圓滿ㄷ 廣聖教ㄷ 義ㅇㅓ 此 十種 有ㅅㄱㅓ 此ㄴ 除
다ᄒᆞᆫ 初支ㅅ 生圓滿ㅅ 廣聖教ㅅ 義아기 이 十種 有ᄒᆞᆫ여 이ᄅᆞᆯ 덜

ㅁ斤 更ㅇ 餘生圓滿ㅣ 若過ㅅㅎ 若增ㅅㅎㅅㄱ 無ㅏㄱㅣㅣ
고는 가ᄉᆡ아 餘生圓滿이 若過ᄒᆞ제 若增ᄒᆞ제 ᄒᆞᆫ 없견이다

<04,06-,10>
[云]何ㅅㄱㄴ 聞正法圓滿ㅣㅣㅅㅎㅁ 謂ㄱ 若 正說法ㅓ 若 正聞法ㅓㄴㅎㄷ
엇 ᄒᆞᆯ 聞正法圓滿이다 호리고 닐온 若 正說法여 若 正聞法여 호릿

二種ㅣ 摠ᄒᆞ 名ᄒᆞ 聞正法圓滿ᄉᆞᆫᄒᆞᆫᄒᆡ 又 正說法ᄋᆞᆫ 略ㅁᆞᆨ 二種 有ᄒᆞᆫᄃᆡ
二種ᄋᆞᆯ 摠히 일하 聞正法圓滿여 호리다 ᄯᅩ 正說法아ᄌᆡ 略콘 二種 잇다

謂ᄀᆞ 所ᄀᆞ 隨順ㅅ 及ᄒᆞ 無染汙ㅅᄀᆡᆨᄃᆡ 廣ᄀᆡᆨ 說ᄆᆞᆫㅅᄀᆞ 當ㅅ 知ᄆᆞᄃᆡ 二十種
닐온 바ᄂᆞᆫ 隨順과 밋 無染汙과이다 너비 니ᄅᆞᆷ ᄃᆞᆫ 반ᄃᆞ기 알오다 二十種

有ᄒᆞᆫᄉᆞ 菩薩地ᄋᆞᆫ 當ㅅ 說白ᄂᆞᆫ [如]ᄒᆞᄋᆞᆫᄀᆞ ᄀᆡᆨᄀᆞ丁
이슨여 菩薩地아ᄌᆡ 반ᄃᆞ기 니르ᄉᆞᆯᄫᆞᆷ 다ᄒᆞᆫ인뎌

<04,10-,14>
又 正聞法ᄋᆞᆫ 略ㅁᆞᆨ 四種 有ᄒᆞᆫᄃᆡ 一 憍傲ㅣ 遠離ᄂᆞᆫᄀᆞ 二 輕蔑ㅣ 遠離
ᄯᅩ 正聞法아ᄌᆡ 略콘 四種 잇다 一 憍傲ᄅᆞᆯ 遠離ᄒᆞ며 二 輕蔑을 遠離

ᄂᆞᆫᄀᆞ 三 怯弱ㅣ 遠離ᄂᆞᆫᄀᆞ 四 散亂ㅣ 遠離ᄂᆞᆫᄀᆞᆫᄂᆞᆫᄆᆞᆺ 是 [如]ᄒᆞᄋᆞᆫᄀᆞ 四種
ᄒᆞ며 三 怯弱ᄋᆞᆯ 遠離ᄒᆞ며 四 散亂ᄋᆞᆯ 遠離ᄒᆞ며 홇디 이 다ᄒᆞᆫ 四種

過失ㅣ 遠離ᄂᆞᆫᄋᆞᆺᄭᅩ 而ᄲᅳ 聽法ᄂᆞᆫᄉᆞᆫᄒᆞᆫ 者ㅣ 名ᄒᆞ 正聞法ᄉᆞᆫᄒᆞᆫᄒᆡ 當ㅅ
過失을 遠離ᄒᆞ아금 而로 聽法ᄒᆞ릿 者ᄅᆞᆯ 일하 正聞法여 호리다 반ᄃᆞ기

知ᄆᆞᄃᆡ 廣ᄀᆡᆨ 說ㅁᆞᆨ 十六種 有ᄒᆞᆫᄀᆞ ᄉᆞ 亦 菩薩地ᄒᆞᆫ 中ᄋᆞᆫ 當ㅅ 說白ᄂᆞᆫᄆᆞᆺ
알오다 너비 니ᄅᆞ곤 十六種 이슨여 ᄯᅩ 菩薩地ㅅ 中아ᄌᆡ 반ᄃᆞ기 니ᄅᆞᄉᆞᆷᄫᆞᆷ

[如]ᄒᆞᄋᆞᆫᄀᆞ ᄀᆡᆨᄀᆞ丁
다ᄒᆞᆫ인뎌

<04,15-,19>
[云]何ᄂᆞᆫᄀᆞᄂᆞ 涅槃爲上首ᄀᆡᆨᄀᆡᆨᄂᆞᆫᄉᆞᆫᄅᆞ 謂ᄀᆞ 如來ᄆᆞᆫ 弟子ᄀᆡᆨ 生圓滿ㅣ 依ᄋᆞ
엇ᄒᆞᆫᄋᆞᆯ 涅槃爲上首이다 호리고 닐온 如來ᄆᆞᆷ 弟子ㅣ 生圓滿을 븥어

轉ᄂᆞᆫᄉᆞᆫᄒᆞᆫ 時ᄉᆞᆫᄒᆞᆫ 先ᄒᆞ 說ᄂᆞᆫᄀᆞ 所ᄒᆞᆫ 相ㅣ 如ᄉᆞ(ㅅ?) 而ᄲᅳ 正法ㅣ 聽聞ᄂᆞ
轉ᄒᆞ릿 時여긔 몬지하 說ᄒᆞᆫ 밧 相ᄋᆞᆯ ᄀᆞᆮ기(?) 而로 正法을 聽聞홇

ᄆᆞᆷ 唯ㅅ 涅槃ᄒᆞ [以]ᄒᆞ 而ᅀᅳ 上首 [爲]ᄒᆞᄒᆞᆸ 唯ㅅ 涅槃ᄒᆞ 求ᄂᆞᆸᄒᆞᆸ 唯ㅅ
ᄃᆡ 오직 涅槃ᄋᆞᆯ ᄡᅳ아 而로 上首 삼제 오직 涅槃ᄋᆞᆯ 求ᄒᆞ제 오직

涅槃ᄒᆞ 緣ᄂᆞᆸᄂᆞᄫᆞ 而ᅀᅳ 法ᄒᆞ 聽聞ᄂᆞᆫᄆᆞᆺᄉᆞᆸᄀᆞᆫᄃᆞ 他ᄒᆞ 引ᄂᆞᄫᆞ [於]已ᄀᆞᆺᄒᆞ
涅槃ᄋᆞᆯ 緣ᄒᆞ제 ᄒᆞ아 而로 法을 聽聞ᄒᆞᆷ디인뎌 他ᄅᆞᆯ 引ᄒᆞ아 저의를

信ᄂᆞ[令]ᄇᆡ[爲]ㅅᄂᆞᆫᄆᆞ 不ᄉᆞᆼᄂᆞᆸᄒᆞᆸ 利養ㅅ 恭敬ㅅ 稱譽ㅅᄂᆞᆫᄆᆞᆺᄒᆞ 爲ᄂᆞᄅᆞᆫᄆᆞᆺᄃᆞ
信ᄒᆞ이과 ᄒᆞᆷ 안ᄃᆞᆯᄒᆞ제 利養여 恭敬여 稱譽여 ᄒᆞᆷᄋᆞᆯ 爲ᄒᆞᄀᆞᆯ뎌

ᄆᆞᆫᄆᆞ 不ᄉᆞᆼᄂᆞᆸᄂᆞᆫᄆᆞᆺᄉᆞᆨᄒᆡ
ᄒᆞᆷ 안ᄃᆞᆯᄒᆞ제 ᄒᆞᆷ디다

<04,19-05,01>
又 涅槃ᄒᆞ 緣ᄂᆞᄫᆞ 而ᅀᅳ 聽法ᄂᆞᆷᄉᆞᆫᄎᆡ 者ᄀᆞᆫᄉᆞᆸ 十法ᄇᆡ 轉ᄂᆞᆫᄆᆞᆺᄆᆞᆷ 涅槃ᄒᆞ 首
ᄯᅩ 涅槃ᄋᆞᆯ 緣ᄒᆞ아 而로 聽法ᄒᆞ릿 者이긔 十法이 轉ᄒᆞᆷ디 涅槃ᄋᆞᆯ 首

[爲]ᄒᆞᄂᆞᆫᄇᆞᄒᆞᆫ 有ᄎᆡᄒᆡ 謂ᄀᆞ 有餘依涅槃界ㅅ 及ᄎᆞᄒᆞᆫ 無餘依涅槃界ㅅᄒᆞ 依止ᄂᆞᆫᄀᆞ
삼ᄒᆞᄂᆞᆫ 잇다 닐온 有餘依涅槃界와 밋 無餘依涅槃界와ᄅᆞᆯ 依止ᄒᆞᆫ

ᄇᆡᄒᆡ 當ㅎ 知ᄆᆞᄒᆡ 有餘依涅槃界ᄒᆞ 依止ᄂᆞᄫᆞ 九法ᄇᆡ 轉ᄂᆞᆫᄆᆞᆺᄆᆞᆷ 涅槃ᄒᆞ 首
이다 반ᄃᆞ기 알오다 有餘依涅槃界를 依止ᄒᆞ아 九法이 轉ᄒᆞᆷ디 涅槃을 首

[爲]ᄒᆞᄇᆞᄒᆞᆫ 有ᄎᆞᄀᆞᆷ 无餘依涅槃界ᄒᆞ 依止ᄂᆞᄫᆞ 一法ᄇᆡ 轉ᄂᆞᆫᄆᆞᆺᄆᆞᆷ 涅槃ᄒᆞ 首
삼ᄒᆞᄂᆞᆫ 이스며 无餘依涅槃界를 依止ᄒᆞ아 一法이 轉ᄒᆞᆷ디 涅槃ᄋᆞᆯ 首

[爲]ᄒᆞᄇᆞᄒᆞᆫ 有ᄂᆞᆫᄀᆞᄇᆡᄒᆡ
삼ᄒᆞᄂᆞᆫ 有ᄒᆞᆫ인뎌

<05,01-,06>
謂ᄀᆞ 聞所成慧ᄒᆞ 以ᄒᆞ 因 [爲]ᄒᆞᄂᆞᆫᄀᆞᆷ [於]道ㅅ 道果涅槃ㅅᄂᆞᆫᄆᆞᆺᄉᆞᆸ 三種 信
닐온 聞所成慧를 ᄡᅳ아 因 삼ᄒᆞ며 道여 道果涅槃여 호리기 三種 信

解し 起ノ尸ム 一十ㄱ 實有性し 信ンㅎ 二 有功德し 信ンㅎ 三
解ᄅᆞᆯ 起홇ᄃᆡ ᄒᆞᄃᆞ나긘 實有性을 信ᄒᆞ제 두블의긘 有功德을 信ᄒᆞ제 세희

已ㄱ 有能ㅣㄱ 得樂ノ仝ヒ 方便し 信ンㅎンカ 是[如]ㅊ 信解ㅣ 生尸 已
긘 저의 有能인 得樂호ᄆᆞᆺ 方便을 信ᄒᆞ제 ᄒᆞ며 이 다히 信解이 낧 이믜

ㅣンㅋ斤 思所成智し 成辦ン [爲欲]人 身心ㅋ十 憒鬧し 遠離ンロ 而ㅠ 住
사 ᄒᆞ아ᄂᆞᆯ 思所成智를 成辦ᄒᆞ과 身心아기 憒鬧를 遠離ᄒᆞ고 而로 住

ンㅎ 障盖ㅣㄱ 諸 惡尋思し 遠離ンㅎンカ
ᄒᆞ제 障盖인 모ᄃᆞᆫ 惡尋思ᄅᆞᆯ 遠離ᄒᆞ제 ᄒᆞ며

<05,06-,10>
此し 依止ンㄱ入ㅠ 故ノ 便ㄱ 能カ 善決定義ㅣㄱ 思所成智し 趣入ンカ
이ᄅᆞᆯ 依止ᄒᆞᆫ ᄃᆞ로 故호 便오 能며 善決定義인 思所成智를 趣入ᄒᆞ며

此し 依止ンㄱ入ㅠ 故ノ 又 能カ 無間人 殷重人ヒ 二修方便し 趣入ンカ
이ᄅᆞᆯ 依止ᄒᆞᆫ ᄃᆞ로 故호 ᄯᅩ 能며 無間과 殷重괏 二修方便을 趣入ᄒᆞ며

此し 由ㅋ 次第ㅠ 乃ㅣ 至ㅣ 修所成智し 證得ンカ 此し 依止ンㄱ入ㅠ 故
이ᄅᆞᆯ 븥어 次第로 니를이사 修所成智를 證得ᄒᆞ며 이를 依止ᄒᆞᆫ ᄃᆞ로 故

ノ 生死ヒ 過失し 見ㅋホ 勝解し 發起ンㅎ 涅槃功德し 見ㅋホ 勝解し 發
호 生死人 過失을 보아금 勝解를 發起ᄒᆞ제 涅槃功德을 보아금 勝解를 發

起ンㅎンカ
起ᄒᆞ제 ᄒᆞ며

<05,10-,17>
串修ンㄱ入し [由]ㅣㄱ入ㅠ 故ノ 諦現觀ㅋ十 入ノ尸ム 先下 見道ㅣㄱ 有
串修ᄒᆞᆫ ᄃᆞᆯ 쁜 ᄃᆞ로 故호 諦現觀아기 入홇ᄃᆡ 몬지하 見道인 有

學解脫し 得ゝ 已ㅣ 得ホ 見迹ンカ [於]上修道ゝ十 數 習ンフ入し [由]ㅣ
學解를 얻어 이믜사 시러금 見迹ᄒᆞ며 上修道아기 ᄌᆞ조 習ᄒᆞᆫ 둘 쁜

フ入ㅠ 故ノ 更ゝ 復 无學解脫し 證得ンカ 此し 證ンフ入し [由]ㅣフ入ㅠ
ᄃᆞ로 故호 가ᄉᆡ아 ᄯᅩ 无學解脫을 證得ᄒᆞ며 이를 證ᄒᆞᆫ 둘 쁜 ᄃᆞ로

故ノ 解脫圓滿ンチ皿 卽 此 解脫圓滿し 名下 有餘依涅槃界ーノチ丨 卽
故호 解脫圓滿ᄒᆞ리라 卽 이 解脫圓滿을 일하 有餘依涅槃界여 호리다 卽

ヲ 此 涅槃し 以ホ 上首 [爲]ㅣゝ 前ヒ 九法し 次第ㅠ 修習ンゝ 而ㅠ 得
오 이 涅槃을 ᄡᅳ아금 上首 삼아 前ㅅ 九法을 次第로 修習ᄒᆞ아 而로 시

ホ 圓滿ン [令]リナウヒ丨 當ハ 知ヲ丨 卽ヲ 此 解脫圓滿フ 无餘依涅槃
러금 圓滿ᄒᆞ이겸ㅅ다 반ᄃᆞ기 알오다 卽오 이 解脫圓滿은 无餘依涅槃

界し [以]ㅣ 而ㅠ 上首 [爲]ㅣンチリフ丁
界를 ᄡᅳ아 而로 上首 삼ᄒᆞ리인뎌

<05,17-,22>
是 [如]ㅊンフ 涅槃し 首 [爲]ㅣゝ 正法し 聽聞ンᄉフ 當ハ 知ヲ丨 五種
이 다ᄒᆞᆫ 涅槃을 首 삼아 正法을 聽聞ᄒᆞ린 반ᄃᆞ기 알오다 五種

勝利し 獲得ンチリフ丁 何ヲ 等ンフし [爲]五リ丨ノᄉロ 謂フ 法し 聽聞
勝利를 獲得ᄒᆞ리인뎌 何오 다ᄒᆞᆫ올 五이다 호리고 닐온 法し 聽聞

ンᄉヒ 時ーナ 自他し 饒益ンᄎ 正行し 修ンᄉヒ 時ーナ 自他し 饒益ン
ᄒᆞ릿 時여기 自他를 饒益ᄒᆞ제 正行을 修ᄒᆞ릿 時여기 自他를 饒益ᄒᆞ

ᄎ 及 能カ 衆苦邊際し 證得ンᄎンア矢丨 若 說法師リ 此 義し 爲ンᄆ人
제 밋 能며 衆苦邊際를 證得ᄒᆞ제 홇디다 若 說法師이 이 義를 爲ᄒᆞᆷ과 홇

ソ尸入ㅠ 故ノ 正法し 宣說ソトコし 其 聽法者リ 卽ㄱ 此義し [以]ㅣ 而ㅠ
ᄃ로 故호 正法을 宣說ᄒᆞ눈을 저 聽法者ㅣ 卽오 이 義를 ᄡᅳ아 而로

正法し 聽ソナヲ四 是故ㅠ 此 時し 名下 饒益他ㅗノヲカ
正法을 聽ᄒᆞ겨리라 是故로 이 時를 일하 饒益他여 호리며

<05,23-06,07>
又 善心し [以]ㅣ 正法し 聽聞ノ尸ム 便ㄱ 能カ 所設法義リコ 甚深上味し
또 善心을 ᄡᅳ아 正法을 聽聞홈 ᄃᆡ 便오 能며 所設法義인 甚深上味를

領受ソ ㅋ ホ 此し 因ㄱ 廣大ソコ 歡喜し 證得ソ ㅋ 又 能カ 出離善根し 引
領受ᄒᆞ아금 이를 因오 廣大ᄒᆞᆫ 歡喜를 證得ᄒᆞ제 또 能며 出離善根을 引

發ソ ㅋ ソナヲ四 是故ㅠ 此 時し 能カ 自ラし 饒益ソ尸丁ノヲカ 若 有ナ
發ᄒᆞ제 ᄒᆞ겨리라 是故로 이 時를 能며 저의를 饒益홈뎌 호리며 若 잇겨

ㅣ 正ヒ 法隨法行し 修ソナヲ一 大師リ 正法し 建立ソ[爲欲]人方便ㅠ 正
다 맛 法隨法行을 修ᄒᆞ겨리여 大師ㅣ 正法을 建立ᄒᆞ과 方便ᄋᆞ로 正

等覺 成ノ尸入し 示現ソニ下 [云]何一ヲ尸入コ 彼ㅠ 正ヒ 修行ソ ㅋ ホ 轉
等覺 成홈 ᄃᆞᆯ 示現ᄒᆞ시하 엇여 ᄒᆞᆯ든 뎌로 맛 修行ᄒᆞ아금 轉

ソ[令]リ ㅋ ノヲコリ ㅋ セロソニ尸入ㅠ 故ム 彼リ 正法行し 修習ソ今ヒ 時
ᄒᆞ이아 호린이앗고 ᄒᆞ싫 ᄃᆞ로 故커 뎌ㅣ 正法行ᄋᆞᆯ 修習ᄒᆞ릿 時

一十 卽ㄱ 是コ 法尒ㅠハ 大師し 供養ソ白ㅋコ丁ノヲ四 是故ㅠ 此し 說
여긔 卽오 이는 法尒록 大師ᄅᆞᆯ 供養ᄒᆞ숣안뎌 호리라 是故로 이를 니

ㅋ 名下 饒益他ㅗノヲカ
르아 일하 饒益他여 호리며

<06,07-,13>
此 正行ㄴ 因ㅇ 堪能ᄒᆞ 寂靜淸凉ᄉᆞᆸᄒᆞ 唯ㅅ 餘依ᄒᆞ 有ㅌㄱ 涅槃ㅌ[之]
이 正行ᄋᆞᆯ 因오 堪能히 寂靜淸凉ᄒᆞ아금 오직 餘依사 이슨 涅槃ㅅ

界ㄴ 證得ᄉᆞᄂᆞᄒᆞᄆᆞ 是故ᄆᆞ 此ㄴ 說ᄒᆞ 能ㅁ 自ᄀᆞㄴ 饒益ᄉᆞᄇᆞᄀᆞᄂᆞᄒᆞㅁ 若
界를 證得ᄒᆞ겨리라 是故로 이ᄅᆞᆯ 니르어 能며 저의를 饒益홇뎌 호리며 若

無餘依涅槃界ㅌ 中ᄒᆞ十 般涅槃ᄉᆞᄉᆞㅌ 時ㄴ 名ㅏ 衆苦邊際ㄴ [爲]證得
無餘依涅槃界ㅅ 中아긔 般涅槃ᄒᆞ릿 時를 일하 衆苦邊際를 證得

ᄉᆞᄇᆞᄀᆞᄉᆞᄒᆞㅣ 是ㄴ 名ㅏ 涅槃ㄴ 以ㅎ 上首 [爲]ᄒᆞᄒᆞ 正法ㄴ 聽聞ᄉᆞᄀᆞᄀᆞ
홇뎌 ᄒᆞ과리다 이ᄅᆞᆯ 일하 涅槃ᄋᆞᆯ 뻐아금 上首 삼아 正法을 聽聞ᄒᆞᆫ이

得ᄂᆞᄀᆞ 所ㅌ 勝利ㅓᄂᆞᄒᆞㅣ 是 [如]ᄎᆞᄉᆞᄀᆞㄴ 名ㅏ [爲] 涅槃ㄴ 首 [爲]
得혼 밧 勝利여 호리다 이 다ᄒᆞᆫᄋᆞᆯ 일하 涅槃을 首

ᄒᆞᄀᆞᄀᆞㅏ 有ㅌㄱ 所ㅌ 廣義ㅓᄂᆞᄇᆞㅓ 此ㄴ 除ㅁ斤 更ᄒᆞ 若過ᄉᆞᄒᆞ 若增
삼온이기 이슨 밧 廣義여 홇여 이를 덜고ᄂᆞᆫ 가시아 若過ᄒᆞ졔 若增

ᄉᆞᄒᆞᄉᆞᄀᆞ 无ᄂᆞᄀᆞㅐㅣ
ᄒᆞ졔 ᄒᆞᆫ 업견이다

<06,14-,17>
[云]何ᄉᆞᄀᆞㄴ 能熟解脫慧ㅌ[之] 成熟ㅐㅣᄂᆞᄉᆞㅁ 謂ㄱ 毘鉢舍那支 成熟
엇ᄒᆞᆫᄋᆞᆯ 能熟解脫慧ㅅ 成熟이다 호리고 닐온 毘鉢舍那支 成熟

ᄉᆞᄀᆞㅅᄆᆞ 故ㄴ 亦 名ㅏ 慧成熟ㅓᄉᆞᄉᆞ 奢摩他支 成熟ᄉᆞᄀᆞㅅᄆᆞ 故ㄴ 亦
ᄒᆞᄃᆞ로 故호 ᄯᅩ 일하 慧成熟여 ᄒᆞ며 奢摩他支 成熟ᄒᆞᆫᄃᆞ로 故호 ᄯᅩ

名ㅏ 慧成熟ㅓᄂᆞᄒᆞㅣ 所以者 何ㅓᄉᆞᄆᆞㄱ 定心中ᄒᆞㅌ 慧ㅐ [於]所知ㅌ 境
일하 慧成熟여 호리다 所以者 何여 ᄒᆞ곤 定心中앗 慧ㅣ 所知ㅅ 境

ᄀᆞᆫ 淸淨ᄒᆞ 轉ᄂᆞᆫᄃᆞᆯ ᄉᆞᄆᆞᆫ 故ᄂᆞᆫ
아기 淸淨히 轉ᄒᆞᆫ ᄃᆞ로 故여

<06,17-07,02>
又 毘鉢舍那支ㅣ 最初ᄒᆞ 必ᄒᆞ 善友ᄒᆞ [用]ᄒᆞ 依 [爲]ᄒᆞᄒᆞ 奢摩他支ㅣ
ᄯᅩ 毘鉢舍那支ᄂᆞᆫ 最初히 반ᄃᆞ기 善友를 ᄡᅳ아 依 삼제 奢摩他支ᄂᆞᆫ

尸羅圓滿ᄆᆞ[之] 攝受ᄂᆞᆫ 所ㅣᄒᆞᄂᆞᆫᄀᆞ 又 善友ㅣ[之] 攝受ᄂᆞᆫ 所ᄒᆞ
尸羅圓滿ᄋᆞ로 攝受ᄒᆞᆫ 바이졔 ᄒᆞ며 ᄯᅩ 善友ᄋᆡ 攝受ᄒᆞᆫ 바ᄅᆞᆯ

依ᄒᆞᄀᆞ [於]所知境ㅣᄀᆞ 眞實性ㅣ 中ᄒᆞᆫ 覺了欲 [有]ᄉᆞᄒᆞ 尸羅圓滿ᄆᆞ[之]
븥어ᄂᆞᆯ 所知境인 眞實性ㅅ 中아기 覺了欲 두졔 尸羅圓滿ᄋᆞ로

攝受ᄂᆞᆫᄀᆞ 所ᄒᆞ 依ᄒᆞᄀᆞ [於]增上尸羅ᄒᆞᆫ 淨戒ᄒᆞ 毁犯ᄂᆞᄒᆞᄒᆞᄒᆞ 非法ᄒᆞ
攝受ᄒᆞᆫ 바ᄅᆞᆯ 븥어ᄂᆞᆯ 增上尸羅아기 淨戒를 毁犯ᄒᆞ아금 非法을

現行ᄂᆞᄒᆞ 軌範ᄒᆞ 壞ᄂᆞᄒᆡᄒᆡ 中ᄒᆞᆫ 若 諸 有智ᄂᆞᆫᄀᆞ 同梵行者ㅣ 見聞疑ᄒᆞ
現行ᄒᆞ아 軌範을 壞ᄒᆞᄒᆞᆫ 中아기 若 모ᄃᆞᆫ 有智ᄒᆞᆫ 同梵行者ㅣ 見聞疑를

由ᄒᆞ 或 其 罪ᄒᆞ 擧ᄂᆞᄒᆞ 或 憶念ᄂᆞ [令]ㅣᄒᆞ 或 隨學ᄂᆞ [令]ㅣᄒᆞᄂᆞᆫᄃᆞᆫᄀᆞ
븥어 或 제 罪ᄅᆞᆯ 擧ᄒᆞ졔 或 憶念ᄒᆞ이졔 或 隨學ᄒᆞ이졔 ᄒᆞ건

[於]尒所ᄋᆞᄒᆡ 時ᄂᆞᆫ 譏論ᄒᆞ 堪忍ᄂᆞᄒᆞᄂᆞᆫ
尒所맛 時여긔 譏論을 堪忍ᄒᆞ졔 ᄒᆞ며

<07,02-,06>
又 所知 眞實 覺了欲ᄒᆞ 依ᄂᆞᆫᄀᆞ ᄉᆞᄆᆞ 故ㅣ 愛樂 請聞ᄂᆞᆫᄃᆞᆫ 樂聞ᄒᆞ 依ᄂᆞᆫᄀᆞ
ᄯᅩ 所知 眞實 覺了欲ᄋᆞᆯ 依ᄒᆞᆫ ᄃᆞ로 故ᄒᆞ 愛樂 請聞ᄒᆞ며 樂聞을 依ᄒᆞᆫ

ᄉᆞᄆᆞ 故ㅣ 便ᄀᆞ 請問ᄒᆞ 發ᄂᆞᆫᄃᆞᆫ 請問ᄒᆞ 依ᄂᆞᆫᄀᆞ ᄉᆞᄆᆞ 故ㅣ 昔尸 聞白尸
ᄃᆞ로 故ᄒᆞ 便오 請問을 發ᄒᆞ며 請問을 依ᄒᆞᆫ ᄃᆞ로 故ᄒᆞ 녆 듣ᄉᆞᆸᄋᆞᆯ

未ㅣᄂᆞᆯᄒᆞᆫᄃᆡᄂᆞᆫᄀᆞ 甚深 法義ᄒᆞ 聞ᄒᆞ 數數ㅣ 聽聞ᄂᆞᆸᄉᆞᄫᆞ 開斷ᄂᆞᆫ尸
아니ᄒᆞ잇다 혼 甚深 法義를 듣으며 數數이 聽聞ᄒᆞ아금 開斷홇

无ᄂᆞᆫᄀᆞ ᄉᆞᄆᆞ 故ᄂᆞ [於]彼 法義ᄀᆞᆫ 轉ㅣ 得ᄒᆞ 明淨ᄂᆞᆫᄀᆞᆷ 又 能ᄀᆞᆷ 先下
无ᄒᆞᆫ ᄃᆞ로 故호 더 法義아기 轉이 시러금 明淨ᄒᆞ며 또 能며 몯지하

生ᄂᆞᆫᄀᆞ 所ᄒᆞ 疑ᄒᆞ 除遣ᄂᆞᆫᄀᆞᆷ
生ᄒᆞᆫ 밧 疑를 除遣ᄒᆞ며

<07,06-,11>
是 [如]ᄒᆞᆺ 慧覺ㅣ 轉ㅣ 明淨ᄂᆞᆫᄀᆞ ᄉᆞᄆᆞ 故ᄂᆞ [於]諸世間ᄒᆞ 有ᄒᆞᆫᄀᆞ 所ᄒᆞ
이 다히 慧覺이 轉이 明淨ᄒᆞᆫ ᄃᆞ로 故호 諸世間ㅅ 이슨 밧

盛事ᄀᆞᆫ 能ᄀᆞᆷ 過患ᄒᆞ 見ᄂᆞᆸᄉᆞᄫᆞ 深心ᄆᆞᆷ 猒離ᄂᆞᆫᄀᆞᆷ 是 [如]ᄒᆞᆺᄂᆞᆫᄀᆞ 猒心ᄆᆞᆷ
盛事아기 能며 過患ᄋᆞᆯ 見ᄒᆞ아금 深心ᄋᆞ로 猒離ᄒᆞ며 이 다ᄒᆞᆫ 猒心ᄋᆞ로

善 作意ᄂᆞᆫᄀᆞ ᄉᆞᄆᆞ 故ᄂᆞ[於]彼 一切 世間ᄒᆞ 盛事ᄀᆞᆫ 願樂ᄒᆞ 生尸 不冬ᄂᆞᆫᄀᆞᆷ
이ᄃᆡ 作意ᄒᆞᆫ ᄃᆞ로 故호 더 一切 世間ㅅ 盛事아기 願樂ᄋᆞᆯ 낧 안돌ᄒᆞ며

彼ᄀᆞ 是[如]ᄒᆞᆺ [於]諸 世間ᄒᆞ 增上 生道ᄀᆞᆫ 願心 无ᄂᆞᆫᄀᆞ ᄉᆞᄂᆞᆫ[由]ᄀᆞᆫᄀᆞ ᄉᆞᄆᆞ
뎌는 이 다히 모ᄃᆞᆫ 世間ㅅ 增上 生道아기 願心 无ᄒᆞᆫ ᄃᆞᆯ 쁜 ᄃᆞ로

故ᄂᆞ 諸 惡趣ᄒᆞ 法ᄂᆞ 斷除ᄂᆞᆫ[爲欲]ㅅ 心ᄀᆞᆫ 正願ᄂᆞ 生ㅣᄀᆞᆷ
故호 모ᄃᆞᆫ 惡趣ㅅ 法을 斷除ᄒᆞ과 ᄆᆞᅀᆞᆷ아기 正願을 나이며

<07,11-,16>
又 能ᄀᆞᆷ 彼ᄂᆞ 對治ᄂᆞᆫᄉᆞᄒᆞ 有ᄒᆞᆫᄀᆞ 所ᄒᆞ 善法ᄂᆞ 修集ᄂᆞᆫ[爲]ㅅ 一切 煩惱
또 能며 뎌를 對治ᄒᆞ릿 이슨 밧 善法을 修集ᄒᆞ과 一切 煩惱

對治ㅣᄀᆞ 有ᄒᆞᆫᄀᆞ 所ᄒᆞ 善法ᄂᆞ 修集ᄂᆞᆫᄀᆞᆷ 彼 對治果ᄂᆞ 證得ᄂᆞᆫ[爲欲]ㅅᄂᆞᆫᄒᆞ
對治인 이슨 밧 善法을 修集ᄒᆞ며 뎌 對治果ᄅᆞᆯ 證得ᄒᆞ과 ᄒᆞ졔

亦 自ㅋ 心ㄴ 得ㅺ 淸淨ㅅㅣ[爲]ㅅㄴㅎㄴㅍㅏㅱ 故ㅣ 心ㅇㅓ 正願ㄴ
또 저의 ᄆᆞᅀᆞᆷ올 시러금 淸淨ᄒᆞ이과 ᄒᆞ제 홇 ᄃᆞ로 故호 ᄆᆞᅀᆞᆷ아기 正願을

生ㅣㅏㅎㅌㅣ 是 [如]ㅊㄴㄱ 十種ㄴ 能熟解脫慧ㅌ 成熟法ㅓㅣㅍㅓ 先下
나이겸ㅅ다 이 다ᄒᆞᆫ 十種을 能熟解脫慧ㅅ 成熟法여 홇여 몬지하

說ㅣㄱ 所ㄴ 如ㅅ 漸次ㅱ 能ㅿ 解脫 圓滿ㄴ[令]ㅣㅏㅎㅌㅣ
說ᄒᆞᆫ 바ᄅᆞᆯ ᄀᆞᆮ기 漸次로 能며 解脫 圓滿ᄒᆞ이겸ㅅ다

<07,16-,23>
又 次第ㄴ 隨ㅣ 已ㅇ 三支ㅣㄱ 謂ㄱ 聞正法圓滿ㅅ 涅槃爲上首ㅅ 能熟解
또 次第를 좇오 이믜사 三支인 닐온 聞正法圓滿과 涅槃爲上首와 能熟解

脫慧ㅌ[之] 成熟ㅅㄴ 說ㅅㅣㄱㅓ 是 [如]ㅊㄴㄱ 三支ㅌ 廣聖敎ㅌ 義ㄱ
脫慧ㅅ 成熟과ᄅᆞᆯ 니ᄅᆞ과 ᄒᆞᆫ여 이 다ᄒᆞᆫ 三支ㅅ 廣聖敎ㅅ 義는

謂 十十種ㅣㄱㅓ 此ㄴ 除ㅁ斤 更ㅇ 若過ㄴㅎ 若增ㄴㅎㄴㄱ 无ㅏㄱㅣㅣ
닐온 十十種인여 이ᄅᆞᆯ 덜고ᄂᆞᆫ 가ᄉᆡ아 若過ᄒᆞ제 若增ᄒᆞ제 ᄒᆞᆫ 없견이다

又 此 三支ㄴ 當ㅅ 知ㄱㅣ 卽 是ㄴ 修瑜伽因緣ㅓㅣㅎㅣㄱㅜ 何以故ㅓ
또 이 三支ᄅᆞᆯ 반ᄃᆞ기 알오다 卽 이ᄅᆞᆯ 修瑜伽因緣여 호리인뎌 何以故여

ㅇㅁㄱ 此 次第ㅅ 此 因ㅅ 此 緣ㅅㄴ 依ㅇ 瑜伽ㄴ 修習ㄴㄱ 方ㅇ
ᄒᆞ곤 이 次第와 이 因과 이 緣과ᄅᆞᆯ ᄇᆞᆮ어 瑜伽ᄅᆞᆯ 修習ᄒᆞᆫ 方사

得ㅺ 成滿ㄴㅍㅏㄴ [由]ㅇㄱㅅㅱㅓ 謂ㄱ 聞正法圓滿ㅅ 涅槃爲上首ㅅ
시러금 成滿홇 ᄃᆞᆯ ᄲᅳᆫ ᄃᆞ로여 닐온 聞正法圓滿과 涅槃爲上首와

能熟解脫慧ㅌ 成熟ㅅㄴ 依ㄴㄱㅅㅱ 故ㅣ
能熟解脫慧ㅅ 成熟과ᄅᆞᆯ 依ᄒᆞᆫ ᄃᆞ로 故다

<08,01-,04>
[云]何ᄂᆞᆨᄒᆞ 修習對治ᄆᆡᄒᆡᄂᆞᄉᆞᄆᆞ 當ᄒᆞ 知ᄀᆞᆡ 略ᄒᆞᆼ 說ᄆᆞᆨ [於]三位ᄒᆡ
엇ᄒᆞᆫᄋᆞᆯ 修習對治이다 호리고 반ᄃᆞ기 알오다 略히 니르곤 三位ᄉᆞ

中ᄋᆞᆫ 十種ᄒᆡ 瑜伽ᄒᆞ 修習ᄂᆞᆫ 對治ᄂᆞᄆᆞ 所ᄒᆡ 法 有ᄂᆞᆨᄆᆡᄀᆞᆨ
中아기 十種ᄉᆞ 瑜伽ᄅᆞᆯ 修習ᄒᆞ아 對治ᄒᆞᆷ ·밧 法 有ᄒᆞᆫ인뎌

[云]何ᄂᆞᆨᄒᆞ 三位ᄆᆡᄒᆡᄂᆞᄉᆞᄆᆞ 一十ᄀᆞ 在家位ᄉᆞ 二 出家位ᄉᆞ 三
엇ᄒᆞᆫᄋᆞᆯ 三位이다 호리고 ᄒᆞᄃᆞ나긘 在家位와 두블의귄 出家位와 세희귄

遠離閑居ᄂᆞᆫᄒᆞ 瑜伽ᄒᆞ 修ᄂᆞᄉᆞᄒᆡ 位ᄉᆞᄆᆡᄒᆡ
遠離閑居ᄒᆞ아금 瑜伽ᄅᆞᆯ 修호릿 位와이다

<08,04-,08>
[云]何ᄂᆞᆨᄒᆞ 十種ᄒᆡ 瑜伽ᄒᆞ 修習ᄂᆞᆫ 對治ᄂᆞᄆᆞ 所ᄒᆡ 法ᄆᆡᄒᆡᄂᆞᄉᆞᄆᆞ 謂ᄀᆞ
엇ᄒᆞᆫᄋᆞᆯ 十種ᄉᆞ 瑜伽ᄅᆞᆯ 修習ᄒᆞ아 對治ᄒᆞᆷ 밧 法이다 호리고 닐온

在家位ᄒᆡ 中ᄋᆞᆫ十ᄀᆞ [於]諸 妻室ᄋᆞᆫ 淫欲 相應ᄂᆞᆨ 貪 [有]ᄒᆞᆺᄀᆞᆫ [於] 餘
在家位ᄉᆞ 中아긘 모ᄃᆞᆫ 妻室아기 淫欲 相應ᄒᆞᆫ 貪 두며 餘

親屬ᄉᆞ 及 諸 財寶ᄉᆞᄋᆞᆫ十ᄀᆞ 受用 相應ᄂᆞᆨ 愛 [有]ᄒᆞᆺᄀᆞᆫᄂᆞᄆᆞᄉᆞᄂᆞᆯ 是
親屬과 밋 모ᄃᆞᆫ 財寶와아긘 受用 相應ᄒᆞᆫ 愛 두며 ᄒᆞᆷ ᄃᆞᆯ 이

[如]ᄉᆞᆫᄂᆞᆨᄒᆞ 名下 在家位ᄋᆞᆫ十 [爲]處ᄂᆞᆨ 所對治法ㅡᄂᆞᄆᆞㅡ
다ᄒᆞᆫᄋᆞᆯ 일하 在家位아기 處ᄒᆞᆫ 所對治法여 ᄒᆞᆷ여

<08,08-,12>
此 障导ᄒᆞ 由ᄋᆞᆫ [於]一切種ᄋᆞᆫ十 出離 能 不ᄒᆞᄂᆞᆫᄀᆞ 設ᄒᆞ 得ᄒᆞ 出家ᄂᆞᆫᄀᆞᄆᆞ
이 障导ᄅᆞᆯ 븥어 一切種아기 出離 能 안ᄃᆞᆨᄒᆞ며 비록 시러금 出家ᄒᆞ아나

此 尋思ㅡ[之] 擾動ノㄱ 所ㄴ 由ㅋ 障导ㄴ (爲)ㅡㄲ尸入ㅡ 故ノ 喜樂ㄴ
이 尋思로 擾動혼 바를 븥어 障导를 삼읾 ᄃᆞ로 故호 喜樂ᄋᆞᆯ

生尸 不多ソトㄱㅗ 是 [如]ㅊソㄱ 二種ㄷ 所對治ㄷ 法ㅋ十 其 次第ㄴ
낧 안ᄃᆞᆯᄒᆞ눈여 이 다ᄒᆞᆫ 二種ㅅ 所對治ㅅ 法아기 그 次第를

隨ノ 不淨想ㄴ 修ソㅎ 无常想ㄴ 修ソㅎソ尸入ㄴ 當ㅅ 知ㄱㅣ 是ㄴ 彼ㅋ
좇오 不淨想ᄋᆞᆯ 修ᄒᆞ졔 无常想ᄋᆞᆯ 修ᄒᆞ졔 홇ᄃᆞᆯ 반ᄃᆞ기 알오다 이를 뎌의

修習對治ㅗノチㄲㄱ丁
修習對治여 호리인뎌

<08,12-,19>
又 出家者ㄱ [於]出家位ㄷ 中ㅋ十 時時ㅋ十 略ㅎ 四種 所作[有]ㅛナㅎㄷㅣ
ᄯᅩ 出家者ᄂᆞᆫ 出家位ㅅ 中아기 時時아기 略히 四種 所作 두겸ㅅ다

一十ㄱ 常ㄲ 方便ㅱ 善法ㄴ 修ノ수ㄷ 所作ㄲㄱㅗ 謂ㄱ 我ㄱ [於]諸法ㅋ十
ᄒᆞᄃᆞ나긘 常이 方便ᄋᆞ로 善法을 修호릿 所作인여 닐온 나ᄂᆞᆫ 諸法아기

常ㄲ 方便ㅱ 修ノㄱ入ㄴ 依止 [爲]ㅈㄱ入ㅱ 故ノ 當ㅅ 能ㄱ 隨ノ 樂ㄴ
常이 方便으로 修혼 ᄃᆞᆯ 依止 삼온 ᄃᆞ로 故호 반ᄃᆞ기 能며 좇오 樂ᄋᆞᆯ

愛味ソ수ㄷ 一切 心識ㄴ 制伏ソㅎ 又 能ㄱ 實[如]ㅊ 苦性ㄴ 覺了ソㅎ
愛味ᄒᆞ릿 一切 心識을 制伏ᄒᆞ졔 ᄯᅩ 能며 實 다히 苦性을 覺了ᄒᆞ졔

ノチㄲㄱㄲㅋㅈㄷㅣソ尸矢ㄱ 二 [於]无戲論涅槃ㅋ十 信解愛樂ノ수ㄷ 所作ㄲㄱㅗ
호리인이앗다 홇디며 두블의권 无戲論涅槃아기 信解愛樂호릿 所作인여

謂ㄱ 我ㄱ 當ㅅ [於]无戲論 涅槃ㅋ十 心ㅋ十 退轉ノ尸 无ㅋ 憂慮ㄴ
닐온 나ᄂᆞᆫ 반ᄃᆞ기 无戲論 涅槃아기 ᄆᆞᅀᆞᆷ아기 退轉홇 없어 憂慮를

生ㅣ ᄀᆞᄒᆞ 謂尸 我ㄹ 我ㄱ 今艮[者] 何ㅁ 所ᄀᆞᆫ 在ㅅᄃㄱㅣ ᄀᆞᄒᆞᄂᆞᆫ ㅁㅗㅅ尸
나이아금 닐옳 나의 나ᄂᆞᆫ 今ㄱ 何오 所아지 在ᄒᆞ건이앗고 홇

不冬ㅅ夭ㄱㅣ ᄀᆞᄒᆞᄂᆞᆫ ㅣㅅ尸矢分[耶]
안둘호린이앗다 홇디며

<08,19-09,02>
三 [於]時時中ᄀᆞᆫ 聚落ᄀᆞᆫ 遊行ㅅᄀᆞᄒᆞ 乞食ㅅ令ᄂᆞ 所作ㅣㄱㅗ 謂ㄱ
세희권 時時中아지 聚落아지 遊行ᄒᆞ아금 乞食호릿 所作인여 닐온

我ㄱ 乞食受用ㄴ 因 [爲]ㅎᄀᆞ 身 得ㅂ 久住ㅅᄒᆞ 有力ㅅᄒᆞ 調適ㅅᄒᆞㅅᄀᆞ
나ᄂᆞᆫ 乞食受用올 因 삼아 身 시러금 久住ᄒᆞ졔 有力ᄒᆞ졔 調適ᄒᆞ졔 ᄒᆞ아

常ㅣ 能分 方便ㅱ 諸 善法ㄴ 修ㅅ夭ㄱㅣ ᄀᆞᄒᆞᄂᆞᆫ ㅣㅅ尸矢分 四
常이 能며 方便ᄋᆞ로 모ᄃᆞᆫ 善法을 修호린이앗다 홇디며 네희권

[於]遠離處ᄀᆞᆫ安住ㅅ令ᄂᆞ 所作ㅣㄱㅗ 謂ㄱ 若 愛樂ㅅᄀᆞᄒᆞ 諸 在家人
遠離處아지 安住호릿 所作인여 닐온 若 愛樂ᄒᆞ아금 모ᄃᆞᆫ 在家와

及ㄴ 出家人ㄴ 衆ㄴ 與ㄴ 雜 居住ㅅ尸ㅅㄱ[者] 便ㅁ 種種ㄴ 世間相應ㅅㄱ
밋 出家왓 衆을 다ᄆᆞᆺ 雜 居住홇 ᄃᆞᆫ 便오 種種人 世間相應ᄒᆞᆫ

見聞 受用ㄴ 諸 散亂事ㄴ [有]ㅛ白ㅅ夭ㅛㅁ 我ㅱ [於]彼正審觀察ㅅ令ㄴ
見聞 受用ㄴ 모ᄃᆞᆫ 散亂事ᄅᆞᆯ 두숣오리라 나로 彼正審觀察호릿

心 一境位ᄀᆞᆫ 當ㅅ 障导ㄴ 作ㅅㅣ尸 勿ㅅ夭ㄱㅣ ᄀᆞᄒᆞᄂᆞᆫ ㅣㅅ尸矢ㅣ
心 一境位아지 반ᄃᆞ기 障导ᄅᆞᆯ 作ᄒᆞ잃 勿호린이앗다 홇디다

<09,03-,11>
[於]此 四種 所作事ㄴ 中ᄀᆞᆫ 當ㅅ 知ㅁㅣ 四 所對治ㄴ 法 有ㅅᄀᆞ ㅣㄱㄱ丁
이 四種 所作事人 中아지 반ᄃᆞ기 알오다 네 所對治人 法 有ᄒᆞᆫ인뎌

[於]初ㄷ 所作ᄒᆞ十ㄱ 嬾墮懈怠 [有]ㅐ가 [於]第二所作ᄒᆞ十ㄱ 薩迦耶見
첫 所作아긘 嬾墮懈怠 두며 第二所作아긘 薩迦耶見

[有]ㅐ가 [於]第三所作ᄒᆞ十ㄱ 愛味貪 [有]ㅐ가 [於]第四所作ᄒᆞ十ㄱ 世間ㄷ
두며 第三所作아긘 愛味貪 두며 第四所作아긘 世間ㅅ

種種 樂欲 貪愛 [有]ㅐ가ᄂᆞᄆᆞ矣ㅣ 是 [如]ᄒᆞᆫᄂᆞㄱ 四種 所對治ㄷ 法ᄒᆞ十
種種 樂欲 貪愛 두며 홇디다 이 다ᄒᆞᆫ 四種 所對治ㅅ 法아기

其 次第ㄴ 如ㅅ 亦 四種 修習 對治 有ㄷ' 一十ㄱ [於]无常ᄒᆞ十 苦想ㄴ
그 次第를 ᄀᆞᆮ기 ᄯᅩ 四種 修習 對治 잇다 ᄒᆞᄃᆞ나긘 无常아기 苦想ᄋᆞᆯ

修習ᄂᆞ가 二 [於]衆苦ᄒᆞ十 无我想ㄴ 修ᄂᆞ가 三 [於]飮食ᄒᆞ十 厭逆想ㄴ
修習ᄒᆞ며 두블의긘 衆苦아기 无我想ᄋᆞᆯ 修ᄒᆞ며 세희긘 飮食아기 厭逆想ᄋᆞᆯ

修ᄂᆞ가 四 [於]一切 世間ᄒᆞ十 不可樂想ㄴ 修ᄂᆞ가ᄂᆞᄆᆞ矣ㅣ
修ᄒᆞ며 네희긘 一切 世間아기 不可樂想ᄋᆞᆯ 修ᄒᆞ며 홇디다

<09,11-,16>
又 [於]遠離閑居ᄂᆞᄒᆞ ᄒᆞ 方便作意ㅅᄉᆞᆫㄷ 位ㄷ 中ᄒᆞ十 當ㅅ 知ᄀᆞㅣ 略ㅁㄱ
ᄯᅩ 遠離閑居ᄒᆞ아금 方便作意호릿 位ㅅ 中아기 반ᄃᆞ기 알오다 略콘

四種 所治 有ᄂᆞㄱㅐㄱㅜ 何ᄀᆞ 等ᄂᆞㄱㄴ[爲]四ㅐㅣㅅᄉᆞㅁ 一十ㄱ[於]奢摩他
四種 所治 有ᄒᆞᆫ인뎌 何오 다ᄒᆞᆫᄋᆞᆯ 넿이다 호리고 ᄒᆞᄃᆞ나긘 奢摩他

毘鉢舍那品ᄒᆞ十 闇昧心 [有]ㅐ가 二 [於]諸定ᄒᆞ十 隨ᄀᆞ 愛味ᄂᆞᄆᆞ [有]ㅐ가
毘鉢舍那品아기 闇昧心 두며 두블의긘 諸定아기 좇오 愛味홇 두며

三[於]生ᄒᆞ十 隨動相心 [有]ㅐ가 四 後後日ㄴ 推ᄂᆞᄒᆞ 餘時ㄴ 顧待ᄂᆞᄒᆞᄂᆞᄒᆞ
세희긘 生아기 隨動相心 두며 네희긘 後後日을 推ᄒᆞ졔 餘時를 顧待ᄒᆞ졔 ᄒᆞ아

不死尋し 隨ノ 熾然ᄒᆞ 勤ヒ 方便し 修 能 不ハンカンア矢ㅣ
不死尋을 좇오 熾然히 브즐 方便을 修 能 안득ᄒᆞ며 홇디다

<09,16-,20>
是 [如]ᄎンㄱ 四種 所對治ヒ 法ᄋᆞ十 當ハ 知ㄱㅣ 亦 四種 修習對治
이 다ᄒᆞᆫ 四種 所對治ㅅ 法아기 반ᄃᆞ기 알오다 ᄯᅩ 四種 修習對治

有ンㄱㅣㄱ丁 一 光明想し 修ンカ 二 離欲想し 修ンカ 三 滅想し 修ンカ
有ᄒᆞᆫ인뎌 一 光明想을 修ᄒᆞ며 二 離欲想을 修ᄒᆞ며 三 滅想을 修ᄒᆞ며

四 死想し 修ンカンア矢ㅣ 又 不淨想ᄋᆞ十 略ロㄱ 二種 有ヒㅣ 一十ㄱ
四 死想을 修ᄒᆞ며 홇디다 ᄯᅩ 不淨想아기 略콘 二種 잇다 ᄒᆞᄃᆞ나긘

思擇力ᄆ 攝ノ今人 二 修習力ᄆ 攝ノ今人ㅣㅣ
思擇力ᄋᆞ로 攝호리와 두블의권 修習力ᄋᆞ로 攝호리와이다

<09,20-10,02>
思擇力ᄆ 攝ノア 不淨想ヒ 中ᄋᆞ十 當ハ 知ㄱㅣ 五法ㅣ 所對治ㅣアア
思擇力ᄋᆞ로 攝홇 不淨想ㅅ 中아기 반ᄃᆞ기 알오다 五法이 所對治잃 ᄃᆞᆯ

[爲]入しンチㅣㄱ丁 何ㄱ 等ンㄱし [爲]五ㅣㅣノ今ロ 一十ㄱ 毋邑し
ᄒᆞ리인뎌 何오 다ᄒᆞᆫ올 五이다 호리고 ᄒᆞᄃᆞ나긘 毋邑을

親近ンカ 二 顯ンㄱラ十 處ンᄋᆞ 失念ンカ 三 隱ンㄱラ十 居ンᄋᆞ
親近ᄒᆞ며 두블의권 顯ᄒᆞᆫ이기 處ᄒᆞ아 失念ᄒᆞ며 세희권 隱ᄒᆞᆫ의긔 居ᄒᆞ아

放逸ンカ 四 通ヒ 隱ンカ 顯ンㄱラ十 處ンᄋᆞ 串習力し 由ᄋᆞンカ
放逸ᄒᆞ며 네희권 ᄉᆞ뭇 隱ᄒᆞ며 顯ᄒᆞᆫ의긔 處하아 串習力을 븥어ᄒᆞ며

五 勤方便ᄆ 不淨し 修習ンナヤセ人 [雖]ㅛ 而ㄱ 作意錯亂ノアム 謂ㄱ
다ᄉᆞ의권 勤方便ᄋᆞ로 不淨을 修習ᄒᆞ겸ㅅ과두 而은 作意錯亂홇ᄃᆡ 닐온

不淨ᄂᆡ 觀 不ᄒᆞᄂᆞᆯᄊᆞᄫᅩ 淨相ᄂᆡ 隨ᄂᆞᆫ 轉ᄂᆞᆫᄆᆞᆯᄋᆞᆫᄂᆡ 是 [如]ᄒᆞᄂᆞᆯᄂᆡ 名ᄒᆞᆫ
不淨을 觀 안ᄃᆞᆨᄒᆞ아금 淨相ᄋᆞᆯ 좇오 轉ᄒᆞᆷ ᄃᆞᆯ 이 다ᄒᆞᆫᄋᆞᆯ 일하

[爲]作意錯亂ᄒᆞᄂᆞᆫᄒᆡ
作意錯亂여 호리다

<10,02-,12>
修習力 攝ᄂᆞᆫᄆᆞᆯ 不淨想ᄋᆞᆫ 中ᄒᆞᆫᄃᆞᆫ 當ᄒᆞ 知ᄒᆞᆯᄃᆡ 七法ᄅᆡ 所對治ᄅᆡᄆᆞᆯ [爲]ᄉᆞᆫᄂᆞᆫᄒᆡᄅᆡᄀᆞᆫ 丁
修習力ᄋᆞ로 攝ᄒᆞᆷ 不淨想ᄉᆞ 中아기 반ᄃᆞ기 알오다 七法이 所對治ᄋᆡᆯᄊᆞ ᄃᆞᆯ ᄒᆞ리인뎌

何ᄒᆞᆫ 等ᄂᆞᆫᄂᆡ [爲]七ᄅᆡᄂᆞᆫᄉᆞᆫᄅᆞ 謂ᄀᆞ 本所作事ᄒᆞᆫᄃᆞᆫ 心散亂ᄂᆞᆫᄉᆞᆫᄋᆞᆫ 性ᄉᆞ 本所作事ᄒᆞᆫᄃᆞᆫ 作用ᄂᆡ
何오 다ᄒᆞᆫᄋᆞᆯ 七이다 호리고 닐온 本所作事아기 心散亂호리ᄉᆞ 性과 本所作事아기 作用ᄋᆞᆯ

趣ᄂᆞᆫᄉᆞᆫ 性ᄉᆞ 方便作意ᄒᆞᆫᄃᆞᆫ 善巧 不ᄒᆞᄂᆞᆫᄉᆞᆫ 性ᄅᆡᄀᆞ 恭敬ᄂᆞᆯᄊᆞᄫᅩ 勤ᄋᆞᆫ 請問 不ᄒᆞᄂᆞᆯᄀᆞᆫᄂᆡ
趣호리ᄉᆞ 性과 方便作意아기 善巧 안ᄃᆞᆨ 호릿 性인 恭敬ᄒᆞ아금 브즌 請問 안ᄃᆞᆨ ᄒᆞᆫᄃᆞᆯ

[由]ᄒᆞᄀᆞᆫᄉᆞᆷ 故ᄂᆞᆫᄂᆞᆫᄉᆞᆫᄉᆞ 又 根門ᄂᆡ 守 能 不ᄒᆞᄂᆞᆯᄀᆞᆫᄂᆡ [由]ᄒᆞᄀᆞᆫᄉᆞᆷ 故ᄂᆞ 空閑ᄂᆞᆯᄀᆞᄒᆞᆫ
ᄇᆞᆫ ᄃᆞ로 故호 호리와 ᄯᅩ 根門을 守 能 안ᄃᆞᆨᄒᆞᆫ ᄃᆞᆯ ᄇᆞᆫᄃᆞ로 故호 空閑ᄒᆞᆫ이긔

處ᄂᆞᆫᄒᆞᆫᄋᆞᆫᄉᆞᆫ [雖]ᄉᆞᆨ 猶ᄅᆡ 種種ᄋᆞᆫ 染汙尋思 [有]ᄉᆞᆨᄒᆞᆫᄃᆞᆫ 其 心ᄂᆡ 擾亂ᄂᆞᆫᄆᆞᆯᄉᆞᆫ
處ᄒᆞᆷᄉᆞ과두 猶이 種種ᄉᆞ 染汙尋思 두어 그 ᄆᆞᄉᆞᆷᄋᆞᆯ 擾亂홈과

<10,08-15>
又 [於]飮食ᄒᆞᆫᄃᆞᆫ 知量 不ᄒᆞᄂᆞᆯᄀᆞᆫᄉᆞᆷ 故ᄂᆞ 身不調適ᄂᆞᆫᄆᆞᆯᄉᆞᆫ 又 尋思ᄉᆞᆷ
ᄯᅩ 飮食아기 知量 안ᄃᆞᆨᄒᆞᆫ ᄃᆞ로 故호 身不調適홈과 ᄯᅩ 尋思로

擾亂ᄂᆞᆫᄆᆞᆯ 所ᄂᆡ 爲ᄒᆞᄀᆞᆫᄉᆞᆷ 故ᄂᆞ 遠離ᄅᆡᄀᆞ 內心寂靜 奢摩他定ᄂᆡ 樂ᄆᆞᆯ
擾亂홈 바ᄅᆞᆯ 爲긴ᄃᆞ로 故호 遠離인 內心寂靜 奢摩他定을 즐길

不ᄉᆞᆼᄂᆞᆫᄆᆞᆯᄉᆞᆫ 又 彼身ᄅᆡ 不調適ᄂᆞᆯᄀᆞᆫᄂᆡ [由]ᄒᆞᄀᆞᆫᄉᆞᆷ 故ᄂᆞ 毘鉢舍那ᄂᆡ
안ᄃᆞᆯ ᄒᆞᆷ과 ᄯᅩ 彼身이 不調適ᄒᆞᆫ ᄃᆞᆯ ᄇᆞᆫ ᄃᆞ로 故호 毘鉢舍那ᄅᆞᆯ

善修 能 不ㅎㄴㅋ 實 [如]ᄒᆞ 諸法ㄴ 觀察 能 不ㅎㄴᄆᆞᄉㅣㄹㅣ 是
善修 能 안ᄃᆞᆨᄒᆞ아 實 다히 諸法을 觀察 能 안ᄃᆞᆨᄒᆞᆷ과이다 이

[如]ᄒᆞㄴㄱ 一切 所對治ㄴ 法ㄱ 當ㅎ 知ㅁㅣ 摠ᄒᆞ 說ㅁㄱ 一門ㅋㅜㄱ
다ᄒᆞᆫ 一切 所對治ㅅ 法은 반ᄃᆞ기 알오다 摠히 說콘 一門아긘

十二ㄹㅣ가 一門ㅋㅜㄱ 十四ㄹㅣㄱㄹㅣㄱㄷㅜ 又 卽ㅁ 是 [如]ᄒᆞㄴㄱ 所對治法ㄴ
十二이며 一門아긘 十四인인뎌 또 卽오 이 다ᄒᆞᆫ 所對治法ㅅ

能治ㄴ 白法ㅋㅜ 還ㅁ 亦所ㅏ 有ㄴㄱㅗ [於] 二種 不淨想ㄴ 修ㄴᄉᆞㄴ
能治ㅅ 白法아기 ᄃᆞᆯ오 亦所마 有ᄒᆞ여 二種 不淨想ᄋᆞᆯ 修ᄒᆞ릿

中ㅋㅜ 當ㅎ 知ㅁㅣ 多ㄹㅣ 所作 [有]ㅐㄱㄹㅣㄱㄷㅜ
中아기 반ᄃᆞ기 알오다 하이 所作 둔인뎌

<10,15-,23>
又 [於] 无常ㅋㅜ 修ㄴᄆᆞ 所ㄴ 苦想ㅋㅜ 略ㅁㄱ 六種 所對治法 有ㄴㅣ
또 无常아기 修ᄒᆞᆷ 밧 苦想아기 略콘 六種 所對治法 잇다

何ㅁ 等ㅇㄱㄴ [爲]六ㄹㅣㅣㄴᄉᆞㅁㅗ 一十ㄱ [於]未生ㅇㄱ 善法ㄹㅣ 最初ᄉᆞ
何오 다ᄒᆞᆫᄋᆞᆯ 六이다 호리고 ᄒᆞᄃᆞ나긘 未生ᄒᆞᆫ 善法이 最初히

生ㅇㅎ [應]ㄴㅇㄱㅋㅜ 而ㅱ 嫺熟 [有]ㅐㄱ 二 [於] 已生ㅇㄱ 善法ㄴ
生ᄒᆞᆷㅅ ᄒᆞᆫ아기 而로 嫺熟 두며 두블의긘 已生ᄒᆞᆫ 善法을

住ㅇᄉᆞ 不忘ㅇᄉᆞ 修習 圓滿ㅇᄉᆞ 倍ㄹㅣ 增廣ㅇ [令]ㄹㅣᄉᆞㄴᄆᆞㅎ[應]ㄴㅇㄱㄹㅜㅏ
住ᄒᆞ졔 不忘ᄒᆞ졔 修習 圓滿ᄒᆞ졔 倍이 增廣ᄒᆞ이졔 ᄒᆞᆷㅅ ᄒᆞ의기

有ㅇㄱ 所ㄴ 懈怠ㄹㅣ가 三 [於] 師長ㄴ 恭敬ㅇㅋㅜ 往ㅇㅋㅜㅎ 請問ㄴᄉᆞㄴ
有ᄒᆞᆫ 밧 懈怠이며 세희긘 師長ᄋᆞᆯ 恭敬ᄒᆞ아 往ᄒᆞ아금 請問호릿

中ᄀᆞᆫ 恒ㅣ 相續 不ᄒᆞᄂᆞᆫ 四 [於] 恒ㅣ 善法ᄋᆞᆯ 修ᄒᆞᄀᆞᄒᆞ 常ㅣ 師ᄋᆞᆯ
中아기 恒이 相續 안ᄃᆞ하며 네희귄 恒이 善法을 修ᄒᆞ아금 常이 師ᄅᆞᆯ

隨ᄂᆞ 轉ᄂᆞᄉᆞᆫ 淨信ᄋᆞᆯ 遠離ᄂᆞᆫᄀᆞ
좇오 轉호리긔 淨信을 遠離ᄒᆞ며

<10,21-11,2>
五 淨信ᄋᆞᆯ 遠離ᄂᆞᆫᄀᆞ ᄉᆞᆯᄋᆞᆯ 由ᄀᆞ 常ㅣ 修 能 不ᄒᆞᄂᆞᆫ 六 [於]內ᄀᆞᆫ
다ᄉᆞᄋᆞ긘 淨信을 遠離ᄒᆞᆫ ᄃᆞᆯ 븥어 常이 修 能 안ᄃᆞᄒᆞ며 여슷의귄 內아기

放逸ᄂᆞᆫᄀᆞᄒᆞ 放逸ᄂᆞᆫᄀᆞ ᄉᆞᆯᄋᆞᆯ [由]ᄒᆞᄀᆞ ᄉᆞᆯᄆᆞ 故ᄂᆞ [於]常ㅣ 諸 善法ᄋᆞ
放逸ᄒᆞ아금 放逸ᄒᆞᆫ ᄃᆞᆯ 쁜ᄃᆞ로 故호 常이 모ᄃᆞᆫ 善法을

修習ᄂᆞᄉᆞᆫᄐᆞ 中ᄀᆞᆫ 恒ㅣ 隨轉 不ᄒᆞᄂᆞᆫᄑᆞᄉᆞᆨᄋᆞᆫᄀᆞ 是 [如]ᄒᆞᄂᆞᆫᄀᆞ 六種 所對治ᄐᆞ
修習호릿 中아기 恒이 隨轉 안ᄃᆞ홇디다 이 다ᄒᆞᆫ 六種 所對治ㅅ

法ᄀᆞᆫ 還ᄀᆞ 六法ㅣ 能ᄀᆞ 對治ㅣᄑᆞ [爲]ᄉᆞᆫᄂᆞᆫᄀᆞ 多ㅣ 所作 [有]ᅀᆞᄇᆞ
法아기 돌오 六法이 能며 對治읾 ᄃᆞᆯ ᄒᆞ아 하이 所作 두ᄂᆞ

有ᄂᆞᆫᄀᆞᅀᆞ 此 與ᄐᆞ 相違ᄂᆞᆫᄀᆞᄒᆞᄀᆞ 其 相ᄋᆞ 知ᄂᆞᄀᆞ [應]ᄐᆞᄋᆞ
有ᄒᆞ여 이 다ᄆᆞᆺ 相違ᄒᆞᆫ인 그 相ᄋᆞᆯ 知홈ㅅ다

<11,02-,10>
又 光明想ᄀᆞ 多ㅣᄀᆞ 光明ᄋᆞ 緣ᄂᆞᆫ 以ᄒᆞ 境界 [爲]ᄒᆞᄂᆞᄒᆞᄒᆞᄀᆞᅀᆞ
또 光明想은 하인 光明ᄋᆞᆯ 緣ᄒᆞ아 뻐금 境界 삼ᄒᆞ리인여

三摩呬多地ᄐᆞ 中ᄀᆞᆫ 已ᄒᆞ 說ㅅᄂᆞᄀᆞ [如]ᄒᆞᄂᆞᄋᆞ 今ㅎ 此 義ᄐᆞ 中ᄀᆞᆫ
三摩呬多地ㅅ 中아기 이믜사 니르과 혼 다ᄒᆞ다 今ᄀ 이 義ㅅ 中아기

意ᄀ 法ᄋᆞ 緣ᄂᆞᆫᄐᆞ 光明ᄋᆞ 以ᄒᆞ 境界 [爲]ᄒᆞᄂᆞ 光明想ᄋᆞ 修ᄂᆞᄑᆞᄉᆞᆫᄋᆞ
意는 法ᄋᆞᆯ 緣ᄒᆞ릿 光明ᄋᆞᆯ 쁘아금 境界 삼아 光明想ᄋᆞᆯ 修홇 ᄃᆞᆯ

辯ノㄱㅣㅣ 謂ㄱ 聞ノㄱ 所ㄴ 如ㅅ 已ㅎ 得ㅠ 究竟ㅇㅎ 法ㄴ 忘念
辯혼이다 닐온 聞혼 바롤 ᄀᆞᆯ기 이믜사 시러금 究竟ᄒᆞ아 法ᄋᆞᆯ 忘念

不冬ㅇㅁㅅㄴ 名下 法光明ㅓノㅁㅓ 彼 與ㄷ 俱行ㅇㅎ 彼 相應ㅇㄱ 想ㄴ
안ᄃᆞᆯ 홇ᄃᆞᆯ 일하 法光明여 홇여 더 다ᄆᆞᆺ 俱行ᄒᆞ아 더 相應ᄒᆞᆫ 想ᄋᆞᆯ

知ノㅛ [應]ㄷㅣ 名下 光明想ㅓノㅎㅣㄱㄱㅜ 何以故ㅓㅇㅁㄱ 眞實ㅎ 能ㅋ
知홈ㅅ다 일하 光明想여 호리인뎌 何以故여 ᄒᆞ곤 眞實히 能며

心ㄴ 聞味ㅇ [令]ㅣㅁㅅㄱ[者] 謂ㄱ 方便ㅱ 止觀品ㄴ 修ㅇㅎㄷ 時十ㄷ
ᄆᆞᅀᆞᆷ올 聞味ᄒᆞ잃 ᄃᆞᆫ 닐온 方便ᄋᆞ로 止觀品을 修ᄒᆞ릿 ᄢᅴ

[於]諸法中ㅎㅓ 有ㄷㄱ 所ㄷ 忘念ㅣㅋ 此 與ㄷ 相違ㅇㄱㄴ 當ㅅ 知ㅎㅣ
諸法中아긔 이슨 밧 忘念이며 이 다ᄆᆞᆺ 相違ᄒᆞᆫ올 반ᄃᆞ기 알오다

卽ㅎ 是ㄴ 光明ㅓノㅎㅣㄱㄱㅜ
卽오 이ᄅᆞᆯ 光明여 호리인뎌

<11,10-,14>
又 第一義ㄷ 思所成慧ㅅ 及ㄷ 修所成慧ㅅ (俱)ㅇㄱ 光明想ㅎㅓ 十一法ㅣ
ᄯᅩ 第一義ㅅ 思所成慧와 밋 修所成慧와 俱ᄒᆞᆫ 光明想아긔 十一法이

所對治ㅣㅁ[爲]ㅅㄴㅇㅎ 有ㄷㅣ 云何ㅇㄱㄴ 十一ㅣㅣノㅎㅁ 謂ㄱ
所對治일 ᄃᆞᆯ ᄒᆞ리 잇다 엇ᄒᆞᆫ올 十一이다 호리고 닐온

思所成慧 俱ㅇㄱ 光明想ㅎㅓ 四法 有ㄷㅋ 修所成慧 俱ㅇㄱ 光明想ㅎㅓ
思所成慧 俱ᄒᆞᆫ 光明想아긔 四法 이스며 修所成慧 俱ᄒᆞᆫ 光明想아긔

七法 有ㅋㅇㄱㅓ 是 [如]ㅈㅇㄱ 所治ㅎㅓ 合ㅣㅁㄱ 十一 有ㄷㅣ
七法 이스며 ᄒᆞ여 이 다ᄒᆞᆫ 所治아긔 合이곤 十一 잇다

<11,14-,21>
思所成慧 俱ㅅㄱ 光明想ㅋ十 四法 有ㅅㄱ矣ㅣㅅㄱㅅㄱ[者] 一十ㄱ
思所成慧 俱호 光明想아기 四法 有ᄒᆞ디다 ᄒᆞᆫ ᄃᆞᆫ ᄒᆞᄃᆞ나귄

不善觀察ㅅㄱㅅ故ㅅ 不善決定ㅅㄱㅅ故ㅅ [於]思惟ㅅ尸 所ㅋ十 疑ㅢ
不善觀察ᄒᆞᄃᆞ로 故며 不善決定ᄒᆞᄃᆞ로 故호 思惟홇 바아기 疑이

隨逐ㅅ尸 有ㅌㅅ 二 [於]夜分ㅋ十 住ㅅㅋㅎ 嬾惰懈怠ㅅㄱㅅ故ㅅ 多ㅢ
隨逐홇 이스며 두블의귄 夜分아기 住ᄒᆞ아금 嬾惰懈怠ᄒᆞᆫ ᄃᆞ로 故며 하이

睡眠ㄴ 習ㅅㄱㅅ故ㅅ 時分ㄴ 虛度ㅅㅅ 三 [於]晝分ㅋ十 住ㅅㅋㅎ
睡眠을 習ᄒᆞᆫ ᄃᆞ로 故호 時分을 虛度ᄒᆞ며 세희귄 晝分아기 住ᄒᆞ아금

邪惡食ㄴ 習近ㅅㄱㅅ 故ㅅ 身 不調柔ㅅㅋ 隨順ㅎ 諸法ㄴ 諦觀 能
邪惡食을 習近ᄒᆞᆫ ᄃᆞ로 故호 身 不調柔ᄒᆞ아 隨順히 諸法을 諦觀 能

不ㅎㅅㅅ 四 在家ㅗ 出家ㅗㅅ尸ㄴ 與ㅌ 共相 雜住ㅅㅋ [於]聞ㅅㄱ 所ㄴ
안ᄃᆞᆨᄒᆞ며 네희귄 在家여 出家여 홇올 다ᄆᆞᆺ 共相 雜住ᄒᆞ아 聞ᄒᆞᆫ 바ᄅᆞᆯ

隨ㅅ 究竟ㅅ尸 所ㅌ 法ㅋ十 如理ㅎ 作意思惟 能 不ㅎㅅㅅ矣ㅣ
좇오 究竟홇 밧 法아기 如理히 作意思惟 能 안ᄃᆞᆨᄒᆞ며 홇디다

<11,21-12,01>
是 [如]ㅈ 疑ㅢ 隨逐ㅅㄱㅅ故ㅅ 能ㅅ 疑ㄴ 遣ㅅㅅㅌ 因緣ㄴ
이 다히 疑이 隨逐ᄒᆞᆫ ᄃᆞ로 故며 能며 疑를 遣호릿 因緣을

障导ㅅ尸ㅅ故ㅅ 此 四種法ㄴ 是ㄴ 思所成慧 俱ㅅㄱ 光明想ㅋ[之]
障导홇ᄃᆞ로 故호 이 四種法을 이를 思所成慧 俱호 光明想ㅣ

所對治ㅗㅅ尸ㅗ 思所成ㅌ 若智ㅅ 若見ㅅㄴ 得ㅎ 淸淨 不ㅎㅅ [令]ㅢ
所對治여 홇 思所成ㅅ 若智와 若見과ᄅᆞᆯ 시러금 淸淨 안ᄃᆞᆨᄒᆞ이

ᄀᆞᄒᆞᄂᆡ
겸ㅅ다

<12,01-,07>
何ᄀᆞ 等ᄂᆞᆫᄀᆞᄂᆞ 名ᄒᆞ [爲]修所成慧 俱ᄂᆞᆫᄀᆞ 光明想ᄅᆞ 所治ᄂᆡ 七法ᄲᅵᄂᆡᄂᆞᆫᄉᆞᄆᆞ
何오 다ᄒᆞᆯ 일하 修所成慧 俱ᄒᆞᆫ 光明想ᄋᆡ 所治ㅅ 七法이다 호리고

一十ᄀᆞ 擧相修ᄂᆞᆫ 依ᄂᆞᆫᄀᆞ 極勇精進 所對治ᄂᆡ 法ᄲᅵᄀᆞᆫ 二 止相修ᄂᆞᆫ 依ᄂᆞᆫᄀᆞ
ᄒᆞᄃᆞ나권 擧相修를 依ᄒᆞᆫ 極勇精進 所對治ㅅ 法이며 두블의권 止相修를 依ᄒᆞᆫ

極劣精進 所對治ᄂᆡ 法ᄲᅵᄀᆞᆫ 三 捨相修ᄂᆞᆫ 依ᄂᆞᆫᄀᆞ 定味ᄂᆞᆫ 貪着ᄂᆞᆷᄒᆞᄆᆞ 愛
極劣精進 所對治ㅅ 法이며 세희권 捨相修를 依ᄒᆞᆫ 定味를 貪着ᄒᆞ아금 愛

與ᄂᆡ 俱行ᄂᆞᆫᄀᆞ 有ᄂᆡᄀᆞᆫ 所ᄂᆡ 喜悅ᄲᅵᄀᆞᆫ 四 [於]般涅槃ᄀᆞᆷ 心ᄀᆞᆷ 恐怖ᄂᆞᆫ
다뭇 俱行ᄒᆞᆫ 이슨 밧 喜悅이며 네희권 般涅槃아기 ᄆᆞᅀᆞᆷ아기 恐怖ᄅᆞᆯ

懷ᄒᆞᆷ 瞋恚 與ᄂᆡ 俱ᄂᆞᆫᄀᆞᆷ 其 心 劫弱ᄂᆞᆷᄒᆞᄂᆞᆫᄉᆞᄆᆞᄂᆡ 二 所治ᄂᆡ 法ᄲᅵᄀᆞᆫ
품졔 瞋恚 다뭇 俱ᄒᆞ아 그 ᄆᆞᅀᆞᆷ 劫弱ᄒᆞ졔 호릿 二 所治ㅅ 法이며

<12,07-,16>
五 卽ᄀᆞ 是 [如]ᄒᆞᆫᄂᆞᆫᄀᆞ 方便作意ᄂᆞᆫ 依ᄀᆞᆷ [於]法ᄀᆞᆷ 精勤ᄂᆞᆷᄒᆞᄆᆞ
다ᄉᆞᆺ의긘 卽오 이 다ᄒᆞᆫ 方便作意를 븥어 法아기 精勤ᄒᆞ아금

論議決擇ᄂᆞᆷᄒᆞᆷ [於]立破門ᄀᆞᆷ 多ᄲᅵ 言論ᄂᆞᆫ 生ᄲᅵᄀᆞᆷ 相續 不捨ᄂᆞᆷᄒᆞᄂᆞᆫᄑᆞᄆᆞᄉᆞᄂᆞᆫᄀᆞ
論議決擇ᄒᆞ졔 立破門아기 하이 言論ᄋᆞᆯ 나이며 相續 不捨ᄒᆞ졔 홇ᄃᆞᆫ

此ᄀᆞ [於]寂靜ᄒᆞᆷ 正思惟ᄂᆞᆷᄒᆞᄂᆞᆫᄂᆡ 時ㅡ十 能ᄀᆞ 障导ᄲᅵᄑᆞ [爲]ᄉᆞᄂᆞᆫᄂᆞᆷᄒᆞᄂᆞᆫᄑᆞᄆᆞᄉᆞᄀᆞ
이ᄂᆞᆫ 寂靜ᄒᆞᆷ 正思惟ᄒᆞ릿 時여긔 能며 障导잃 ᄃᆞᆯ 홇디며

六 [於] 色聲 香味 觸ᄂᆡ 中ᄀᆞᆷ 不如 正理ᄒᆞᆷ 相好ᄂᆞᆫ 執取ᄂᆞᆷᄒᆞᄆᆞ 不正尋
여슷의권 色聲 香味 觸ㅅ 中아기 不如 正理히 相好ᄅᆞᆯ 執取ᄒᆞ아금 不正尋

思ᄆᆞᆷ 心ᄉᆡ 散亂ᄒᆞᆫ [令]ᄅᆡᄒᆞ尸矣ᄀᆞ 七 [於]思ᄂᆞᄒᆞᆫ [應]ᄒᆞᆫᄀᆡ 不矣ᄅᆡᄀᆡ
思로 ᄆᆞᅀᆞᆷ을 散亂ᄒᆞ잃디며 닐굽의귄 思홈ᄉᆞ ᄒᆞᆫ 안디인

處ᄒᆞᅀᆞ 强ᄒᆞᆼ 其 心ᄉᆡ 攝ᄒᆞᆫᄒᆞ 諸 法ᄉᆡ 思擇ᄒᆞᆫᄀᆞᄒᆞᆫ尸矣ᄂᆡ
곧아기 强히 그 ᄆᆞᅀᆞᆷ을 攝ᄒᆞ아 모든 法을 思擇ᄒᆞ며 홇디다

<12,13-,18>
是 [如]ᄒᆞᆫᄀᆡ 七種ᄉᆡ 是ᄉᆡ 修所成慧 俱ᄒᆞᆫᄀᆡ 光明想ᄅᆞ 所對治ᄂᆡ 法ㅣ
이 다ᄒᆞᆫ 七種을 이를 修所成慧 俱ᄒᆞᆫ 光明想이 所對治ㅅ 法여

ᄂᆞ尸ㅣ 極ᄒᆞᆼ 能ᄀᆞ 修所成慧 俱ᄒᆞᆫᄀᆡ 光明想ᄉᆡ 障导ᄒᆞᅀᆞ 修所成ᄂᆡ 若知ㅅ
홇여 極히 能며 修所成慧 俱ᄒᆞᆫ 光明想을 障导ᄒᆞ아 修所成ㅅ 若知와

若見ㅅᄉᆡ 淸淨ᄒᆞᆼ 轉 不ㅎᄒᆞᆫ [令]ᄅᆡᄂᆞᄒᆞᆫᄂᆡ 此 所治ᄂᆡ 法ᄒᆞᅀᆞ 還ᄀᆞ
若見과를 淸淨히 轉 안ᄃᆞᆨᄒᆞ이겸ㅅ다 이 所治ㅅ 法아기 돌오

十一ᄅᆡᄀᆡ 此 與ᄂᆡ 相違ᄒᆞᆫᄀᆡ 能對治ᄂᆡ 法ᄅᆡ 能ᄀᆞ [於]彼ᄉᆡ 斷ᄂᆞᄉᆞᆼ
十一인 이 다ᄆᆞᆺ 相違ᄒᆞᆫ 能對治ㅅ 法이 能며 뎌를 斷ᄒᆞ리

有ᄒᆞᆫᄀᆡㅣ 當ㅎ 知ᄀᆞᄂᆡ 亦 思修所成ᄂᆡ 若知ㅅ 若見ㅅᄉᆡ 淸淨ᄒᆞᆼ 而ᄆᆞ
有ᄒᆞᆫ여 반ᄃᆞ기 알오다 ᄯᅩ 思修所成ㅅ 若知와 若見과를 淸淨히 而로

轉ᄂᆞ[令]ᄅᆡᄒᆞᄒᆞᄅᆡᄀᆡ 丁
轉ᄒᆞ이리인뎌

<12,18-13,03>
又 正方便ᄆᆞ 諸 想ᄉᆡ 修ᄂᆞᄉᆞᆼᄂᆡ 者ᄀᆡ 能ᄀᆞ 所治法ᄉᆡ 斷滅ᄂᆞᄉᆞᆼᄂᆡ 欲
ᄯᅩ 正方便ᄋᆞ로 모든 想을 修ᄒᆞ릿 者ᄂᆞᆫ 能며 所治法을 斷滅ᄒᆞ릿 欲

[有]ᄊᆞᄒᆞᆼ 又 [於]所治ᄂᆡ 現行法ᄂᆡ 中ᄒᆞᅀᆞ 心ᄒᆞᅀᆞ 染着 不多ᄂᆞᄒᆞᅀᆞᄒᆞᆷ 速ᄅᆡ
두졔 ᄯᅩ 所治ㅅ 現行法ㅅ 中아기 ᄆᆞᅀᆞᆷ아기 染着 안ᄃᆞᆯᄒᆞ아금 ᄲᆞᄅᆞ이

斷滅ン [令]リき 又 能カ 多リ 能對治ヒ 法ラ十 住ンラホ 一切 所對治ヒ
斷滅ᄒ이졔 또 能며 하이 能對治ㅅ 法아기 住ᄒ아금 一切 所對治ㅅ

法し 斷滅ンきンヲ皿 是 [如]ᄎンフ 三法フ 一切 對治修し 隨逐ンフ入ㅛ
法을 斷滅ᄒ졔 ᄒ리라 이 다ᄒᆫ 三法은 一切 對治修를 隨逐ᄒᆫ ᄃ로

故ノ 名下 多所作ユノヲ丨 是 [如]ᄎンフし 名下 [爲]修習對治ユノ尸ユ
故호 일하 多所作여 호리다 이 다ᄒᆫ올 일하 修習對治여 흟여

此 修對治し 當ハ 知ㄱ丨 卽ㄱ 是し 修習瑜伽ユノヲリフ丁 此 第五支ヒ
이 修對治를 반ᄃ기 알오다 卽오 이롤 修習瑜伽여 호리인뎌 이 第五支ㅅ

修習對治ヒ 廣聖教義ラ十 當ハ 知ㄱ丨 唯ハ 是 [如]ᄎンフ 十相ミ 有ンフユ
修習對治ㅅ 廣聖教義아기 반ᄃ기 알오다 오직 이 다한 十相사 有ᄒᆫ여

此し 除ロ斤 更ラ 若過ンき 若增ンきンフ 无ンフリフ丁
이롤 덜고ᄂᆞᆫ 가시아 若過ᄒ졔 若增ᄒ졔 ᄒᆫ 无ᄒᆫ인뎌

<13,04-,07>
[云]何ンフし 世間 一切種 淸淨リ丨ノ个ロ 當ハ 知ㄱ丨 略ロフ 三種
엇ᄒᆫ올 世間 一切種 淸淨이다 호리고 반ᄃ기 알오다 略콘 三種

有ンフリフ丁 一十フ得三摩地ㅅ 二 三摩地圓滿ㅅ 三 三摩地自在ㅅリ丨
有ᄒᆫ인뎌 ᄒᄃ나긘 得三摩地와 두블의긘 三摩地圓滿과 세희긘 三摩地自在와이다

此ヒ 中ラ十 最初ラ十フ 二十種ヒ 得三摩地ヒ 所對治ヒ 法リ 能カ
잇 中아기 最初아긘 二十種ㅅ 得三摩地ㅅ 所對治ㅅ 法이 能며

勝三摩地し 得尸 不ハン [令]リ个 有ヒ丨
勝三摩地를 얻읋 안ᄃᆞᆨᄒ이리 잇다

<13,08-,15>
何等ㅅㄱㅣ 二十ㅢㅣㅅ仝ㅁ 一十ㄱ 斷ㅣ 樂尸 不多ㅅ仝ㅊ 同梵行者ㅣ
何等ᄒᆞᆯ 二十이다 호리고 ᄒᆞ두나긴 斷ᄋᆞᆯ 즐길ᄊᆞ 안ᄃᆞᆯᄒᆞ릿 同梵行者ᄅᆞᆯ

伴 [爲]ㅑㅅㅂㅊ 過失 [有]ㅐ分 二 伴ㄱ 有德ㅅ人 [雖]ㅐ 然ㅅ乃 能分
伴 삼호ᄃᆞ 過失 두며 두블의권 伴은 有德ᄒᆞ과두 然ᄒᆞ나 能며

修定方便ㅣ 宣說ㅅ仝ㅊ 師ㅢ 過失 [有]ㅐㅅ尸ㅁ 謂ㄱ 顚倒ㅎ 修定方便ㅣ
修定方便ᄋᆞᆯ 宣說ᄒᆞ릿 師이 過失 두ᄋᆞᆷ디 닐온 顚倒히 修定方便ᄋᆞᆯ

說ㅅ尸矢分 三 師ㄱ 有德ㅅ人 [雖]ㅐ 然ㅅ乃 [於] 所說ㅊ 修定方便ㅑ十
說ᄒᆞᆷ디며 세희권 師ᄂᆞᆫ 有德ᄒᆞ과두 然ᄒᆞ나 所說ㅅ 修定方便아기

其 能聽者ㅢ 欲樂羸劣ㅅㅑ 心 散亂ㅅㄱ 入ㅠ 故ㅅ 領受 能 不ㅅㅅ仝ㅊ
그 能聽者이 欲樂羸劣ᄒᆞ아 ᄆᆞᅀᆞᆷ 散亂ᄒᆞᆫ ᄃᆞ로 故호 領受 能 안ᄃᆞᆨ호릿

過失ㅢ分 四 其 能聽者ㅢ 樂欲 [有]ㅐㅑㅎ 屬耳ㅅㅑ 而ㅠ 聽ㅅㅍㅊ人
過失이며 네희권 저 能聽者이 樂欲 두어금 屬耳ᄒᆞ아 而로 聽ᄒᆞᆷㅅ과

[雖]ㅐ 然ㅅ乃 闇鈍ㅅㄱ 入ㅠ 故分 覺慧 劣ㅅㄱ 入ㅠ 故ㅅ 領受 能 不ㅅ
두 然ᄒᆞ나 闇鈍ᄒᆞᆫ ᄃᆞ로 故며 覺慧 劣ᄒᆞᆫ ᄃᆞ로 故호 領受 能 안ᄃᆞᆨ

ㅅ仝ㅊ 過失ㅢ分
호릿 過失이며

<13,15-,19>
五 智德 [有]ㅐㅅ人 [雖]ㅐ 然ㅅ乃 是ㄱ 愛行ㅢㅠ 多ㅢ 利養 恭敬ㅣ 求
다ᄉᆞ읫긴 智德 두과두 然ᄒᆞ나 이ᄂᆞᆫ 愛行이라 하이 利養 恭敬ᄋᆞᆯ 求

ㅅ仝ㅊ 過失ㅢ分 六 多分 憂愁ㅅㅑㅎ 難養難滿ㅅ夭ㅠ 喜足ㅣ 知尸
호릿 過失이며 여슷의권 多分 憂愁ᄒᆞ아금 難養難滿호리라 喜足ᄋᆞᆯ 앎

不ㅎ ᄂᆞᆫᄉᆞᆫᄒᆞ 過失ㅣᄀᆞᆷ 七 卽ᄀᆞ 是 [如]ᄒᆞᆫᄂᆞᆫᄀᆞ 增上力ᄒᆞ [由]ᄒᆞᄀᆞ ᄉᆞᄆᆞ
안ᄃᆞᆨ호릿 過失이며 닐굽의귄 卽오 이 다ᄒᆞᆫ 增上力을 ᄠᅳᆫ ᄃᆞ로

故ᄂᆞ 諸事務 多ᄂᆞᆫᄉᆞᆫᄒᆞ 過失ㅣᄀᆞᆷ 八 此 失ᄀᆞ 无ᄒᆞᄉᆞᆫ[雖]ᅀᅡ 然ᄂᆞᆫᄀᆞ
故호 諸事務 多호릿 過失이며 여듧의귄 이 失은 없과두 然ᄒᆞ나

懈怠嬾惰 [有]ᅀᅡᄀᆞ ᄉᆞᄆᆞ 故ᄂᆞ 加行ᄒᆞ 棄捨ᄂᆞᆫᄉᆞᆫᄒᆞ 過失ㅣᄀᆞᆷ
懈怠嬾惰 둔 ᄃᆞ로 故호 加行ᄒᆞᆯ 棄捨호릿 過失이며

<13,19-14,01>
九 此 失ᄀᆞ 無ᄒᆞᄉᆞᆫ [雖]ᅀᅡ 然ᄂᆞᆫᄀᆞ 他 種種ᄒᆞᆫ 障导ㅣ 生起ᄂᆞᆫᄆᆞᄉᆞᆫᄒᆞ
아홉ᄋᆡ귄 이 失은 없과두 然ᄒᆞ나 他 種種ᄉᆞᆫ 障导이 生起홇 ᄃᆞᆯ

爲ᄒᆞᆫᄂᆞᆫᄉᆞᆫᄒᆞ 過失 [有]ᅀᅡᄀᆞᆷ 十 此 失ᄀᆞ 無ᄒᆞᄉᆞᆫ [雖]ᅀᅡ 然ᄂᆞᆫᄀᆞ [於]寒熱
爲기 호릿 過失 두며 열희귄 이 失은 없과두 然ᄒᆞ나 寒熱

等ᄂᆞᆫᄀᆞ 苦ᄒᆞᄀᆞ 十 堪忍 能 不ㅎ ᄂᆞᆫᄉᆞᆫᄒᆞ 過失 [有]ᅀᅡᄀᆞᆷ 十一 此 失ᄀᆞ 無ᄒᆞᄉᆞᆫ
다ᄒᆞᆫ 苦아기 堪忍 能 안ᄃᆞᆨ호릿 過失 두며 열ᄒᆞᄃᆞ나긘 이 失은 없과

[雖]ᅀᅡ 然ᄂᆞᆫᄀᆞ 慢ᄉᆞᆫ 恚ᄉᆞᆫᄒᆞ 過ᄆᆞ 故ᄂᆞ 敎誨ᄒᆞ 領受 能 不ㅎ ᄂᆞᆫᄉᆞᆫᄒᆞ 過失
두 然ᄒᆞ나 慢과 恚왓 過로 故호 敎誨ᄅᆞᆯ 領受 能 안ᄃᆞᆨ호릿 過失

[有]ᅀᅡᄀᆞᆷ 十二 此 失ᄀᆞ 無ᄒᆞᄉᆞᆫ[雖]ᅀᅡ 然ᄂᆞᆫᄀᆞ [於]敎ᄒᆞᄀᆞ 十 顚倒 思惟ᄂᆞᆫᄉᆞᆫᄒᆞ
두며 열두블의귄 이 失은 없과두 然ᄒᆞ나 敎아기 顚倒 思惟호릿

過失 [有]ᅀᅡᄀᆞᆷ
過失 두며

<14,01-,06>
十三 此 失ᄀᆞ 無ᄒᆞᄉᆞᆫ [雖]ᅀᅡ 然ᄂᆞᆫᄀᆞ [於]所受ᄒᆞ 敎ᄒᆞᄀᆞ 十 忘念ᄂᆞᆫᄉᆞᆫᄒᆞ 過失
열세희귄 이 失은 없과두 然하나 所受ᄉᆞᆫ 敎아기 忘念호릿 過失

[有]ㅐ가 十四 此 失ㄱ 无七人 [雖]ㅐ 然ㅅ乃 在家 出家ᄆᆞᆷ 雜住ㅅᄉᆞᆫㄷ 過
두며 열네희귄 이 失은 없과두 然ᄒᆞ나 在家 出家로 雜住호릿 過

失 [有]ㅐ가 十五 此 失ㄱ 無七人 [雖]ㅐ 然ㅅ乃 五失 相應ㅅㄱ 臥具ㄴ
失 두며 열다ᄉᆞ싀긘 이 失은 없과두 然ᄒᆞ나 五失 相應ᄒᆞᆫ 臥具를

受用ㅅᄉᆞᆫㄷ 過失 [有]ㅐ尸矢ㅣㄱㅗ 五失 相應ㅅㄱ 臥具ㄱ 知ㅅᄀᆞ[應]ㄷㅣ
受用호릿 過失 ᄃᆞᆷ디인여 五失 相應ᄒᆞᆫ 臥具는 知홈ㅅ다

聲聞地ㅇㅓ 當ㅅ 說白ㅅ尸 [如]ᄎᆞㅅㄱㅣㄱㅜ
聲聞地아긔 반ᄃᆞ기 니르ᅀᆞᆷᄋᆞᆷ 다ᄒᆞᆫ인뎌

<14,06-,11>
十六 此 失ㄱ 無七人[雖]ㅐ 然ㅅ乃 [於]遠離處ㅇㅓ 諸根ㄴ 守護 不ㅎㅅㄱ
열여슷의귄 이 失은 없과두 然ᄒᆞ나 遠離處아긔 諸根을 守護 안ᄃᆞᆨᄒᆞᆫ

ㅅᄆᆞ 故ㅅ 不正尋思ㅅᄉᆞᆫㄷ 過失 [有]ㅐ가 十七 此 失ㄱ 無七人 [雖]ㅐ 然
ᄃᆞ로 故호 不正尋思호릿 過失 두며 열닐굽의귄 이 失은 없과두 然

ㅅ乃 食 不平等ㅅㄱ ㅅㄴ [由]ㅣㄱ ㅅᄆᆞ 故ㅅ 身 沈重ㅅㅇㅓㅈ 堪能ㅅ尸 所
ᄒᆞ나 食 不平等ᄒᆞᆫ ᄃᆞᆯ 뻔 ᄃᆞ로 故호 몸 沈重ᄒᆞ아금 堪能ᄒᆞᆷ 바

无ㅅᄉᆞᆫㄷ 過失 [有]ㅐ가 十八 此 失ㄱ 无七人[雖]ㅐ 然ㅅ乃 性多睡眠ㅅㅇㅓ
无호릿 過失 두며 열여듧의귄 이 失은 없과두 然ᄒᆞ나 性多睡眠ᄒᆞ아

ㅈ 多ㅣㄱ 睡眠隨煩惱ㅣ 現行ㅅᄉᆞᆫㄷ 過失 [有]ㅐ가
금 하인 睡眠隨煩惱이 現行호릿 過失 두며

<14,11-,17>
十九 此 失ㄱ 无七人[雖]ㅐ 然ㅅ乃 先下 奢摩他品ㄴ 修行 不ㅎㅅㄱ ㅅᄆᆞ
열아홉의긘 이 失은 없과두 然ᄒᆞ나 몬지하 奢摩他品을 修行 안ᄃᆞᆨᄒᆞᆫ ᄃᆞ로

故ノ [於]內心 寂止ㅢㄱ 遠離ㄴ 中ㅋ十 不欣樂ノ亽ㄴ 過失 [有]ㅐ分 二十
故호 內心 寂止인 遠離ㅅ 中아기 不欣樂호릿 過失 두며 스믈희권

此 失ㄱ 无ㄴㅅ[雖]ㅐ 然ㅅ乃 先下 毘鉢舍那品ㄴ 修行 不ㅎㅅㄱㅅ〻 故ノ
이 失은 없과두 然ᄒᆞ나 몬지하 毘鉢舍那品을 修行 안득ᄒᆞᆫ 드로 故호

[於]增上慧法 毘鉢舍那ㅢㄱ 如實觀ㄴ 中ㅋ十 不欣樂ノ亽ㄴ 過失 [有]ㅐ分
增上慧法 毘鉢舍那인 如實觀ㅅ 中아기 不欣樂호릿 過失 두며

ㅅ尸矢ㅣ 是 [如]ㅈㅅㄱ 二十種法ㄴ 是ㄴ 奢摩他ㅅ 毘鉢舍那ㅅㄴ 品〻 心
홇디다 이 다ᄒᆞᆫ 二十種法을 是ᄅᆞᆯ 奢摩他와 毘鉢舍那왓 品으로 心

一境性ㄴ 證得ノ尸ㅋㄴ[之] 所對治ㅗノ孑ㅣ
一境性을 證得홇잇 所對治여 호리다

<14,17-,22>
又 此 二十種ㄴ 所對治法ㄱ 略ㅁㄱ 四相ㄴ 由ㅋ [於]生起ノ尸 所ㄴ
또 이 二十種ㅅ 所對治法은 略콘 四相올 븥어 生起홇 밧

三摩地ㄴ 中ㅋ十 堪能ㅎ 障ㄴ 爲一ㅢナㅎㄴㅣ 何等ㅅㄱㄴ [爲]四ㅢㅣノ亽ㅁ
三摩地ㅅ 中아기 堪能히 障올 삼이겸ㅅ다 何等ᄒᆞᆫ올 四이다 호리고

一十ㄱ [於]三摩地 方便ㅋ十 善巧 不ㅎㅅㅢ尸ㅅ〻(※난상不ㅎ令ㅢ尸ㅅ〻)
ᄒᆞ드나긘 三摩地 方便아기 善巧 안득ᄒᆞ잃 드로(※난상 안득ᄒᆞ잃 드로)

故ㅀ 二 [於]一切 修定 方便ㅋ十 全ㅋ 加行 無ㅎㅅㅢ尸ㅅ〻 故ㅀ 三
故며 두블의긘 一切 修定 方便아기 오올오 加行 無히 ᄒᆞ잃 드로 故며 세희긘

加行ㄴ 顚倒ㅅㅢ尸ㅅ〻 故ㅀ 四 加行ㄴ 縵緩ㅅㅢ尸ㅅ〻 故ㅣ
加行올 顚倒ᄒᆞ잃 드로 故며 네희긘 加行올 縵緩ᄒᆞ잃 드로 故다

<14,22-15,04>
此 三摩地ㄴ 所對治法ㅣ十 二十種 白法對治 有ㅅㄱㅗ 此 與ㄴ
이 三摩地ㅅ 所對治法아기 二十種 白法對治 有ᄒᆞ여 이 다ᄆᆞᆺ

相違ㅅㄱㅣㄱ 其 相ㄴ 知ㅅ[應]ㄴㅣ 此ㅁ(?) 能ㅁ 所對治ㄴ 斷ㅅᄉᆞㄴ
相違ᄒᆞᆫ인 그 相ᄋᆞᆯ 知ᄒᆞᆷㅅ다 이(며?) 能며 所對治를 斷ᄒᆞ릿

法ㅣ 所作 多ㅅㄱㅅㄴ [由]ㅣㄱㅅㅠ 故ㅅ 疾疾ㅎ 能ㅁ 得ㅂ 其 心ㄴ
法이 所作 多ᄒᆞᆫ돌 ᄲᅳᆫ ᄃᆞ로 故호 疾疾히 能며 시러금 그 ᄆᆞᅀᆞᆷ올

正住ㅅㅣㅏ 三摩地ㄴ 證ㅅㅣㅏㅋㅎㅁ 又 此 三摩地ㄴ 得ㅣ斤 當ㅅ 知ㅁㅣ
正住ᄒᆞ이하 三摩地ᄅᆞᆯ 證ᄒᆞ이겨리며 ᄯᅩ 이 三摩地ᄅᆞᆯ 얻오ᄂᆞᆯ 반ᄃᆞ기 알오다

卽ㅁ 是ㄱ 初靜慮ㄴ 近分定ㄴ 得ㅋㅎㅛ 未至位ㅠ 攝ㅅ尸 所ㅣㄱㅜ
卽오 이ᄂᆞᆫ 初靜慮ㅅ 近分定을 얻겨리라 未至位로 攝ᄒᆞᆷ 바인뎌

<15,04-,09>
又 此 得三摩地 相違法ㅅ 及ㄴ 得三摩地 隨順法ㅅㄴ 廣聖教ㄴ 義ㅣ十
ᄯᅩ 이 得三摩地 相違法과 밋 得三摩地 隨順法ᄭᅪ 廣聖教ㅅ 義아기

當ㅅ 知ㅁㅣ 唯ㅅ 此 二十種ㅣ 有ㅅㄱㅗ 此ㄴ 除ㅁ斤 更ㅣ 若過ㅅㅎ
반ᄃᆞ기 알오다 오직 이 二十種사 有ᄒᆞ여 이ᄅᆞᆯ 덜고ᄂᆞᆫ 가ᄉᆡ아 若過ᄒᆞ졔

若增ㅅㅎㅅㄱ 無ㅅㄱㅣㄱㅜ 此 因緣ㄴ 由ㅣ 初ㄴ 世間 一切種 淸淨ㄴ
若增ᄒᆞ졔 ᄒᆞᆫ 無ᄒᆞᆫ인뎌 이 因緣을 븥어 初ㅅ 世間 一切種 淸淨을

依ㅣ [於]此 正法ㅣㅏㅅㄱ 補特伽羅ㄱ 三摩地ㄴ 得ㅣ斤 已 善
븥어 이 正法아기 ᄒᆞᆫ 補特伽羅ᄂᆞᆫ 三摩地를 얻어ᄂᆞᆯ 已 善

宣說ㅅㅎ 已 善 開示ㅅㅎㅅㅏㅌㄱㅣㅣ
宣說하졔 已 善 開示ᄒᆞ졔 ᄒᆞᄂᆞᆫ이다

<15,10-,14>
復次 是[如]ᄎ 已ᄉ 三摩地ㄴ 得ㅅㅂㄷ 者ㄱ [於]此 少小ㅅㄱ 殊勝定ㄷ
復次 이 다히 이믜사 三摩地ᄅᆞᆯ 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이 少小ᄒᆞᆫ 殊勝定ㅅ

中ᄋᆞᅀᆞ 喜足ㄴ 生尸 不多ㅅᄋᆞᅀᆞ [於]勝三摩地圓滿ㅅㄱㅋᅀᆞ 更ᄋᆞᅀᆞ 求願ㅅ尸入ㄴ
中아ᄀᆡ 喜足ᄋᆞᆯ 낧 안ᄃᆞᆯ하아 勝三摩地圓滿ᄒᆞᆫ의ᄀᆡ 가시아 求願홇 ᄃᆞᆯ

起ᄉᆞ 又 卽ㅇ [於]彼ㅋᅀᆞ 勝功德ㄴ 見ㅅᄉᆞ 又 求願ㅅᄒᆞ 勝功德ㄴ 見ᄒᆞ
닐며 ᄯᅩ 卽오 뎌의긔 勝功德을 見ᄒᆞ며 ᄯᅩ 求願ᄒᆞ졔 勝功德을 보졔

ㅅㄱ入ㄴ 由ᄋᆞᅀᆞ 彼ㄴ 求ㅅ [爲]ㅅㅅ尸入ᄆᆞ 故ㅅ 勇猛精進ㅅᄋᆞᅀᆞ
ᄒᆞᆫᄃᆞᆯ 븥어 뎌를 求ᄒᆞ과 홇 ᄃᆞ로 故호 勇猛精進ᄒᆞ아

策勵ㅅᄋᆞᅀᆞㅎ 而ᄆᆞ 住ㅅᄉᆞ
策勵ᄒᆞ아금 而로 住ᄒᆞ며

<15,14-,17>
又 彼ㄱ [於]色 相應ㅅㅂㄷ 愛味 俱行ㅅㄱ 煩惱ᄋᆞᅀᆞ 能ᄉᆞ 一切之ㄷ
ᄯᅩ 뎌는 色 相應ᄒᆞᄂᆞᆫ 愛味 俱行ᄒᆞᆫ 煩惱아ᄀᆡ 能며 一切잇

皆 永斷ㅅᄉᆞ 非ᄉᆞᄅᆡㄱㅅᄆᆞ 故ㅅ 名下 非得勝ㅓㅅᄒᆞᄉᆞ 又 [於]彼 諸 善法ㄷ
皆 永斷ᄒᆞ리 안디인 ᄃᆞ로 故호 일하 非得勝여 호리며 ᄯᅩ 뎌 모ᄃᆞᆫ 善法ㅅ

中ᄋᆞᅀᆞ 皆 勤修ㅅᄉᆞ 非ᄉᆞᄅᆡㄱㅅᄆᆞ 故ㅅ 名下 他所勝ㅓㅅᄒᆞᄉᆞ 又 [於]廣大ㅅㄱ
中아ᄀᆡ 皆 勤修ᄒᆞ리 안디인ᄃᆞ로 故호 일하 他所勝여 호리며 ᄯᅩ 廣大ᄒᆞᆫ

淨天生ㄷ 處ᄋᆞᅀᆞ 沈沒ㅅ尸 无有ᄉᆞ
淨天生ㅅ 處아ᄀᆡ 沈沒홇 无有며

<15,18-16,01>
又 彼ㄱ 能ᄀ [於]已ᄋᆞ 下劣信解ᄒᆞ 陵蔑ㄴᄆᆞ 无ᄒᆞ 增上力ᄆᆞ 故ㄴᄋᆞᆫᄀ
또 더는 能며 저의 下劣信解ᄅᆞᆯ 陵蔑홈 없어 增上力으로 故호 ᄒᆞ며

又 彼ㄱ 是 [如]ᄉᆞ 心ᄒᆞ十 沈沒ㄴᄆᆞ 無ᄒᆞᄉᆞ [於]定 所緣 境界法ㅌ 中ᄒᆞ十
또 더는 이 다히 ᄆᆞᄉᆞᆷ아기 沈沒홈 없어금 定 所緣 境界法ㅅ 中아기

卽ᄋᆞ 先下 得ㄴᄀ 所ㅌ 止擧捨相ᄒᆞ 無間ㅅ 殷重ㅅㅌ 方便ᄆᆞ 修ᄋᆞᆫᄀㅅᄆᆞ
卽오 몬지하 得혼 밧 止擧捨相ᄋᆞᆯ 無間과 殷重괏 方便ᄋᆞ로 修ᄒᆞᆫ ᄃᆞ로

故ㄴ 隨順ᄒᆞ 而ᄆᆞ 轉ᄋᆞᆫᄀ 又 彼ㄱ 是 [如]ᄉᆞ 法相ᄒᆞ 隨ㄴ 轉ᄋᆞᄒᆞᄉᆞ 數ㅣ
故호 隨順히 而로 轉ᄒᆞ며 또 더는 이 다히 法相ᄋᆞᆯ 좇오 轉ᄒᆞ아금 數이

入ᄋᆞᄒᆞ 數ㅣ 出ᄋᆞᄒᆞᄋᆞᄒᆞ 速疾 通慧ᄒᆞ 證得ᄋᆞ [爲欲]ㅅ 定圓滿ᄒᆞ 依ᄒᆞ
入ᄒᆞ제 數이 出ᄒᆞ제 ᄒᆞ아 速疾 通慧를 證得ᄒᆞ과 定圓滿ᄋᆞᆯ 븥어

樂ᄋᆞ 正法ᄒᆞ 聞ㅏㄷᄆᆞㅅᄆᆞ 故ㄴ [於]時時ㅌ 中ᄒᆞ十 慇懃 請問ᄋᆞᆫᄀ
즐기오 正法을 듣겯 ᄃᆞ로 故호 時時ㅅ 中아기 慇懃 請問ᄒᆞ며

<16,01-,08>
又 是 [如]ᄉᆞᄋᆞᆫᄀ 三摩地圓滿ᄒᆞ 依ᄋᆞᆫᄀㅅᄆᆞ 故ㄴ [於]正方便ㅣᄀ 根本定ᄆᆞ
또 이 다ᄒᆞᆫ 三摩地圓滿ᄋᆞᆯ 依ᄒᆞᆫ ᄃᆞ로 故호 正方便인 根本定으로

攝ㄴᄆᆞ 內心 奢摩他ᄒᆞ十 遠離 愛樂ᄒᆞ 證得ᄋᆞᄒᆞ 又 法毘鉢舍那ㅣᄀ 是
攝홈 內心 奢摩他아기 遠離 愛樂ᄋᆞᆯ 證得ᄒᆞ제 또 法毘鉢舍那인 이

[如]ᄉᆞ 觀察ᄋᆞᄒᆞᄉᆞ 熾燃明淨ㄴᄉᆞ十 有ㅌᄀ 所ㅌ 愛樂ᄒᆞ 證得ᄋᆞᄒᆞᄋᆞᄂᆞᄉᆞㅌㅣ
다히 觀察ᄒᆞ아금 熾燃明淨호리기 이슨 밧 愛樂ᄋᆞᆯ 證得ᄒᆞ제 ᄒᆞ겸ㅅ다

當ㅅ 知ᄋᆞㅣ 此ᄒᆞ 齊ᄒᆞ 已ᄒᆞ 能ᄀ 根本靜慮ᄒᆞ十 證入ᄋᆞᄉᆞᆫᄀㄱ丁ㄴᄌᆞᄒᆞㅣᄀㄱ丁
반ᄃᆞ기 알오다 이롤 좇아 이믜사 能며 根本靜慮아기證入ᄒᆞ건더 호리인더

是 [如]ᄒᆞᄂᆞᆫ 名下 [爲]三摩地圓滿ᄒᆞᄂᆞᆺᄒᆡ 又 此 三摩地圓滿ᄂᆡ
이 다ᄒᆞᆫᄋᆞᆯ 일하 三摩地圓滿여 호리다 ᄯᅩ 이 三摩地圓滿ㅅ

廣聖敎ᄂᆡ 義ᄋᆞᆫ 當ㅅ 知ᄒᆞᆫ 唯ㅅ 是 [如]ᄒᆞᄂᆞᆫ 十相ᄋᆞ 有ᄂᆞᆫᄃᆞ 此ᄂᆡ
廣聖敎ㅅ 義아긔 반ᄃᆞ기 알오다 오직 이 다ᄒᆞᆫ 十相사 有ᄒᆞ여 이ᄅᆞᆯ

除ㅁ斤 更ᄋᆞ 若過ᄂᆞᆼᄀᆞ 若增ᄂᆞᆼᄀᆞᄂᆞᆫ 无ᄂᆞᆫᄀᆡᄀᆞᆫ丁
덜고ᄂᆞᆫ 가시아 若過ᄒᆞ제 若增ᄒᆞ제 ᄒᆞᆫ 无ᄒᆞᆫ인뎌

<16,09-,16>
復次 已ᄋᆞ 根本 三摩地ᄂᆡ 證得ᄂᆞᆼᄋᆞᆫᄀᆞᆫㅅᄆᆞ 故ㅣ 名下 三摩地圓滿ᄂᆞᆺ
復次 이믜사 根本 三摩地ᄅᆞᆯ 證得ᄒᆞ얀 ᄃᆞ로 故호 일하 三摩地圓滿여

ㅣᄒᆞㅅ [雖]ᅀᅡ 其 心ᄀᆡ 猶ᄀᆡ 三摩地ᄆᆞ 生ᄂᆞᆫᄀᆞ 愛味ㅅ 慢ㅅ 見ㅅ 疑ㅅ
호리과두 그 ᄆᆞᅀᆞᆷ이 猶이 三摩地로 生ᄒᆞᆫ 愛味와 慢과 見과 疑와

无明ㅅ 等ᄂᆞᆫᄀᆞ 諸 隨煩惱ᄒᆞ[之] 染汚ㅣᄑᆞ 所ᄂᆡ 爲ㅅᄒᆞᄂᆞᆺᄑᆞㅅᄆᆞ 名下
无明과 다ᄒᆞᆫ 모ᄃᆞᆫ 隨煩惱ᄋᆡ 染汚ᄒᆞᆷ 바ᄅᆞᆯ 爲기겷 ᄃᆞ로 일하

圓滿ᄂᆞᆫᄋᆞᄉᆞ 淸淨 鮮白ᄂᆞᆺᄀᆞᆫ丁ㅣᄉᆞᆺ 未矣ㅁ 是 [如]ᄒᆞᄂᆞᆫᄀᆞ 諸 隨煩惱ᄂᆡ
圓滿ᄒᆞ아금 淸淨 鮮白ᄒᆞ건뎌 호리 안디라 이 다ᄒᆞᆫ 모ᄃᆞᆫ 隨煩惱ᄅᆞᆯ

現行 不ᄉᆞᆼᄂᆞ[令]ᄀᆡ[爲]ㅅᄂᆞᆼᄑᆞㅅᄆᆞ 故ᄀᆞ 心ᄂᆡ 練ᄂᆞ [爲]ㅅᄂᆞᆼᄑᆞㅅᄆᆞ 故ᄀᆞ
現行 안ᄃᆞᆯᄒᆞ이과 홇ᄃᆞ로 故며 ᄆᆞᅀᆞᆷᄋᆞᆯ 練ᄒᆞ과 홇 ᄃᆞ로 故며

心ᄂᆡ 調ᄂᆞ[爲]ㅅᄂᆞᆼᄑᆞㅅᄆᆞ 故ㅣ 彼ᄀᆞ 是 思ㅣᄑᆞㅅᄂᆡ 作ᄂᆞᆫᄀᆞᄑᆞ 我ᄀᆞ 當ㅅ
ᄆᆞᅀᆞᆷᄋᆞᆯ 調ᄒᆞ과 홇 ᄃᆞ로 故호 뎌는 이 思홇 ᄃᆞᆯ 作ᄒᆞ겷 나는 반ᄃᆞ기

心自在性ᄂᆞᆺ 定自在性ᄂᆞᆺᄂᆞᆺᄑᆞᄂᆡ 證ㅣᄀᆞᆼ[應]ᄒᆞᄂᆞᆫᄀᆞᄀᆡᄋᆞᆫᄒᆡᄂᆞᆼᄋᆞᆫ
心自在性여 定自在性여 홇ᄋᆞᆯ 證홈ㅅ ᄒᆞ이앗다 ᄒᆞ아

[於]四處所ᄋᆞ十 二十二相ᄂᆞ [以]ᄒᆞ 善ᄒᆞ 觀察ㅅᄇᆞ[應]ᄒᆞᆫ
四處所아ᄀᆡ 二十二相ᄋᆞᆯ ᄡᅳ아 善며 觀察홈ㅅ다

<16,16-,22>
謂ㄱ 自ᅀᅳ 誓ᄒᆞ 下劣ᄉᆞᆫㄱ 形相ㅣ 威儀ㅣ 衆具ㅣᄉᆞᆫ尸ᄂᆞ 受ᄒᆞ 又 自ᅀᅳ
닐온 저로 誓금 下劣ᄒᆞᆫ 形相여 威儀여 衆具여 홇ᄋᆞᆯ 받ᄋᆞ며 ᄯᅩ 저로

誓ᄒᆞ 禁制尸羅ᄂᆞ 受ᄒᆞ 又 自ᅀᅳ 誓ᄒᆞ 精勤 無閒ᄒᆞ 善法ᄂᆞ 修習ᄉᆞᆫ尸ㅅᄂᆞ
誓금 禁制尸羅ᄅᆞᆯ 받ᄋᆞ며 ᄯᅩ 저로 誓금 精勤 無閒히 善法을 修習홇 ᄃᆞᆯ

受ᄒᆞ 若 有ㅅㅣ 一切 苦惱ᄂᆞ 斷ᄉᆞᆫ [爲]ㅅ 此 三處ᄂᆞ 受ᄉᆞᆫㅎᆞᆺㅣ 正ㄷ
받ᄋᆞ며 若 잇겨다 一切 苦惱ᄅᆞᆯ 斷ᄒᆞ과 이 三處를 受ᄒᆞ겨리여 맛

衆苦ᄒᆞ 隨逐ᄉᆞᆫ尸ㅅᄂᆞ 觀察ㅅᄇᆞ [應]ᄒᆞᆫ 鬚髮ᄂᆞ 剃除ᄉᆞᆫㄱ ㅅᄂᆞ [由]ᄒᆞㄱ ㅅᄇᆞ
衆苦ᄋᆡ 隨逐홇 ᄃᆞᆯ 觀察홈ㅅ다 鬚髮ᄋᆞᆯ 剃除ᄒᆞᆫ ᄃᆞᆯ ᄠᅳᆫ ᄃᆞ로

故ᄒᆞ 俗 形好ᄂᆞ 捨ᄉᆞᆫㄱ ㅅᄇᆞ 故ᄒᆞ 壞色衣ᄂᆞ 著ᄉᆞᆫㅿㄱ ㅅᄇᆞ 故ㅅ 自ᅀᅳ 形色ㅣ
故며 俗 形好ᄅᆞᆯ 捨ᄒᆞᆫ ᄃᆞ로 故며 壞色衣를 著ᄒᆞ건 ᄃᆞ로 故호 저로 形色이

人ᄒᆞ十 異ㅿᄉᆞᆫㄱ ㅅᄂᆞ 觀察ㅅᄇᆞ [應]ᄒᆞᆫᄉᆞᆫㄱ ㅣㅣᄆᆞ 是 [如]ᄒᆞᆺᄉᆞᆫㄱ ᄂᆞ 名下
人이ᄀᆡ 異거 ᄒᆞᆫ ᄃᆞᆯ 觀察홈ㅅ ᄒᆞᆫ이라 이 다ᄒᆞᆫ올 일하

[爲] 誓ᄒᆞ 下劣ᄉᆞᆫㄱ 形相ᄂᆞ 受尸ㅅᄂᆞ 觀察ᄉᆞᆫ尸丁ㅅᄒᆞᆺ
誓금 下劣ᄒᆞᆫ 形相ᄋᆞᆯ 受홇 ᄃᆞᆯ 觀察홇뎌 호리며

<16,22-17,05>
[於]行住 坐臥 語默 等ᄉᆞᆫㄱ 中ᄒᆞ十 欲ᄉᆞᆫ尸ㅅᄂᆞ 隨ㅅ 行尸 不ᄉᆞᆫㄱ ᄒᆞ
行住 坐臥 語默 다ᄒᆞᆫ 中아ᄀᆡ 欲홇 ᄃᆞᆯ 좇오 넒 안ᄃᆞᆷᄒᆞ아

憍慢ᄂᆞ 制伏ᄉᆞᆫㄱ ᄒᆞ 他ᄒᆞ 家ᄒᆞ十 往趣ᄉᆞᆫ尸ㅁ 審正 觀察ᄉᆞᆫㄱ ᄒᆞ 遊行乞食ᄉᆞᆫ尸
憍慢ᄋᆞᆯ 制伏ᄒᆞ아금 他이 집아ᄀᆡ 往趣홇뎌 審正 觀察ᄒᆞ아금 遊行乞食홇

ㅅ시 是 [如]ᄒᆞ시ᄀᆞ시 名下 [爲] 誓ᄒᆞ 下劣ᄒᆞ시ᄀᆞ威儀ᄉᆡ 受ᄂᆞᄆᆞ시ᄉᆡ
ᄃᆞᆯ 이 다ᄒᆞᆫᄋᆞᆯ 일하 誓금 下劣ᄒᆞᆫ 威儀를 受ᄒᆞᆷ ᄃᆞᆯ

觀察ᄒᆞᄆᆞ丁ᄂᆞᄒᆞᆫᄀᆞ 又 正ᄒᆞ 觀察ᄒᆞᄋᆞ 他ᄉᆡ 從ᄒᆞ 畜積ᄂᆞᄆᆞ 所 无ᄒᆞᄀᆞ
觀察ᄒᆞᆷ뎌 호리며 ᄯᅩ 맛 觀察ᄒᆞ아 他ᄅᆞᆯ 좃 畜積ᄒᆞᆷ 바 无ᄒᆞᆫ

諸 供身ᄒᆞ 具ᄉᆡ 獲得ᄒᆞᄆᆞ시ᄉᆡ 是 [如]ᄒᆞᄒᆞᄀᆞ시ᄉᆡ 名下 [爲]誓ᄀᆞ 下劣ᄒᆞᄀᆞ
모ᄃᆞᆫ 供身ㅅ 具를 獲得ᄒᆞᆷ ᄃᆞᆯ 이 다ᄒᆞᆫᄋᆞᆯ 일하 誓금 下劣ᄒᆞᆫ

衆具ᄉᆡ 受ᄂᆞᄆᆞ시ᄉᆡ 觀察ᄒᆞᄆᆞ丁ᄂᆞᄒᆞᆫᄀᆡ 此 五相ᄉᆡ 由ᄒᆞᄋᆞᄆᆞ시ᄉᆡ 當ㅎ 知ᄀᆞᄀᆡ
衆具를 受ᄒᆞᆷ ᄃᆞᆯ 觀察ᄒᆞᆷ뎌 호리다 이 五相ᄋᆞᆯ 븥어 ᄒᆞᆷ ᄃᆞᆯ 반ᄃᆞ기 알오다

是ᄉᆡ 名下 初處ᄒᆞᄉᆞᆸ 觀察ᄒᆞᄆᆞ丁ᄂᆞᄒᆞᄀᆡᄀᆞ丁
이ᄅᆞᆯ 일하 初處아기 觀察ᄒᆞᆷ뎌 호리인뎌

<17,05-,10>
又 善說法ㅅ 毘柰耶ㅅᄂᆞᄉᆞᆫᄒᆞ 中ᄒᆞᄉᆞᆸᄋᆞᄀᆞ 諸 出家者ᄅᆞ 受ᄒᆞᄀᆞ 所ᄒᆞ
ᄯᅩ 善說法여 毘柰耶여 호릿 中아기 ᄒᆞᆫ 모ᄃᆞᆫ 出家者ᄋᆡ 受ᄒᆞᆫ 밧

尸羅ᄀᆞ 略ᄒᆞ 二事ᄉᆡ 捨ᄂᆞᄀᆞᄉᆞᄆᆞ [之] 顯現ᄒᆞᄀᆞ 所ᄀᆡᄀᆡ 一ᄉᆞᄀᆞ[者] 父
尸羅ᄂᆞᆫ 略히 二事ᄅᆞᆯ 捨ᄒᆞᆫ ᄃᆞ로 顯現ᄒᆞᆫ 바이다 ᄒᆞᄃᆞ나긘 父

母ㅅ 妻子ㅅ 奴婢ㅅ 僕使ㅅ 朋友ㅅ 眷屬ㅅ 財穀ㅅ 珍寶ㅅ 等ᄒᆞᄀᆞᄉᆡ 棄
母여 妻子여 奴婢여 僕使여 朋友여 眷屬여 財穀여 珍寶여 다ᄒᆞᆫᄋᆞᆯ 棄

捨ᄂᆞᄀᆞᄉᆞᄆᆞ 顯ᄒᆞᄀᆞ 所ᄀᆡᄒᆞ 二者 歌舞倡伎ㅅ 笑戲歡娛ㅅ 遊從掉逸ㅅ 親
捨ᄒᆞᆫ ᄃᆞ로 顯ᄒᆞᆫ 바이며 두블의긘 歌舞倡伎여 笑戲歡娛여 遊從掉逸여 親

愛聚會ㅅᄂᆞᄉᆞᆫᄒᆞ 種種ᄒᆞ 世事ᄉᆡ 棄捨ᄂᆞᄀᆞᄉᆞᄆᆞ[之] 顯現ᄒᆞᄀᆞ 所ᄀᆡᄀᆡ
愛聚會여 호릿 種種ㅅ 世事ᄅᆞᆯ 棄捨ᄒᆞᆫ ᄃᆞ로 顯現ᄒᆞᆫ 바이다

<17,10-,17>
又 彼ㄱ 尸羅律儀ㅋ十 安住ㅅㅋ 犯戒ㅅㄱㅅㄴ 由ㅋ 私ㅂ 自ㅠ 懇責ㅅ尸
또 뎌는 尸羅律儀아기 安住ᄒᆞ아 犯戒ᄒᆞᆫ 둘 븥어 아롬 저로 懇責홇

不ᄒᆞㅅㄱ 亦 彼 同梵行者ㄹ 法ㄴ 以ㅑ 呵擯ㅅ尸ㅅㄴ 不ᄒᆞㅅㄱㅅㄱ 尸
안돌 ᄒᆞ제 또 뎌 同梵行者ㅣ 法을 ᄡᅳ아 呵擯홇 둘 안돌ᄒᆞ제 ᄒᆞ며 尸

羅ㄴ 犯ㅅㄱㅣ 有ㄴㅂ乃而ㄱ 輕擧 不ᄒᆞㅅㄱ 若 [於]尸羅ㅋ十 缺犯ㅅ尸 所
羅ᄅᆞᆯ 犯ᄒᆞᆫ이 잇거나 而은 輕擧 안돌ᄒᆞ제 若 尸羅아기 缺犯홇 바

[有]ㅂㅋㄱㅣ十ㄱ 此 因緣ㄴ 由ㅋ 便ㅁ 自ㅠ 懇責ㅅㅋㅅㄱ 若 同梵行ㅣ
두언다긴 이 因緣을 븥어 便오 저로 懇責ᄒᆞ제 ᄒᆞ며 若 同梵行이

法ㄴ 以ㅑ 呵擯ㅅㅂㄱㅣ十ㄱ 卽ㅁ 便ㅁ(ㄹ?) 法ㄴ 如ㅅ 而ㅠ 自ㅠ 悔
法을 ᄡᅳ아 呵擯ᄒᆞ건다긴 卽오 便오(의?) 法을 ᄀᆞᆮ기 而로 저로 悔

除ㅅㄱ [於]能ㄱ 擧罪ㅅㅎㄷ 同梵行者ㄹ十 心ㅋ十 恚恨ㅅ尸 无ㅎ 損ㅅ尸
除ᄒᆞ제 能며 擧罪ᄒᆞ릿 同梵行者ㅣ기 ᄆᆞᅀᆞᆷ아기 恚恨홇 없제 損홇

無ㅎ 惱ㅅ尸 无ㅎㅅㅋㅗ 而ㅠ 自ㅠ 修治ㅅㄱㅅㅎㄷ 此 五相ㄴ 由ㅋ
없제 惱홇 없제 ᄒᆞ아금 而로 저로 修治하며 호릿 이 五相ᄋᆞᆯ 븥어

ㅅ尸ㅅㄴ 是ㄴ 名ㅏ [於]第二處ㅋ十 觀察ㅅ尸丁ㅅㅊㅣ
홇 둘 이ᄅᆞᆯ 일하 第二處아기 觀察홇뎌 호리다

<17,17-18,01>
是 [如]ㅈ 尸羅ㄴ 善 圓滿 已ㅑㅅㅋㅊ 五相ㄴ 以ㅑ 精勤方便ㅠ 諸
이 다히 尸羅ᄅᆞᆯ 善 圓滿 이믜사 ᄒᆞ아ᄂᆞᆯ 五相ᄋᆞᆯ ᄡᅳ아 精勤方便ᄋᆞ로 모ᄃᆞᆫ

善品ㄴ 修ㅅㅏㅇ [應]ㅊㅣ 謂ㄱ 時時間ㅋ十 諮受ㅅㅋ 讀ㅅㅋ 誦ㅅㅋ 論量
善品을 修ᄒᆞ겸ㅅ다 닐온 時時間아기 諮受ᄒᆞ제 讀ᄒᆞ제 誦ᄒᆞ제 論量

決擇ᄒᆞ야ᄉᆞᄆᆞᄒᆞ 勤ᄒᆞ 善品ᄒᆞ 修ᄒᆞᄒᆞ샤ᄃᆡ 是[如]ᄒᆞᄉᆞᄆᆞᄒᆞ시ᄆᆞ 乃ᄋᆞ 他ᄅᆞ
決擇ᄒᆞ제 ᄒᆞ아금 브즈런 善品을 修호리견여 이 다ᄒᆞ아기사 乃사 他이

信施ᄒᆞ 受ᄒᆞᄂᆞᆫ[應]ᄒᆞᄉᆞᆫ가 又 遠離ᄒᆞ 樂ᄒᆞᄆᆞᄒᆞ 正方便ᄒᆞ 以ᄋᆞ 諸 作意ᄒᆞ
信施를 受ᄒᆞᆷ人 ᄒᆞ며 또 遠離를 즐기어금 正方便을 뻐아 모든 作意를

修ᄒᆞᄉᆞᆫ가 又 復 晝夜ᄆᆞ 十 [於]退分人 勝分人ᄒᆞ 二法ᄆᆞ 十 知斷修習ᄒᆞᄉᆞᆫ가 又
修ᄒᆞ며 또 또 晝夜아기 退分과 勝分괏 二法아기 知斷修習ᄒᆞ며 또

[於]生死ᄆᆞ 十 大過失ᄒᆞ 見ᄉᆞᆫ가 又 [於]涅槃ᄆᆞ 十 勝功德ᄒᆞ 見ᄒᆞᄉᆞᆫᄉᆞᄒᆞᄃᆡ 此
生死아기 大過失ᄋᆞᆯ 보며 또 涅槃아기 勝功德을 見ᄒᆞ며 호릿 이

五相ᄒᆞ 由ᄆᆞᄒᆞᄋᆞᄇᆞᄉᆞᄒᆞ 是ᄒᆞ 名ᄒᆞ 第三處ᄆᆞ 十 觀察ᄒᆞᄇᆞᄃᆞᄉᆞᄒᆞᄃᆡ
五相ᄋᆞᆯ 블어 홇 ᄃᆞᆯ 이ᄅᆞᆯ 일하 第三處아기 觀察홇며 호리다

<18,01-,09>
是[如]ᄒᆞ 精勤ᄒᆞ 善品ᄒᆞ 修ᄒᆞᄉᆞᄒᆞ 者ᄀᆞ 略ᄒᆞ 四苦ᄅᆞ[之] 隨逐ᄒᆞᄇᆞ 所ᄒᆞ
이 다히 精勤히 善品을 修ᄒᆞ릿 者ᄂᆞᆫ 略히 四苦이 隨逐홇 바ᄅᆞᆯ

爲ᄒᆞᄂᆞᄒᆞᄒᆞᄃᆡ 謂ᄀᆞ [於]四 沙門果ᄆᆞ 十 能ᄒᆞ 隨ᄂᆞ 證ᄂᆞᄇᆞ 所ᄒᆞ [有]ᄉᆞᄇᆞ
爲기겸人다 닐온 四 沙門果아기 能며 좇오 證홇 바ᄅᆞᆯ 둚

未ᄒᆞᄂᆞᄀᆞᄉᆞᄆᆞ 故ᄂᆞ 猶ᄇᆡ 惡趣苦ᄅᆞ 隨逐ᄂᆞᄇᆞ 所ᄒᆞ 爲ᄒᆞᄒᆞ 體ᄇᆡ 是ᄀᆞ 生老
안득ᄒᆞᆫ ᄃᆞ로 故호 猶이 惡趣苦이 隨逐홇 바ᄅᆞᆯ 爲기며 體이 이ᄂᆞᆫ 生老

病死ᄒᆞ 法ᄇᆡᄀᆞᄉᆞᄆᆞ 故ᄂᆞ 內壞苦ᄅᆞ[之] 隨逐ᄂᆞᄇᆞ 所ᄒᆞ 爲ᄒᆞᄒᆞ 一切 所愛
病死人 法인 ᄃᆞ로 故호 內壞苦이 隨逐홇 바ᄅᆞᆯ 爲기며 一切 所愛

離別ᄒᆞ 法ᄇᆡᄀᆞᄉᆞᄆᆞ 故ᄂᆞ 愛壞苦ᄅᆞ[之] 隨逐ᄂᆞᄇᆞ 所ᄒᆞ 爲ᄒᆞᄒᆞ 自業ᄅᆞ 作
離別人 法인ᄃᆞ로 故호 愛壞苦이 隨逐홇 바ᄅᆞᆯ 爲기며 自業의 作

ㅅㄱ 所ㅣㄱㅅㅠ 故ㅅ 一切 苦因ㅋ[之] 隨逐ㅅㄲ 所ㅣㅣ 彼ㄱ 是 [如]ㅈ
혼 바인 ᄃᆞ로 故호 一切 苦因의 隨逐홇 바이다 더ᄂᆞᆫ 이 다

ㅅㄱ 四苦ㅋ 隨逐ㅅㄲ入ㄴ 爲ㅏㅈ斤 七相ㄴ 以ㅔ 審正 觀察ㅅㅎ [應]ㅌㅅ
ᄒᆞᆫ 四苦의 隨逐홇 ᄃᆞᆯ 爲기아ᄂᆞᆯ 七相ᄋᆞᆯ ᄡᅳ아 審正 觀察홈ㅅ

ㄱㅣㅠ 此 七相ㄴ 由ㅈㅅㄲ入ㄴ 是ㄴ 名下 第四處ㅈ十 觀察ㅅㄲ丁ㅅㅓㅣ
ᄒᆞᆫ이라 이 七相ᄋᆞᆯ ᄇᆞᆯ어 홇 ᄃᆞᆯ 이ᄅᆞᆯ 일하 第四處아기 觀察홇뎌 호리다

<18,09-,13>
彼ㄱ [於] 是 [如]ㅈㅅㄱ 四處ㅈ十 二十二相ㄴ [以]ㅔ 正觀察ㅅㅎㅌ 時ㅗ十
더ᄂᆞᆫ 이 다ᄒᆞᆫ 四處아기 二十二相ᄋᆞᆯ ᄡᅳ아 正觀察ᄒᆞ릿 時여긔

便ㅎ 是 [如]ㅈㅅㄱ 如理作意ㄴ 生ㅣㅏㅎㅌㅣ 謂ㄱ 我ㄱ 是 [如]ㅈㅅㄱ
便오 이 다ᄒᆞᆫ 如理作意를 나이겸ㅅ다 닐온 나ᄂᆞᆫ 이 다ᄒᆞᆫ

事ㄴ 求ㅅ [爲]ㅅㅅㄲ入ㅠ 故ㅅ 誓ㅂ 下劣ㅅㄱ 形相ㅗ 威儀ㅗ 及ㅌ 資身ㅌ
事ᄅᆞᆯ 求ᄒᆞ과 홇 ᄃᆞ로 故호 誓금 下劣ᄒᆞᆫ 形相여 威儀여 밋 資身ㅅ

具ㅗㅅㄲ入ㄴ 受ㅅㅋ 誓ㅂ 禁戒ㄴ 受ㅅㅋ 誓ㅂ 精勤ㅎ 常ㅣ 善法ㄴ 修ㅅㄲ入ㄴ
具여 홇ᄋᆞᆯ 受ᄒᆞ졔 誓금 禁戒ᄅᆞᆯ 受ᄒᆞ졔 誓금 精勤히 常이 善法을 修홇 ᄃᆞᆯ

受ㅋㅅㅈㅅㄱㅗ
받졔 ᄒᆞ아 혼여

<18,13-19>
而ㄱ 我ㄱ 今艮[者] [於]四種苦ㅈ十 何ㅎ 等ㅅㄱㄴ [爲]脫ㅅㅈㅅㄱㅣㅈㅌㅁ
而은 我ᄂᆞᆫ 今ㄱ 四種苦아기 何오 다ᄒᆞᆫᄋᆞᆯ 脫ᄒᆞ아 혼이앗고

若 我ㄱ 是 [如]ㅈ 自策ㅅㅋ 自勵ㅅㅋㅅㅈ 誓ㅂ 三處ㄴ 受ㅅㅈㅅㄱㅗ 猶ㅣ
若 나ᄂᆞᆫ 이 다히 自策ᄒᆞ졔 自勵ᄒᆞ졔 ᄒᆞ아 誓금 三處를 受ᄒᆞ아 혼여 猶이

四苦ㄹ 常ㅣ 隨逐ㄴ尸 所ㄴ 爲ㅏㄱ得ㅎ 解脫 未ㅏㄴㅎ(ㄱ?)ㄴㄱ ㅣㅁ 我ㄱ
四苦ᄋᆡ 常이 隨逐홇 바ᄅᆞᆯ 爲기아 시러금 解脫 안ᄃᆞᆨᄒᆞ며(아?) 혼이라 나ᄂᆞᆫ

今艮 苦ㄹ 隨逐ㄴ尸入ㄴ 爲ㅏㄱ [於]勝定ㄱ十 自在ㄴㄱ入ㄴ 獲得
今ㄱ 苦이 隨逐홇 ᄃᆞᆯ 爲기아 勝定아기 自在ᄒᆞᆫ ᄃᆞᆯ 獲得

未ㅏㄴㄱㅣ十 中路ㄱ十 止息ㄴᄒᆞ 或 復 退屈ㄴᄒᆞㄴㅎ [應]ㅌㄴㄱ
안ᄃᆞᆨᄒᆞᆫ다기 中路아기 止息ᄒᆞ졔 或 ᄯᅩ 退屈ᄒᆞ졔 홈ᄉᆞᄒᆞᆫ

不矢ㄱ ㅣㄱㅌㅣㄴㄱ 是 [如]ㅈ 精勤ㅎ 如理作意ㄴ尸入ㄴ 乃ㅑ 得尸 名下
안딘이앗다 ᄒᆞ아 이 다히 精勤히 如理作意홇 ᄃᆞᆯ 乃사 얻읋 일하

[爲]出家之想ㅓㄴㅎ 及ㅌ 沙門想ㅓㄴㅓㅈㅣ
出家之想여 ᄒᆞ며 밋 沙門想여 호리다

<18,19-,23>
彼ㄱ [於]圓滿ㄴㄱㄹ十 多 方便ㄴ 修ㄴㄱ入ㄴ 以ㅎ 依止 [爲]ㅑㄱ 世間道ㄴ
뎌는 圓滿ᄒᆞᆫ이기 하 方便ᄋᆞᆯ 修ᄒᆞᆫ ᄃᆞᆯ ᄲᅳ아금 依止 삼아 世間道ᄅᆞᆯ

由ㄱ 三摩地圓滿ㄴ 證得ㄴㄱ入ㅠ 故ㄴ [於]煩惱斷ㄱ十 猶ㅣ 證得
븥어 三摩地圓滿ᄋᆞᆯ 證得ᄒᆞᆫ ᄃᆞ로 故호 煩惱斷아기 猶이 證得

未ㅣㄴㅜㄱ入ㅠ 復 樂斷ㄴ 依ㄱ 常ㅣ 勤ㅌ 修習ㄴㅎ 又 彼ㄱ 已ㅑ 善
아니ᄒᆞ견 ᄃᆞ로 ᄯᅩ 樂斷ᄋᆞᆯ 븥어 常이 브즈런 修習ᄒᆞ며 ᄯᅩ 뎌는 이믜사 善

世間道ㄴ 得ㄱ 數數ㅣ 三摩地自在ㄴ 得ㄴ [爲]人ㄴ尸入ㅠ 故ㄴ 樂修ㄴ
世間道ᄅᆞᆯ 얻어 數數이 三摩地自在ᄅᆞᆯ 得ᄒᆞ과 홇 ᄃᆞ로 故호 樂修를

依止ㄴㄱㅎ 无間ㅎ 而ㅠ 轉ㄴㅎ
依止ᄒᆞ아금 无間히 而로 轉ᄒᆞ며

<18,23-19,05>
又 [於]正信ㅅㅂㄴ 長者ㅣ 居士ㅣ 婆羅門ㅣ 等ㅅㄱㄹㅓ 種種ㄴ
또 正信ᄒᆞᄂᆞᆫ 長者여 居士여 婆羅門여 다ᄒᆞᆫ이기 種種ㅅ

利養恭敬ㅣ 獲得ㅅㅁㅣ 而ㄱ 此 利養恭敬ㅣ 依ㅣ 而ᄆᆞᆷ 貪着ㅣ 生ㅣㅁ
利養恭敬을 獲得ᄒᆞᆷ여 而은 이 利養恭敬을 븥어 而로 貪着ᄋᆞᆯ 나읾

不ᄉᆞㅇㅏ 亦 [於]他ㄹ 利養恭敬ㅣ 及ㄴ 餘 不信ㅅㅂㄴ 婆羅門 等ㅅㄱㄹ
안ᄃᆞᆯᄒᆞ며 또 他ㄹ 利養恭敬여 밋 餘 不信ᄒᆞᄂᆞᆫ 婆羅門 다ᄒᆞᆫ이

對面ㅅᄒᆞ 背面ㅅᄒᆞㅅㅅㅣ 諸 不可意ㄴ 身業語業ㅣ 現行ㅅᄉᆞㄴ 事ㅣㅅᄉᆞㄴ
對面ᄒᆞ졔 背面ᄒᆞ졔 ᄒᆞ아 모ᄃᆞᆫ 不可意ㅅ 身業語業을 現行ᄒᆞ릿 事여 호릿

中ㅣㅅ 心ㅣㅅ 憤恚ㅣ 生ㅣㅁ 不ᄉᆞㅇㅏ
中아기 ᄆᆞᅀᆞᆷ아기 憤恚ᄅᆞᆯ 나읾 안ᄃᆞᆯᄒᆞ졔

<19,05-,10>
又 復 [於]彼ㄹㅓ 損害心 无ㅎㅅㅇㅏ 又 愛ㅅ 慢ㅅ 見ㅅ 无明ㅅ 疑惑ㅅㄴ
또 또 뎌의긔 損害心 없졔 ᄒᆞ며 또 愛와 慢과 見과 无明과 疑惑괏

種種定ㄴ 中ㅣㅅㅅㄱ 諸 隨煩惱ㅣ 復ㅅ 現行ㅅㅁ 不ᄉᆞㅅㅣㅈ 善ㅇ 念住ㅣ
種種定ㅅ 中아기 ᄒᆞᆫ 모ᄃᆞᆫ 隨煩惱ᄅᆞᆯ 復기 現行ᄒᆞᆷ 안ᄃᆞᆯᄒᆞ아금 善며 念住를

守ㅅㅇㅏ 又 勝奢摩他ㅣ 證得ㅅㄱㅅㅁ 卽ㅎ 是 [如]ᄉᆞㅅㄱ 奢摩他ㅣ
守ᄒᆞ며 또 勝奢摩他ᄅᆞᆯ 證得ᄒᆞᆫ ᄃᆞ로 卽오 이 다ᄒᆞᆫ 奢摩他ᄅᆞᆯ

[以]ㅣㄱㅅㅁ 故ㅅ 已ㄹㅣ 謂ㅣㅈ 一切 所作ㅣ 已辨ㅅㅣㅅㄱㄱㅣㅣㅅㄴㅣㅅㅁ
쓴 ᄃᆞ로 故호 저의를 니르어금 一切 所作ᄋᆞᆯ 已辨ᄒᆞ아 혼이앗다 ᄒᆞᆷ

非ᄉᆞㅇㅏ 亦 他ㅣ 向ㅣ 已ㄹ 證ㅅㄱ 所ㅣ 說ㅁ 不ᄉᆞㅇㅏㅅㅇㅏㅅㄴㅓㅎㅠ
안ᄃᆞᆯᄒᆞ졔 또 他ᄅᆞᆯ 아아 저의 證혼 바ᄅᆞᆯ 니ᄅᆞᆷ 안ᄃᆞᆯᄒᆞ졔 ᄒᆞ며 ᄒᆞ겨리라

<19,10-,16>
彼ㄱ 是 [如]ᄒᆞ 樂斷ᄂᆞᆫ 樂修ᄂᆞᆫ 心ᄋᆞ十 貪ㅗ 恚ㅗノ令 无ᄂᆞᆫ
뎌는 이 다히 樂斷ᄒᆞ제 樂修ᄒᆞ제 ᄆᆞᅀᆞᆷ아기 貪여 恚여 호리 없제

正念現前ᄂᆞᆫ 增上慢ᄒᆞ 離ᄒᆞᄂᆞᆫㄱ入ᄒᆞ 由ᄋᆞ [於]諸 衣服ᄒᆞ 宜ᄂᆞᆫㄱ入ᄒᆞ
正念現前ᄒᆞ제 增上慢ᄋᆞᆯ 여희제 ᄒᆞᆫ ᄃᆞᆯ 블어 모ᄃᆞᆫ 衣服ᄋᆞᆯ 宜ᄒᆞᆫ ᄃᆞᆯ

隨ノ 獲得ノㄱㄹ十 便ㅇ 喜足ᄒᆞ 生ㅣ가 [於]衣服ᄋᆞ十ノ尸入ᄒᆞᄂᆞᆫㄱ
좇오 獲得ᄒᆞᆫ이기 便오 喜足ᄋᆞᆯ 나이며 衣服아기 흠 ᄃᆞᆯ ᄒᆞᆫ

[如]ᄒᆞ [於]餘 飮食ㅗ 臥具ㅗ 等ᄂᆞᆫㄱㄹ十 喜足ノ尸 當ㅅ 知ㅇㅣ
다히 餘 飮食여 臥具여 다ᄒᆞᆫ이기 喜足ᄒᆞᆷ 반ᄃᆞ기 알오다

亦亦ᄂᆞᆫㄱㅣㄱㄱ丁 又 正ㄷ 了知ᄂᆞᆫᄋᆞᄒᆞ 而ㅠ [爲]受用ノ尸ㅁ 謂ㄱ 是 [如]ᄒᆞ
亦亦ᄒᆞᆫ인뎌 ᄯᅩ 맛 了知ᄒᆞ아금 而로 受用ᄒᆞᆷ디 닐온 이 다히

等ᄂᆞᆫㄱ 諸 資生具ㄱ 但ㅅ 身ㅣ 治ᄂᆞᆫᄋᆞᄒᆞ 敗壞尸 不ᄉᆞᆼᄂᆞ [令]ㅣᄒᆞ 暫ㄷ
다ᄒᆞᆫ 모ᄃᆞᆫ 資生具는 但기 몸ᄋᆞᆯ 治ᄒᆞ아금 敗壞ᄒᆞᆷ 안ᄃᆞᆯᄒᆞ이제 사ᄇᆞᆺ

飢渴ᄒᆞ 止ᄋᆞᄒᆞ 梵行ᄒᆞ 攝受ᄂᆞᆫᄂᆞᆫ[爲]人ノ矛ㄱㅣᄋᆞㄷㅣᄂᆞᆫ가 廣ㅣ 說尸
飢渴ᄋᆞᆯ 그치아금 梵行ᄋᆞᆯ 攝受ᄒᆞ제 ᄒᆞ 과 호린이앗다 ᄒᆞ며 너비 니ᄅᆞᆷ

乃ᄋᆞ 至ㅣ [於]食ᄋᆞ十 知量ᄂᆞナㅎㄷㅣ
니를이사 食ᄋᆞ十 知量ᄒᆞ겸ㅅ다

<19,16-,22>
彼ㄱ 是 [如]ᄒᆞ 正ㄷ 修行ᄂᆞᆫㄱ入ᄒᆞ [由]ᄋᆞㄱ入ㅠ 故ノ [於]三摩地ᄋᆞ十
뎌는 이 다히 맛 修行ᄒᆞᆫᄃᆞᆯ 쁜 ᄃᆞ로 故호 三摩地아기

自在ᄂᆞᆫㄱ入ᄒᆞ 獲得ᄂᆞᆫ가 彼ᄒᆞ 依止ᄂᆞᆫㄱ入ㅠ 故ノ 其 心 淸ᄂᆞᆫ 白ᄂᆞᆫ
自在ᄒᆞᆫ ᄃᆞᆯ 獲得ᄒᆞ며 뎌를 依止ᄒᆞᆫ ᄃᆞ로 故호 그 ᄆᆞᅀᆞᆷ 淸ᄒᆞ제 白ᄒᆞ제

瑕穢 无有ᄒᆞ 隨煩惱ᄒᆞ 離ᄒᆞ 廣ㅣ 說ᄆᆞ 乃ᄋᆞ 至ㅣ 不動ᄒᆞ 獲得ᄒᆞᄉᆞᆫᄃᆞ
瑕穢 无有제 隨煩惱를 여희제 너비 니륾 니를이사 不動올 獲得ᄒᆞ제 ᄒᆞ아

能ᄀᆞ 一切 勝神通慧ᄒᆞ 引ᄂᆞᆫᄀᆞᄒᆞᆫᄃᆡ 是ᄒᆞ 名ᄒᆞ 三摩地自在ㅣᄂᆞᆫᄒᆞᆫᄃᆡ 此
能며 一切 勝神通慧를 引ᄒᆞ겸ᄉᆞ다 이를 일하 三摩地自在여 호리다 이

三摩地自在ᄂᆡ 廣義ᄋᆞ十 當ᄉᆞ 知ᄆᆞᆫᄃᆡ 唯ᄉᆞ 說ᄂᆞᆫ 所 [如]ᄒᆞᄉᆞᆫ 相ᄋᆞ
三摩地自在ᄉᆞ 廣義아기 반ᄃᆞ기 알오다 오직 說혼 바 다ᄒᆞᆫ 相사

有ᄉᆞᆫㅣㄴᆞ 此ᄒᆞ 除ㅁᄒᆞ斤 更ᄋᆞ 若過ᄉᆞᆫᄒᆞ 若增ᄉᆞᆫᄒᆞᄉᆞᆫ 無ᄉᆞᆫᄀᆞ ㄹᄀᆞ丁
有ᄒᆞᆫ여 이를 덜고는 가ᄉᆡ아 若過ᄒᆞ제 若增ᄒᆞ제 ᄒᆞᆫ 無ᄒᆞᆫ인뎌

<19,22-20,02>
又 先ᄒᆞ 說ᄂᆞᆫ 所ᄂᆡ 得三摩地ㅅ 若中ᄋᆞ十 說ᄂᆞᆫ 所ᄂᆡ 三摩地圓滿ㅅ
ᄯᅩ 몬지하 說혼 밧 得三摩地와 若中아기 說혼 밧 三摩地圓滿과

及ᄂᆡ 今ᄉᆞ 說ᄂᆞᆫ 所ᄂᆡ 三摩地自在ㅅᄂᆞ 摠ᄒᆞ 名ᄒᆞ 无上世間 一切種
밋 今기 說혼 밧 三摩地自在와를 摠히 일하 无上世間 一切種

淸淨ㅣㄴᆞᆫᄃᆡ 當ᄉᆞ 知ᄆᆞᆫᄃᆡ 此 淸淨ᄀᆞ 唯ᄉᆞ 正法ᄋᆞ十ᄋᆞ 在ᄂᆞᄆᆞ 諸
淸淨여 호리다 반ᄃᆞ기 알오다 이 淸淨은 오직 正法아기사 在ᄒᆞ고 모ᄃᆞᆫ

外道ㄹᆞ十ᄀᆞ ᄂᆞᄇᆞ 非ᄉᆞᆨㄹᄀᆞ丁
外道ᄋᆡ긘 ᄒᆞᄂᆞ 안디인뎌

<20,03-,08>
[云]何ᄂᆞᆫᄀᆞᄂᆞ 出世間 一切種 淸淨ㄹㅣㄴᆞᄉᆞᆨㅁᄒᆞ 當ᄉᆞ 知ᄆᆞᆫᄃᆡ 略ㅁᄀᆞ 五種
엇ᄒᆞᆯ올 出世間 一切種 淸淨이다 호리고 반ᄃᆞ기 알오다 略콘 五種

有ᄉᆞᆫᄀᆞㄹᄀᆞ丁 何等ᄉᆞᆫᄀᆞᄂᆞ [爲]五ㄹㅣㄴᆞᄉᆞᆨㅁᄒᆞ 一十ᄀᆞ 聖諦現觀ᄋᆞ十 入ᄉᆞᆫᄀᆞ
有ᄒᆞᆫ인뎌 何等ᄒᆞᆫ올 五이다 호리고 ᄒᆞᄃᆞ나긘 聖諦現觀아기 入ᄒᆞ며

二 聖諦現觀ᄒᆞ十 入尸 已ᄒᆞᄂᆞᄒᆞ斤 諸 障导ᄂᆞ 離ᄂᆞᄀᆞ 三
두블의권 聖諦現觀아기 들읋 이믜사 ᄒᆞ아ᄂᆞᆯ 모ᄃᆞᆫ 障导ᄅᆞᆯ 離ᄒᆞ며 세희권

聖諦現觀ᄒᆞ十 入尸 已ᄒᆞᄂᆞᄒᆞ斤 速疾通慧ᄂᆞ 證得ᄂᆞ [爲欲]人 諸 歡喜事ᄂᆞ
聖諦現觀아기 들읋 이믜사ᄒᆞ아ᄂᆞᆯ 速疾通慧ᄅᆞᆯ 證得ᄒᆞ과 모ᄃᆞᆫ 歡喜事ᄅᆞᆯ

作意 思惟ᄂᆞᄀᆞ 四 得ᄂᆞᄀᆞ 所ᄂᆞ 如ᄒᆞᄂᆞᄀᆞ 道ᄂᆞ 修習ᄂᆞᄀᆞ 五 極淸淨道ㅅ
作意 思惟하며 네희권 得ᄒᆞᆫ 바ᄅᆞᆯ 如기 ᄒᆞᆫ 道ᄅᆞᆯ 修習ᄒᆞ며 다ᄉᆞᆺ읫긘 極淸淨道여

及 果功德ㅅᄂᆞᄆᆞᄂᆞ 證得ᄂᆞᄀᆞᄂᆞᄆᆞ矣ㅣ
밋 果功德여 홇올 證得ᄒᆞ며 홇디다

<20,09-,14>
[云]何ᄂᆞᄀᆞᄂᆞ 聖諦現觀ᄒᆞ十 入ᄂᆞᄆᆞ矣ㅣᄂᆞᄉᆞ口 謂ᄀᆞ 有ナㅣ 如來尸 諸 弟
엇ᄒᆞᆫ올 聖諦現觀아기 入홇디다 호리고 닐온 잇겨다 如來ᄭᅩ 모ᄃᆞᆫ 弟

子衆ㅣ 已ᄒᆞ 善ᄀᆞ 世間淸淨ᄂᆞ 修習ᄂᆞナᄀᆞㅅ 長夜ヒ 中ᄒᆞ十 妙五欲ㅣ 其
子衆이 이믜사 善며 世間淸淨ᄋᆞᆯ 修習ᄒᆞ견여 長夜ㅅ 中아기 妙五欲이 그

心ᄒᆞ十 積集ᄂᆞᄀᆞ入ᄂᆞ 由ᄒᆞ 食ㄹ 持ᄂᆞᄀᆞ 所ᄆᆞ 故ノ 其 心ᄂᆞ 長養ᄂᆞᄒᆞᄒᆞ
ᄆᆞᅀᆞᆷ아기 積集ᄒᆞᆫ ᄃᆞᆯ 블어 食읫 持ᄒᆞᆫ 바로 故호 그 ᄆᆞᅀᆞᆷ올 長養ᄒᆞ아금

[於]彼 諸欲ᄒᆞ十 愛樂ᄂᆞ 生ㅣトᄀᆞㅣラヒㅣノ尸入ᄂᆞ 知ナᄀᆞ入ᄆᆞ 故ノ
뎌 諸欲아기 愛樂올 나이눈이잇다 홇 ᄃᆞᆯ 알견 ᄃᆞ로 故호

而ᄆᆞ [於]諸欲ᄒᆞ十 深ㅣ 過患ᄂᆞ 見ᄂᆞᄒᆞ [於]上勝境ᄒᆞ十 寂靜德ᄂᆞ 見ᄂᆞᄒᆞ
而로 諸欲아기 깊이 過患올 見ᄒᆞ제 上勝境아기 寂靜德올 見ᄒᆞ제

ᄂᆞナヲㅅ
ᄒᆞ겨리여

<20,14-,17>

彼ㄱ [於]戱論界ㅋㅓ 易ᄒᆞ 安住ᄒᆞᄒᆞ 可ᄒᆞᄂᆞㄱㅗ 謂ㄱ [於]世間ㄷ 一切種 淸淨ㅋㅓᄂᆞᄆᆞᆺᄉᆞᆼ
더는 戱論界아긔 易히 安住ᄒᆞᆷᄉᆞ짓ᄒᆞ여 닐온 世間ㅅ 一切種 淸淨아긔 ᄒᆞᆷ디며

[於]無戱論界ㅋㅓㄱ 難ᄒᆞ 安住ᄒᆞᄒᆞ 可ᄒᆞᄂᆞㄱㅗ 謂ㄱ [於]出世間 一切種 淸淨ㅋㅓᄂᆞᄆᆞᆺᄋᆞ 是故ᄆᆞ
無戱論界아긴 難사 安住ᄒᆞᆷᄉᆞ짓ᄒᆞ여 닐온 出世間 一切種 淸淨아긔 ᄒᆞᆷ디다 是故로

[於]彼ㄹㅓ 厭惡ᄂᆞㅋㅓᄉᆞ 而ᄆᆞ 住ᄂᆞᄆᆞㅗ 不厭惡ᄂᆞᄉᆞ 非ᄉᆞᄋᆞ
뎌의긔 厭惡ᄒᆞ아금 而로 住ᄒᆞᆷ여 不厭惡ᄒᆞ리 안디다

<20,17-,23>

又 此 正法ㅋㅓ 住ᄂᆞᄒᆞᄃᆞ 者ㄱ [於]无戱論 涅槃界ㄷ 中ㅋㅓ 心 樂ᄀᆞ 安住ᄂᆞㅋㅓᄉᆞ 證得ᄂᆞᄆᆞᆺᄂᆞᄉᆞᆫ
ᄯᅩ 이 正法아긔 住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无戱論 涅槃界ㅅ 中아긔 ᄆᆞᄋᆞᆷ 즐기오 安住ᄒᆞ아금 證得ᄒᆞᆷ 둘

樂欲ᄂᆞᄆᆞㅗ 沙門果證 闕ㄴㄱ 增上力ᄉᆞᆫ [由]ᄒᆞㄱㅅᄆᆞ 故ㄴ [於]已ㄹ 雜染相應ᄂᆞㄱㄹㅓ 心ㅋㅓ
樂欲ᄒᆞᆷ여 沙門果證 闕 ᄒᆞᆫ 增上力ᄋᆞᆯ ᄲᅳ드로 故호 저의 雜染相應ᄒᆞᆫ이긔 ᄆᆞᄋᆞᆷ아긔

厭患ᄂᆞᄆᆞᆺᄉᆞᆫ 生ㅐ가 [於]已ㄹ 淸淨 不相應ᄂᆞㄱㄹㅓ 心ㅋㅓ 厭患ᄂᆞᄆᆞᆺᄉᆞᆫ 生ㅐ가 [於]已ㄹ 雜染
厭患ᄒᆞᆷ 둘 나이며 저ᄋᆡ 淸淨 不相應ᄒᆞᆫ이긔 ᄆᆞᄋᆞᆷ아긔 厭患ᄒᆞᆷ 둘 나이며 저의 雜染

相應ᄂᆞㄱ 過患ㅋㅓ 心ㅋㅓ 厭患ᄂᆞᄆᆞᆺᄉᆞᆫ 生ㅐ가 [於]已ㄹ 淸淨 不相應ᄂᆞㄱ 過患ㅋㅓ 心ㅋㅓ
相應ᄒᆞᆫ 過患아긔 ᄆᆞᄋᆞᆷ아긔 厭患ᄒᆞᆷ 둘 나이며 저의 淸淨 不相應ᄒᆞᆫ 過患아긔 ᄆᆞᄋᆞᆷ아긔

厭患ᄂᆞᄆᆞᆺᄉᆞᆫ 生ㅐ가 [於]已ㄹㅓ 淸淨ᄉᆞ 難ᄒᆞ 成辦ᄂᆞᄆᆞᆺᄉᆞᆫ 見ᄂᆞㄱㄹㅓ 心ㅋㅓ 厭患ᄂᆞᄆᆞᆺᄉᆞᆫ
厭患ᄒᆞᆷ 둘 나이며 저의긔 淸淨을 難사 成辦ᄒᆞᆷ 둘 見ᄒᆞᆫ이긔 ᄆᆞᄋᆞᆷ아긔 厭患ᄒᆞᆷ 둘

生ㅐ가ᄂᆞᄂᆞᄒᆞᄒᆞᄂᆞᄒᆡ
나이며 ᄒᆞ겸ㅅ다

<20,23-21,06>

此ㄴ 中ㅋㅓ 略ㅁㄱ 三種 雜染 相應ㅅㄱ 有ㄴㅣ 一十ㄱ 未調ㅅㅎ 未順ㅅㅎㅅㅋ 而ㅱ 死ㅅ令ㄴ
잇 中아기 略콘 三種 雜染 相應ᄒᆞᆫ 잇다 ᄒᆞᄃᆞ나긘 未調ᄒᆞ졔 未順ᄒᆞ졔 ᄒᆞ아 而로 死호릿

雜染 相應ㅅ가 二十ㄱ 死 已ㅏㅅㅋ斤 當ㅅ 煩惱大坑ㅋ十 墮ㅅ令ㄴ 雜染 相應ㅅ가 三 彼
雜染 相應ᄒᆞ며 두블의긘 死 이믜사 ᄒᆞ아ᄂᆞᆯ 반ᄃᆞ기 煩惱大坑아기 墮호릿 雜染 相應ᄒᆞ며 세희긘 뎌

煩惱ㄴ 自在力ㄴ [由]ㅏㄱㅅㅱ 故ㅅ 種種ㄴ 惡不善業ㄴ 現行ㅅㅋ 有怖處ㅋ十 往ㅅ令ㄴ
煩惱ㅅ 自在力을 ᄲᅳᆫ ᄃᆞ로 故호 種種ㅅ 惡不善業을 現行ᄒᆞ아 有怖處아기 往호릿

雜染 相應ㅅ尸矢ㅣ 彼ㄱ 己ㅋ 身ㅖ 沙門果證 闕ㅅㅋㅎ 彼 闕ㅅㄱㅅㄴ [由]ㅏㄱㅅㅱ 故ㅅ 三種
雜染 相應ᄒᆞᆯ디다 뎌는 저의 몸이 沙門果證 闕ᄒᆞ아금 뎌 闕ᄒᆞᆫ ᄃᆞᆯ ᄲᅳᆫ ᄃᆞ로 故호 三種

雜染 與ㄴ 相應ㅅㄱㅅㄴ 觀ㅅ가 是[如]ㅈ 觀 已ㅏㅅㅋ斤 心ㅋ十 厭患ㅅ尸ㅅㄴ 生ㅖㅏㅎㄴㅣ
雜染 다뭇 相應ᄒᆞᆫ ᄃᆞᆯ 觀ᄒᆞ며 이 다히 觀 이믜사 ᄒᆞ아ᄂᆞᆯ ᄆᆞᅀᆞ미기 厭患ᄒᆞᆯ ᄃᆞᆯ 나이겸ㅅ다

<21,06-,12>

當ㅅ 知ㅎㅣ 淸淨 不相應ㅅㄱㅋ十 亦 三種 有ㅅㄱㅖㄱㄱ丁 一十ㄱ 諸 煩惱 斷ㅅㄱ 究竟涅槃ㄴ 名下
반ᄃᆞ기 알오다 淸淨 不相應ᄒᆞᆫ이기 ᄯᅩ 三種 有ᄒᆞᆫ인며 ᄒᆞ다나긘 모ᄃᆞᆫ 煩惱 斷ᄒᆞᆫ 究竟涅槃ᄋᆞᆯ 일하

無怖處ㅗㅅ犭가 二 能가 此ㄴ 證ㅅ犭ㅖㄱㅗ 謂ㄱ 增上心學ㄴ 依ㅅㄱ 善心 三摩地ㅖ가 三 能가
無怖處여 호리며 두블의긘 能며 이ᄅᆞᆯ 證ᄒᆞ리인여 닐온 增上心學ᄋᆞᆯ 依ᄒᆞᆫ 善心 三摩地이며 세희긘 能며

此ㄴ 證ㅅ犭ㅖㄱㅗ [於]增上慧學ㅋㅓㅅㄱ 正見ㅱ 攝ㅅ尸 所ㄴ 微妙聖道ㅖㅣ 彼ㄱ 已ㅋ 身ㅖ
이ᄅᆞᆯ 證ᄒᆞ리인여 增上慧學아기 ᄒᆞᆫ 正見으로 攝ᄒᆞᆷ 밧 微妙聖道이다 뎌는 저의 몸이

此 三種淸淨 與ㄴ 不相應ㅅㄱㅅㄴ 觀ㅅㄱㅅㅱ 故ㅅ 心ㅋ十 厭患ㅅ尸ㅅㄴ 生ㅖㅏㅎㄴㅣ
이 三種淸淨 다뭇 不相應ᄒᆞᆫ ᄃᆞᆯ 觀ᄒᆞᆫ ᄃᆞ로 故호 ᄆᆞᅀᆞ미기 厭患ᄒᆞᆯ ᄃᆞᆯ 나이겸ㅅ다

<21,12-,16>
當ㅅ 知ᄀᆡ 雜染 相應ᄂᆞᆫ 過患ᄋᆞ十 亦 三種 有ᄂᆞᆫ ᄇᆡ ᄀᆞᆯᄒᆞ 一十ᄀᆞ 老病死苦ᄅᆞ 根本ᄅᆡ[之] 生ᄇᆡᄀᆞ
반ᄃᆞ기 알오다 雜染 相應ᄒᆞᆫ 過患아기 ᄯᅩ 三種 有ᄒᆞᆫ인뎌 ᄒᆞ다나긘 老病死苦ㅅ 根本ㅅ 生이며

二 自性苦ᄇᆡᄀᆞ 无暇處ᄋᆞ十 生ᄂᆞᆫᄆᆞᅀᆞᄀᆞ 三 一切處ᄅᆞ 生无常性ᄇᆡᄂᆡ 彼ᄀᆞ 已ᄒᆞ 身ᄇᆡ 此 三種
두블의긘 自性苦인 无暇處아기 生홇디며 세희긘 一切處ㅅ 生无常性이다 뎌는 저의 몸이 이 三種

雜染 相應ᄂᆞᆫ 過患 [有]ᄉᆞᄂᆞᆫ ᄉᆞᆫᆞᆯ 觀ᄂᆞᆫᄋᆞ 心ᄋᆞ十 厭患ᄂᆞᆫᄆᆞᅀᆞᆫᆞᆯ 生ᄇᆡᄂᆞᆨᄒᆞᄂᆡ
雜染 相應ᄒᆞᆫ 過患 두혼 ᄃᆞᆯ 觀ᄒᆞ아 ᄆᆞᅀᆞᆷ아기 厭患홇 ᄃᆞᆯ 나이겸ㅅ다
(*난상 纂之一者生ᄇᆡᄂᆡ 老病死苦之根本故)

<21,16-,23>
當ㅅ 知ᄀᆡ 淸淨 不相應ᄂᆞᆫ 過患ᄋᆞ十 五種 有ᄂᆞᆫ ᄇᆡ ᄀᆞᆯᄒᆞ 一十ᄀᆞ [於]邊地生ᄋᆞ十 止息 能
반ᄃᆞ기 알오다 淸淨 不相應ᄒᆞᆫ 過患아기 五種 有ᄒᆞᆫ인뎌 ᄒᆞᄃᆞ나긘 邊地生아기 止息 能

未ㅅᄂᆞᆫᄀᆞ 二 [於]惡道生ᄋᆞ十 止息 能 未ㅅᄂᆞᆫᄀᆞ 三 [於]在家衆ᄒᆞ十ᄂᆞᆫ 諸 无閒業ᄂᆞᆫ 儇塞 能
안ᄃᆞᆨᄒᆞ며 두블의긘 惡道生아기 止息 能 안ᄃᆞᆨᄒᆞ며 세희긘 在家衆의긔 ᄒᆞᆫ 모ᄃᆞᆫ 无閒業을 儇塞 能

未ㅅᄂᆞᆫᄀᆞ 四 [於]出家衆ᄒᆞ十ᄂᆞᆫ 量 无ᄂᆞᆫ 見趣ᄂᆞᆫ 不相應 未ㅅᄂᆞᆫᄀᆞ 五 世間道ᄂᆞᆫ 由ᄋᆞ 乃ᄋᆡ
안ᄃᆞᆨᄒᆞ며 네희긘 出家衆의긔 ᄒᆞᆫ 量 无ᄒᆞᆫ 見趣를 不相應 안ᄃᆞᆨᄒᆞ며 다ᄉᆞ읫긘 世間道ᄅᆞᆯ 븥어 (乃사)

有頂ᄅᆡ 若定ㅅ 若生ㅅ ᄃᆞ十 至ᄇᆡᄂᆞᆫᄒᆞᄂᆞᆨᄒᆞᄂᆡ [雖]ᄉᆞᆫ 而ᄀᆞ [於]初後際 無ᄒᆞᆼ 生死流轉ᄂᆞᆷᄉᆞᆷ十 邊際ᄂᆞᆫ
有頂ㅅ 若定과 若生과아기 니를이 홈ㅅ과두 而은 初後際 無히 生死流轉호리기 邊際를

作 未ㅅᄂᆞᆫᄀᆞᄆᆞᅀᆞᆨᄒᆞᄂᆡ 彼ᄀᆞ 自ᄒᆞ 身ᄇᆡ 此 五種 淸淨 不相應ᄂᆞᆫ 過患 [有]ᄉᆞᄂᆞᆫ ᄉᆞᆫᆞᆯ 觀ᄂᆞᆫᄋᆞᄒᆞ
作 안ᄃᆞᆨᄒᆞ며 홇디다 뎌는 저의 몸이 이 五種 淸淨 不相應ᄒᆞᆫ 過患 두온 ᄃᆞᆯ 觀ᄒᆞ아금

心ᄋᆞ十 厭患ᄂᆞᆷᄆᆞᅀᆞᆫᆞᆯ 生ᄇᆡᄂᆞᆨᄒᆞᄂᆡ
ᄆᆞᅀᆞᆷ아기 厭患홇 ᄃᆞᆯ 나이겸ㅅ다

<21,23-22,04>
[於]已ㅋㅓ 淸淨ㄴ 難ㅣ 成辦ㅅ尸入ㄴ 見ㅅ令ㅓ 當ㅅ 知ㅎㅣ 亦 五種 有ㅅㄱㅐㄱㅜ 一ㅓㄱ 若
저의긔 淸淨을 難사 成辦홇 ᄃᆞᆯ 見호리기 반ᄃᆞ기 알오다 ᄯᅩ 五種 有ᄒᆞᆫ인뎌 ᄒᆞᄃᆞ나긘 若

捨ㅅㅣㅈ 爲ㅅ尸 不ㅈㅅㄱㅣㅓㄱ 自作 能 不ㅅㅅ尸入ㅱ 故ㅅ 二[於]餘 所ㄴ 事ㅣㅓㄲ 他ㅋ
捨ᄒᆞ아금 爲홇 안ᄃᆞᆯᄒᆞ다긘 自作 能 안ᄃᆞ홇 ᄃᆞ로 故며 두블의긘 餘 所ㅅ 事아기도 他의

爲ㅅ尸入ㄴ 請ㅅㅣ 能ㅅ 成辦ㅅㅇ 非ㅊㅐㄱ入ㅱ 故ㅅ 三 決定 作ㅅㅎ [應]ㄴㅅㄱ入ㅱ 故ㅣ
爲홇 ᄃᆞᆯ 請ᄒᆞ아 能며 成辦호리 안디인ᄃᆞ로 故며 세희긘 決定 作홈ㅅ ᄒᆞᆫᄃᆞ로 故다

[於]自心ㅣㅓ 淸淨ㅅ [令]ㅐ尸 未ㅐㅅㄱㅣㅓㄱ 必ㅅ [於]衆苦ㅣㅓ 得ㅊ 解脫ㅅㅣ 吉祥性ㄴ
自心아기 淸淨ᄒᆞ잃 안이ᄒᆞᆫ 다긘 반ᄃᆞ기 衆苦아기 시러금 解脫ᄒᆞ아 吉祥性을

成ㅐ尸 不ㅅㅅ尸入ㄴ [由]ㅣㄱ入ㅱㅗ
일잃 안ᄃᆞ홇 ᄃᆞᆯ 쁜 ᄃᆞ로여

<22,04-,10>
四ㅓㄱ [於]惡業ㄴ 現在ㅣㅓ 不作ㅅ尸入ㄴ 卽ㅎ 彼ㄴ 說ㅣ [爲]已ㅣ 淸淨ㄴ 作ㅅㅣㄱㅜ丁ノ孑ㅠ
네희긘 惡業을 現在아기 不作홇 ᄃᆞᆯ 卽오 뎌를 니르아 이믜사 淸淨을 作ᄒᆞ안뎌 호리라

卽ㅎ 名ㅏ 已ㅣ 得ㅊ [於]現見法ㅣㅓ 永ㅣ 熾燃ㄴ 離ㅅㅣㄱㅜ丁ノ令 非ㅊㅣ 對治道ㅐ 无ㅅㄱㅣㅓㄱ
卽오 일하 이믜사 시러금 現見法아기 永아 熾燃을 離ᄒᆞ안뎌 호리 안디다 對治道이 无ᄒᆞᆫ 다긘

先 造作ノㄱ 所ㄴ 惡不善業ㄴ 必ㅅ 壞ㅅㅐ尸 不ㅅㅅ尸入ㅱ 故ㅗ 五 彼 淸淨ㄱ 學无學道ㄴ
몬지하 造作ᄒᆞᆫ 밧 惡不善業을 반ᄃᆞ기 壞ᄒᆞ잃 안ᄃᆞ홇 ᄃᆞ로 故여 다ᄉᆞ읫긘 뎌 淸淨은 學无學道ᄅᆞᆯ

證得ノㄱ入ㅱ 顯ノㄱ 所ㅐㄱ入ㄴ [由]ㅣㄱ入ㅱ 故ㅣ 彼ㄱ 淸淨ㅐ 此 五相ㄴ 由ㅈ 難ㅣ
證得ᄒᆞᆫ ᄃᆞ로 顯ᄒᆞᆫ 바인 ᄃᆞᆯ 쁜 ᄃᆞ로 故다 뎌는 淸淨이 이 五相을 븥어 難사

成辦ノㅎ 可ㅌㅅㄱ入ㄴ 觀ㅅㅣㅈ 心ㅈㅓ 厭患ノ尸入ㄴ 生ㅐナㅎㅌㅣ
成辦홈ㅅ짓ᄒᆞᆫ ᄃᆞᆯ 觀ᄒᆞ아금 ᄆᆞᅀᆞᆷ아기 厭患홇 ᄃᆞᆯ 나이겸ㅅ다

<22,10-,15>
又 復 堅固精進ᄂᆞ 發起ᄉᆞᆸ 證得ᄉᆞ [爲欲]ㅅᄉᆞᄆᆞᆫ 彼ㄱ 雜染 淸淨 相應 不相應ᄒᆞ 觀見ᄉᆞㄱᄉᆞᆫ
또 또 堅固精進을 發起ᄒᆞ아 證得ᄒᆞ과 홇 ᄃᆞ로 더는 雜染 淸淨 相應 不相應을 觀見ᄒᆞᆫ ᄃᆞᆯ

[由]ᄒᆞㄱᄉᆞᆷ 故ᄂᆞ 心ᄒᆞᆫ 厭患ᄂᆞᄆᆞᆫ 生ᄒᆡᄀᆞᆫ 又 雜染 淸淨 相應 不相應 過患ᄒᆞ 觀見ᄉᆞㄱᄉᆞᆫ
ᄡᅳᆫ ᄃᆞ로 故호 ᄆᆞᅀᆞᆷ아기 厭患홇 ᄃᆞᆯ 나이며 또 雜染 淸淨 相應 不相應 過患을 觀見ᄒᆞᆫ ᄃᆞᆯ

[由]ᄒᆞㄱᄉᆞᆷ 故ᄂᆞ 心ᄒᆞᆫ 怖畏ᄒᆞ 生ᄒᆡᄀᆞᆫ 又 [於]淸淨 證得ㅅ 及ㄷᆡ 雜染 斷滅ㅅᄃᆡ 中ᄒᆞᆫ
ᄡᅳᆫ ᄃᆞ로 故호 ᄆᆞᅀᆞᆷ아기 怖畏ᄅᆞᆯ 나이며 또 淸淨 證得과 밋 雜染 斷滅괏 中아기

嬾惰懈怠 [有]ᄲᅡㄱᄉᆞᆷ 故ᄂᆞ 心 便ᄀᆞ 遮止ᄂᆞᆫᄀᆞ
嬾惰懈怠 둔 ᄃᆞ로 故호 ᄆᆞᅀᆞᆷ 便오 遮止ᄒᆞ며

<22,15-,20>
又 作意ᄉᆞᆸ 彼 相ᄒᆞ 思惟ᄉᆞㄱᄉᆞᆫ [由]ᄒᆞㄱᄉᆞᆷ 故ᄂᆞ 心ᄒᆞᆫ 猒患ᄂᆞᄆᆞᆫ 生ᄒᆡᄒᆞ 卽ᄀᆞ [於]此
또 作意ᄒᆞ아 뎌 相ᄋᆞᆯ 思惟ᄒᆞᆫ ᄃᆞᆯ ᄡᅳᆫ ᄃᆞ로 故호 ᄆᆞᅀᆞᆷ아기 猒患홇 ᄃᆞᆯ 나이졔 卽오 이

相ᄒᆞᆫ 所作 多ᄉᆞㄱᄉᆞᆷ 故ᄀᆞ 心 極 厭患ᄉᆞᄒᆞᄂᆞᆫᄀᆞ 厭患 極厭患ᄒᆞᄉᆞㄱ [如]ᄒᆞᆫ 怖畏 極怖畏ㅅ 遮止
相아기 所作 多ᄒᆞᆫ ᄃᆞ로 故호 ᄆᆞᅀᆞᆷ 極 厭患ᄒᆞ졔 ᄒᆞ며 厭患 極厭患ᄋᆞᆯ ᄒᆞᆫ 다히 怖畏 極怖畏와 遮止

極遮止ㅅ가 當ㅅ 知ᄀᆞᆡ 亦 亦ᄉᆞㄱᄒᆡᄀᆞᄀᆞᆮ 是 [如]ᄒᆞᆫ 彼ㄱ 厭 俱行ᄉᆞㄱ 想ᄒᆞ 由ᄒᆞᆷ [於]五處所ᄒᆞᆫ
極遮止와도 반ᄃᆞ기 알오다 또 亦ᄒᆞᆫ인며 이 다히 뎌는 厭 俱行ᄒᆞᆫ 想을 븓어 五處所아기

二十種相ᄒᆞ [以]ᄒᆞᆷ 作意思惟ᄉᆞᄉᆞᆨᄀᆞ 入ᄒᆞᆫ [以]ᄒᆞㄱᄉᆞᆷ 故ᄂᆞ 名下 善修治ㅓᄂᆞᄒᆞᆨᄀᆡ
二十種相ᄋᆞᆯ ᄡᅳ아 作意思惟ᄒᆞ건 ᄃᆞᆯ ᄡᅳᆫ ᄃᆞ로 故호 일하 善修治여 호리다

<22,20-,23>
復 五因ㅣ 二十種相ᄋᆞ[之] 攝受ᄂᆞᄀᆞ 所ᄒᆡᄇᆞ 有ㄷᆡᄀᆡ [於]愛盡 寂滅ᄂᆞᄇᆞᄃᆞ 涅槃ᄒᆞᆫ 速疾ᄒᆞ
또 五因이 二十種相ᄋᆞ로 攝受혼 바이ᄂᆞ 잇다 愛盡 寂滅ᄒᆞᄂᆞᆺ 涅槃아기 速疾히

多ㅐ 住ㅅ ᄒᆞ 心ᄒᆞ十 退轉ㅅ ᄑᆞ 無ᄒᆞ 亦 憂慮ㅅ ᄒᆞ 謂ᄑᆞ 我ᄋᆞ 我ㄱ 今良[者] [爲]何所ᄒᆞ十
하이 住ᄒᆞ아금 ᄆᆞᄉᆞᆷ아기 退轉홇 없제 ᄯᅩ 憂慮ᄒᆞ아금 니ᄅᆞᆷ 나ᅀᅵ 나ᄂᆞᆫ 今ㄱ 何所아기

在ㅅ ᄉᆞᆫㄱ ㅐ ᄒᆞ ᄉᆡ ㅁㅣ ㅅ ᄑᆞ 无ᄒᆞ ㅅ ᄒᆞ [令]ㅐ ㅏ ᄒᆞ ㅗ
在ᄒᆞ건이앗고 홇 无히 ᄒᆞ제 ᄒᆞ이겨리여

<22,23-23,06>
何等ㅅ ㄱ ㅣ 五因ㅐ ㅣ ㅅ ᄋᆞ ㅁ 一十ㄱ 通達作意ㅣ [由]ᄒᆞ ㄱ ㅅ ㅱ 故ㅣ 謂ㄱ 是 [如]ᄒᆞ ㅅ ㄱ 通達作意ㅣ
何等ᄒᆞᆫ ᄋᆞᆯ 五因이다 호리고 ᄒᆞᄃᆞ나긘 通達作意를 ᄠᅳᆫ ᄃᆞ로 故다 닐온 이 다ᄒᆞᆫ 通達作意를

由ᄒᆞ 无間ᄒᆞ 必ㅅ 能ᄉᆞ 正性離生ᄒᆞ十 趣入ㅅ ᄑᆞ ㅁ 諦現觀ᄒᆞ十 入ㅅ ᄒᆞ 聖智見ㅣ 證ㅅ ᄑᆞ 矣ㅣ 二
븥어 无間히 반ᄃᆞ기 能며 正性離生아기 趣入홇ᄃᆡ 諦現觀아기 入ᄒᆞ아 聖智見을 證홇디다 두블의긘

所依ㅣ [由]ᄒᆞ ㄱ ㅅ ㅱ 故ㅣ 謂ㄱ 此 所依ㅣ 依ㅅ ㄱ ㅅ ㅣ 由ᄒᆞ 無間ᄒᆞ 必ㅅ 能ᄉᆞ 正性離生ᄒᆞ十
所依를 ᄠᅳᆫ ᄃᆞ로 故다 닐온 이 所依를 依ᄒᆞᆫ ᄃᆞᆯ 븥어 無間히 반ᄃᆞ기 能며 正性離生아기

趣入ㅅ ᄑᆞ ㅁ 餘ㄱ 前ᄋᆞ 說ㅅ ㄱ [如]ᄒᆞ ㅅ ᄑᆞ 矣ㅣ 三 入境界門ㅣ [由]ᄒᆞ ㄱ ㅅ ㅱ 故ㅣ 謂ㄱ 此 入境界門
趣入홇ᄃᆡ 餘는 前의 說ᄒᆞᆫ 다홇디다 세희긘 入境界門을 ᄠᅳᆫ ᄃᆞ로 故다 닐온 이 入境界門

ㅣ 緣ㅅ ㄱ ㅅ ㅣ 由ᄒᆞ 必ㅅ 能ᄉᆞ 正性離生ᄒᆞ十 趣入ㅅ ᄑᆞ ㅁ 餘ㄱ 前ᄋᆞ 說ㅅ ㄱ [如]ᄒᆞ ㅅ ᄑᆞ 矣ㅣ
을 緣ᄒᆞᆫ ᄃᆞᆯ 븥어 반ᄃᆞ기 能며 正性離生아기 趣入홇ᄃᆡ 餘는 前의 說ᄒᆞᆫ 다홇디다

<23,06-,11>
四 攝受資糧ㅣ [由]ᄒᆞ ㄱ ㅅ ㅱ 故ㅣ 謂ㄱ 此 攝受資糧ㅣ 由ᄒᆞ 必ㅅ 能ᄉᆞ 正性離生ᄒᆞ十 趣入ㅅ ᄑᆞ ㅁ
네희긘 攝受資糧ᄋᆞᆯ ᄠᅳᆫ ᄃᆞ로 故다 닐온 이 攝受資糧ᄋᆞᆯ 븥어 반ᄃᆞ기 能며 正性離生아기 趣入홇ᄃᆡ

餘ㄱ 前ᄋᆞ 說ㅅ ㄱ [如]ᄒᆞ ㅅ ᄑᆞ 矣ㅣ 五 攝受方便ㅣ [由]ᄒᆞ ㄱ ㅅ ㅱ 故ㅣ 謂ㄱ 是 [如]ᄒᆞ ㅅ ㄱ 方便ㅣ
餘는 前의 說ᄒᆞᆫ 다홇디다 다ᄉᆞ읫긘 攝受方便을 ᄠᅳᆫ ᄃᆞ로 故다 닐온 이 다ᄒᆞᆫ 方便을

攝受ㅅ ㄱ ㅅ ㅣ 由ᄒᆞ 必ㅅ 能ᄉᆞ 正性離生ᄒᆞ十 趣入ㅅ ᄑᆞ ㅁ 乃ᄒᆞ 至ㅐ 廣ㅐ 說ㅅ ᄒᆞ 成ㅐ ㅅ ᄑᆞ 矣ㅣ 是

攝受ᄒᆞᆫ ᄃᆞᆯ ᄇᆞᆯ어 반ᄃᆞ기 能며 正性離生아기 趣入ᄒᆞᆷ더 니를이사 넙이 說호리 일이ᄒᆞᆷ디다 이

[如]ᄎᆞᄂᆡ 五因ᄀᆡ 當ᄉᆞ 知ᄀᆞᄫᆡ 諦現觀ᄂᆞᆫ 逆次因ᄒᆞ고 依ᄒᆞ 說ᄂᆞᆫᄃᆡᄒᆡᄀᆞᆫᄃᆞ 順次因ᄆᆞᄂᆞᆫ 非ᄉᆞᆺᄒᆡᄀᆞᆫᄃᆞ
다ᄒᆞᆫ 五因은 반ᄃᆞ기 알오다 諦現觀ᄉᆞ 逆次因을 ᄇᆞᆯ어 說혼인여 順次因로 호ᄂᆞ 안디인더

<23,11-,18>
最勝因ᄒᆞ고 依ᄒᆞ 先ᄒᆞ 說ᄂᆞᆫ 事ᄒᆞ 如ᄉᆞ 逆次ᄆᆞ 說ᄂᆞᆫᄃᆡᄒᆡᄀᆞᆫᄉᆞᄆᆞ 故ᄉᆞ 謂ᄀᆡ [於]空ᄉᆞ 無顯ᄉᆞ
最勝因을 ᄇᆞᆯ어 몬지하 說혼 事ᄅᆞᆯ 곧기 逆次로 說혼인 ᄃᆞ로 故여 닐온 空과 無顯과

无相ᄉᆞᄂᆞᆫ 加行ᄂᆞᆫ 中ᄒᆞᄉᆞᆫ [於] 作意ᄆᆡ 微細現行ᄒᆞᄉᆞᆫᄐᆞ 隨入ᄒᆞᄒᆞ 有間无間ᄒᆞᆼ 隨轉ᄒᆞᄉᆞᆫᄂᆞᆫ 我慢
无相ᄭᅡ 加行ᄉᆞ 中아기 作意이 微細現行ᄒᆞ리긔 隨入ᄒᆞ아 有間无間히 隨轉ᄒᆞ릿 我慢

俱行ᄒᆞᄂᆡ 心相ᄆᆡ 能ᄀᆞ 現觀ᄒᆞ고 障ᄒᆞᄉᆞᆫᄐᆞ 作意ᄆᆡ 正ᄂᆞᆫ 通達ᄒᆞᄂᆡᄒᆡᄀᆞᆫᄉᆞᄆᆞ 故ᄀᆞ 旣ᄒᆞ 通達 已ᄒᆞᄒᆞᄒᆞᄒᆞᆫ
俱行ᄒᆞᆫ 心相이 能며 現觀ᄋᆞᆯ 障ᄒᆞ리긔 作意이 맛 通達ᄒᆞᆫ ᄃᆞ로 故며 ᄒᆞ마사 通達 이믜사 ᄒᆞ아ᄂᆞᆯ

[於]作意俱行ᄒᆞᄂᆡ 心ᄆᆡ 任運ᄒᆞᆼ 轉ᄒᆞᄉᆞᆫᄂᆞᆫ 中ᄒᆞᄉᆞᆫ 能善ᄒᆞᆼ 棄捨ᄒᆞᄒᆞᄒᆞᄒᆞᆫ 无間ᄒᆞᆼ 滅ᄒᆞ [令]ᄆᆡᄀᆞᆫ
作意俱行ᄒᆞᆫ ᄆᆞᅀᆞᆷ이 任運히 轉ᄒᆞᄅᆡᆺ 中아기 能善히 棄捨ᄒᆞ아금 无間히 滅ᄒᆞ이며

無間滅心ᄒᆞ고 依ᄒᆞ 新ᄆᆞ 起ᄂᆞᆫ 所ᄂᆞᆫ 作意ᄒᆞ 由ᄒᆞ 無常 等ᄒᆞᄂᆡ 行ᄒᆞ [以]ᄒᆞ 實 [如]ᄎᆞ 思惟ᄒᆞᄀᆞᆫ
無間滅心을 ᄇᆞᆯ어 새로 起혼 밧 作意를 ᄇᆞᆯ어 無常 다ᄒᆞᆫ 行ᄋᆞᆯ ᄡᅳ아 實 다히 思惟ᄒᆞ며

<23,18-,23>
此 作意ᄒᆞ 修習ᄒᆞᄒᆞᆼ 多 修習ᄒᆞᄒᆞᆼᄒᆞᄂᆡᄒᆞᄉᆞᆫᄒᆞ [由]ᄒᆞᄀᆞᆫᄉᆞᄆᆞ 故ᄂᆞ 所緣 能緣 平等 平等ᄒᆞᄂᆡ 智ᄆᆡ
이 作意를 修習ᄒᆞ졔 하 修習ᄒᆞ제 ᄒᆞᆫ ᄃᆞᆯ ᄠᅳᆫ ᄃᆞ로 故호 所緣 能緣 平等 平等ᄒᆞᆫ 智이

生ᄒᆞᄉᆞᆫᄀᆞ 彼ᄀᆡ [於]亦ᄒᆞᄂᆡ 時ᄉᆞᆺᄐᆞ 能ᄀᆞ 現觀ᄒᆞ고 障ᄒᆞᄉᆞᆫᄂᆞᆫ 我慢 亂心ᄒᆞ 便ᄒᆞᄀᆞᄫᆡ 永ᄒᆞ 斷滅ᄒᆞᄒᆞᄆᆞ 心一境
生ᄒᆞᆫ건 뎌는 亦ᄒᆞᆫ 時여기 能며 現觀ᄋᆞᆯ 障ᄒᆞ릿 我慢 亂心을 便오 길아 斷滅ᄒᆞ고 心一境

性ᄒᆞ 證得ᄒᆞᄂᆞᆫᄀᆞᆫᄉᆞᄆᆞ 便ᄒᆞᄀᆞᄫᆡ 自ᄆᆞ 思惟ᄒᆞᄂᆞᆫᄀᆞᆫᄑᆞ 我ᄀᆡ 已ᄒᆞ 心一境性ᄒᆞ 證得ᄒᆞᄒᆞᄒᆞᄂᆞᆫᄀᆞᆫᄒᆡᄒᆞᄒᆞᄂᆞᆫᄂᆡᄒᆞᄒᆞ
性을 證得ᄒᆞ견 ᄃᆞ로 便오 저로 思惟ᄒᆞᄀᆞᆷ 나ᄂᆞᆫ 이믜사 心一境性을 證得ᄒᆞ아 혼이앗다 ᄒᆞ아

實 [如]ᄒᆞ 了知ᄂᆞᆫᄃᆞᆫᄒᆞᆫ 當ᄒᆞ 知ᄒᆞᆫ 是ᄒᆞᆫ 名ᄒᆞ 通達作意ᄒᆞᆫ [由]ᄒᆞᄀᆞᆨᄋᆞᆷ 故ᄂᆞ 諦現觀ᄒᆞᆫᄃᆞ
實 다히 了知ᄒᆞ겸ᄉᆞ다 반ᄃᆞ기 알오다 이ᄅᆞᆯ 일하 通達作意를 ᄆᆞᆫ ᄃᆞ로 故호 諦現觀아기

入ᄂᆞᆫᄆᆞᆫᄃᆞᆫᄎᆞᄆᆡᄀᆞᆨᄃᆞᆫ
入홇더 호리인더

<23,23-24,06>
又 若 先ᄒᆞ 世間道ᄒᆞᆫ 以ᄒᆞ 三摩地ᄒᆞᆫ 得ᄒᆞᆷ 亦 得ᄒᆞᄇᆞ 圓滿ᄂᆞᆷ 亦 自在ᄒᆞᆫ 得ᄒᆞᆷᄂᆞᆫᄀᆞᆨ 彼ᄀᆞ 或
또 若 몬지하 世間道ᄅᆞᆯ ᄡᅳ아 三摩地를 얻졔 또 시러금 圓滿ᄒᆞ졔 또 自在ᄅᆞᆯ 얻졔ᄒᆞᆫ온 더는 또

[於]入三摩地相ᄆᆡᄀᆞᆨ 謂ᄀᆞ 此ᄒᆞᆫ [由]ᄒᆞᄀᆞᆨᄋᆞᆷ 故ᄂᆞ 三摩地ᄒᆞᆫ 入ᄂᆞᆫᄉᆞᆫ 或 [於]住三摩地相ᄆᆡᄀᆞᆨ
入三摩地相인 닐온 이ᄅᆞᆯ ᄆᆞᆫ ᄃᆞ로 故호 三摩地아기 入호리기 或 住三摩地相인

謂ᄀᆞ 此ᄒᆞᆫ 由ᄒᆞᄀᆞᆨᄋᆞᆷ 故ᄂᆞ 三摩地ᄒᆞᆫ 住ᄂᆞᆫᄉᆞᆫ 或 [於]出三摩地相ᄆᆡᄀᆞᆨ 謂ᄀᆞ 此ᄒᆞᆫ [由]ᄒᆞᄀᆞᆨᄋᆞᆷ
닐온 이ᄅᆞᆯ ᄆᆞᆫ ᄃᆞ로 故호 三摩地아기 住호리기 或 出三摩地相인 닐온 이ᄅᆞᆯ ᄆᆞᆫ ᄃᆞ로

故ᄂᆞ 三摩地ᄒᆞᆫ 出ᄂᆞᆫᄉᆞᆫ [於]此 諸相ᄒᆞᆫ 作意思惟ᄂᆞᆯᄇᆞ 其 心ᄒᆞᆫ 安住ᄉᆞᄆᆡᄒᆞ 諦現觀ᄒᆞᆫ 入ᄂᆞᆫᄀᆞ
故호 三摩地를 出호리기 이 諸相아기 作意思惟ᄒᆞ아금 그 ᄆᆞᅀᆞᆷ을 安住ᄒᆞ이하 諦現觀아기 入ᄒᆞ며

<23,06-,10>
若 三摩地ᄒᆞᆫ 得ᄒᆞᄀᆞᅩᆫ 而ᄀᆞ 圓滿 未ᄆᆡᄒᆞᆷ 亦 自在 未ᄆᆡᄂᆞᆫᄒᆞᆷᄂᆞᆫᄀᆞᆨ 彼ᄀᆞ 或 止相ᄒᆞᆫ 思惟ᄂᆞᆷ 或
若 三摩地ᄅᆞᆯ 얻언여 而는 圓滿 아니졔 또 自在 아니ᄒᆞ졔 ᄒᆞᆫ온 더는 或 止相을 思惟ᄒᆞ졔 或

擧相ᄒᆞᆫ 思惟ᄂᆞᆷ 或 捨相ᄒᆞᆫ 思惟ᄂᆞᆷᄂᆞᆫᄒᆞᆫᄇᆞ 其 心ᄒᆞᆫ 安住ᄉᆞᄆᆡᄒᆞ 諦現觀ᄒᆞᆫ 入ᄂᆞᆫᄀᆞᆫᄂᆞᆫᄉᆞᆫ
擧相을 思惟ᄒᆞ졔 或 捨相을 思惟ᄒᆞ졔 ᄒᆞ아금 그 ᄆᆞᅀᆞᆷ을 安住ᄒᆞ이하 諦現觀아기 入ᄒᆞ며 ᄒᆞ겸ᄉᆞ다

是 [如]ᄒᆞᆫᄂᆞᆫᄆᆞᆫ入ᄒᆞᆫ 當ᄒᆞ 知ᄒᆞᆫ 所依ᄒᆞᆫ [由]ᄒᆞᄀᆞᆨᄋᆞᆷ 故ᄂᆞ 其 心 安住ᄂᆞᆫᄉᆞᆨᄀᆞᆨᄂᆞᆫᄀᆞᆨᄃᆞᆫ
이 다홇 ᄃᆞᆯ 반ᄃᆞ기 알오다 所依를 ᄆᆞᆫ ᄃᆞ로 故호 그 ᄆᆞᅀᆞᆷ 安住ᄒᆞ건더 호리인더

<24,10-,17>
又 二法 有ㄴㅣ [於]現觀ㄴ 修ノ仝十 極 障导ㅂㄱ [爲]入ㄴンオ十 何等ンㄱㄴ [爲]二ㅂㅣノ仝ㅁ
또 二法 잇다 現觀을 修호리기 極 障导읾 둘 ᄒᆞ리여 何等ᄒᆞᆫ올 二이다 호리고

一十ㄱ 不正尋思ㄹ 作ノㄱ 所ㄴ 擾亂ㅱ 心ㅎ 安靜 不ハンカ 二 [於]所知事ㄱ十 其心 顚倒ンㄱ矢ㅣ
ᄒᆞ두나긘 不正尋思의 作ᄒᆞᆫ 밧 擾亂ᄋᆞ로 ᄆᆞᅀᆞᆷ 安靜 안ᄃᆞᆨᄒᆞ며 두블의긘 所知事아기 其心 顚倒ᄒᆞᆷ디다

是 [如]ᄎンㄱ 障导ㄴ 對治ン [爲欲]人ノ仝十 當ハ 知ㄱㅣ 二種ㅂ [於]所緣境ㄱ十 其心ㄴ
이 다ᄒᆞᆫ 障导ᄅᆞᆯ 對治ᄒᆞ과 호리기 반ᄃᆞ기 알오다 二種이 所緣境아기 그 ᄆᆞᅀᆞᆷ올

安住ㅅㅂㅅ 有ンㄱㅂㄱㄱ 謂ㄱ 第一障ㄴ 對治ン [爲]人ンㄱ入ㅱ 故ノ 阿那波那念ㄴ 修ンカ
安住ᄒᆞ이리 有ᄒᆞᆫ인며 닐온 第一障올 對治ᄒᆞ과 ᄒᆞᆷ ᄃᆞ로 故호 阿那波那念을 修ᄒᆞ며

第二章ㄴ 對治ン [爲]人ンㄱ入ㅱ 故ノ 諸 念住ㄴ 修ンㄱ矢ㅣ 是 [如]ᄎンㄱ入ㄴ 當ハ 知ㄱㅣ
第二章올 對治ᄒᆞ과 ᄒᆞᆷᄃᆞ로 故호 모ᄃᆞᆫ 念住를 修ᄒᆞᆷ디다 이 다ᄒᆞᆷ 둘 반ᄃᆞ기 알오다

入境界門ㄴ [由]ㅎㄱ入ㅱ 故ノ 其 心 安住ンオㄱ丁ノオㅂㄱ丁
入境界門을 ᄲᅳᆫ ᄃᆞ로 故호 그 ᄆᆞᅀᆞᆷ 安住ᄒᆞ건며 호리인며

<24,17-25,01>
又 [於]妙五欲ㄱ十 樂ㄱ 習近ノㄱ入ㄱ[者] [於]聖法ㅗ 毘柰耶ㅗノ仝十 所行處 非矢ㅁ 若
또 妙五欲아기 즐기오 習近ᄒᆞᆷ ᄃᆞᆫ 聖法여 毘柰耶여 호리기 所行處 안디라 若

[於]宜ンㄱ入ㄴ 隨ノ 得ノㄱ 所ㄴ 衣服ㅗ 飮食ㅗ 諸 坐臥具ㅗノ仝十 便ㄱ 喜足ㄴ 生ㅂㄱ
宜ᄒᆞᆫ 둘 좇오 得ᄒᆞᆫ 밧 衣服여 飮食여 모ᄃᆞᆫ 坐臥具여 호리기 便오 喜足올 나이아

獲得ノㄱ 所ㄴ 利養 恭敬ㄴ 隨ノ 其心ㄴ 制伏ノㄱム 謂ㄱ 妙五欲ㄴ 依ㄱ 得ノㄱ 所ㄴ 利養
獲得ᄒᆞᆫ 밧 利養 恭敬올 좇오 그 ᄆᆞᅀᆞᆷ올 制伏ᄒᆞᆷ디 닐온 妙五欲올 븥어 得ᄒᆞᆫ 밧 利養

恭敬ㄴ 由ㄱ 心 便ㄱ 堅住 不ㅈノヒヒ 此 因緣ㄴ 由ㄱ 一切 非所行處ㄴ 遠離ンカ 旣ㅎ 遠離
恭敬올 븥어 心 便오 堅住 안ᄃᆞᆯ호ᄂᆞᆺ 이 因緣을 븥어 一切 非所行處를 遠離ᄒᆞ며 ᄒᆞ마사 遠離

已ᄒᆞᆫᄃᆡ 諸 念住ᄒᆞ 依ᄒᆞ 樂斷樂修ᄒᆞᆫᄃᆞ [於]晝夜分ᄒᆞᆫ 時時ᄒᆞᆫ 自他ᄅᆞ [有]ᄉᆞᆷᄀᆞ 所ᄂᆞ
이믜사 ᄒᆞ아ᄂᆞᆯ 모ᄃᆞᆫ 念住를 븥어 樂斷樂修ᄒᆞ며 晝夜分아기 時時아기 自他ᄋᆡ 두ᄒᆞᆫ 밧

衰盛 等ᄋᆞᆫᄀᆞ 事ᄒᆞ 觀察ᄒᆞᆫᄃᆞᄒᆞᆷ 心ᄒᆞᆫ 厭患ᄒᆞ 生ᄒᆡᄀᆞᆫ
衰盛 다ᄒᆞᆫ 事를 觀察ᄒᆞ아금 ᄆᆞᅀᆞᆷ아기 厭患올 나이며

<25,01-,04>
又 復 佛 隨念 等ᄋᆞᆫᄀᆞ ᄒᆞ 修習ᄒᆞᆫᄃᆞᄒᆞᆷ 心ᄒᆞ 淸淨ᄒᆞᆫ [令]ᄒᆡᄀᆞᆫ 又 復 諸 聖種ᄂᆞ 中ᄒᆞᆫ
ᄯᅩ ᄯᅩ 佛 隨念 다ᄒᆞᆫ올 修習ᄒᆞ아금 ᄆᆞᅀᆞᆷ올 淸淨ᄒᆞ이며 ᄯᅩ ᄯᅩ 모ᄃᆞᆫ 聖種ᄉᆞ 中아기

安住ᄒᆞᆫᄀᆞᆫᄋᆞᄂᆞᄒᆞᄂᆡ 是 [如]ᄒᆞᆫᄋᆞᄆᆞᄒᆞᆫ 當ᄒᆞ 知ᄒᆞᄀᆡ 資糧ᄒᆞ [由]ᄒᆡᄀᆞᆨᄉᆞᆫ 故ᄂᆞ 其 心
安住ᄒᆞ며 ᄒᆞ겸ᄉᆞ다 이 다ᄒᆞᆷ ᄃᆞᆯ 반ᄃᆞ기 알오다 資糧올 ᄠᅳᆫ ᄃᆞ로 故호 그 ᄆᆞᅀᆞᆷ

安住ᄒᆞᆫᄀᆞᆫᄃᆞᄀᆞᆫᄂᆞᄒᆞᄒᆡᄀᆞᆨᄀᆞᆫ 此ᄀᆞ 最勝 資糧道ᄒᆞ 依ᄒᆞ 說ᄂᆞᄀᆞᆫᄒᆡᄂᆡ
安住ᄒᆞ건뎌 호리인뎌 이ᄂᆞᆫ 最勝 資糧道를 븥어 說혼이다

<25,04-,10>
又 彼ᄀᆞ 是 [如]ᄒᆞᆫᄋᆞᄀᆞ 資糧ᄒᆞᆫ 住 已ᄒᆞᆫᄃᆞᆫᄃᆞ 相應 作意 加行ᄒᆞ 修ᄂᆞ[爲]ᄉᆞᄂᆞᄆᆞᄒᆞᆫ 故ᄃᆞ 二種
ᄯᅩ 더ᄂᆞᆫ 이 다ᄒᆞᆫ 資糧아기 住 이믜사 ᄒᆞ아ᄂᆞᆯ 相應 作意 加行올 修ᄒᆞ과 ᄒᆞᆷ ᄃᆞ로 故거 二種

加行方便 [有]ᄉᆞᆷᄀᆞᆫᄂᆞᄒᆞᄂᆡ 何等ᄋᆞᆫᄀᆞᆫ [爲]二ᄒᆡᄂᆞᄉᆞᆫᄅᆞ 一ᄒᆞᆫᄀᆞ 自ᄆᆞ [於]契經ᄂᆞ 阿毘達磨ᄂᆞᄂᆞᄉᆞᆫᄒᆞ
加行方便 두겸ᄉᆞ다 何等ᄒᆞᆫ올 二이다 호리고 ᄒᆞᄃᆞ나긴 저로 契經여 阿毘達磨여 호리기

讀ᄂᆞᄒᆞ 誦ᄂᆞᄒᆞ 受持ᄂᆞᄒᆞ 正作意ᄒᆞ 修ᄂᆞᄒᆞᄋᆞᆫᄃᆞᄒᆞᆷ [於]蘊 等ᄋᆞᆫᄀᆞ 事ᄒᆞᆫ 極 善巧ᄂᆞ [令]ᄒᆡᄀᆞᆫ 二
讀ᄒᆞ제 誦ᄒᆞ제 受持ᄒᆞ제 正作意를 修ᄒᆞ제 ᄒᆞ아금 蘊 다ᄒᆞᆫ 事아기 極 善巧ᄒᆞ이며 두블의귄

他師敎ᄒᆡᄀᆞᆨ 謂ᄀᆞ 所ᄀᆞ 大師ᄆᆞ 鄔波柁耶ᄂᆞ 阿遮利耶ᄂᆞᄂᆞᄆᆞᄅᆞ [於]時時間ᄒᆞᆫ 敎授敎誡ᄂᆞᄆᆞᄉᆞᆫᄒᆞ
他師敎인 닐온 바ᄂᆞᆫ 大師잉 鄔波柁耶여 阿遮利耶여 ᄒᆞᆷ이 時時間아기 敎授敎誡ᄒᆞᆷ ᄃᆞᆯ

依ᄒᆞ 攝受 依止ᄂᆞᄆᆞᄉᆞᆨᄂᆡ
븥어 攝受 依止ᄒᆞᆷ디다

<25,10-,17>
又 正加行ᄆᆞ 作意思惟ᄂᆞᄆᆞᄉᆞᆫᄂᆞᆫ 當ᄒᆞ 知ᄀᆞᆡ 是ᄂᆞᆫ 名ᄒᆞ 第三 方便ᄉᆞᄂᆞᄒᆡᄀᆞᆨᄃᆞ 此 正加行ᄆᆞ 作意
또 正加行ᄋᆞ로 作意思惟홇ᄃᆞᆯ 반ᄃᆞ기 알오다 이ᄅᆞᆯ 일하 第三 方便여 호리인뎌 이 正加行ᄋᆞ로 作意

思惟ᄂᆞᄆᆞᄉᆞᆫᄂᆞᆫ 名ᄒᆞ 正加行ᄉᆞᄂᆞᄒᆞᆡ 此 中ᄒᆞᆫ 義ᄅᆡᄆᆞᄉᆞᆨᄀᆞ[者] 謂ᄀᆞ 尸羅淨ᄒᆞᆫ 有ᄂᆡᄀᆞ 所ᄂᆡ
思惟홇 ᄃᆞᆯ 일하 正加行여 호리다 이 中앗 義일 ᄃᆞᆫ 닐온 尸羅淨아기 이슨 밧

作意ᄂᆞᆫ 名ᄒᆞ 正加行 作意思惟ᄉᆞᄂᆞᄆᆞᄉᆞ 彼ᄀᆞ 自ᄆᆞ 尸羅淸淨ᄂᆞᆫ 思惟ᄂᆞᄀᆞᄉᆞᆨᄆᆞ 故ᄂᆞ 悔惱ᄂᆞᄆᆞ 无ᄀᆞ
作意ᄅᆞᆯ 일하 正加行 作意思惟여 홇여 뎌는 저로 尸羅淸淨ᄋᆞᆯ 思惟ᄒᆞᆫ ᄃᆞ로 故호 悔惱홇 없으며

悔惱ᄂᆞᄆᆞ 无ᄂᆞᄀᆞᄉᆞᆨᄆᆞ 故ᄂᆞ 便ᄂᆞ 歡喜ᄂᆞᆫ 生ᄅᆡᄀᆞ 廣ᄅᆡ 說ᄆᆞ 乃ᄋᆞ 至ᄅᆡ 心ᄅᆡ 正定ᄒᆞᆫ ᄉᆞᄂᆞᄒᆡᄆᆞᄆᆞ
悔惱홇 无ᄒᆞᆫ ᄃᆞ로 故호 便호 歡喜ᄅᆞᆯ 나이며 넙이 니ᄅᆞᆷ 니를이사 ᄆᆞᅀᆞᆷ이 正定아기 入ᄒᆞ리라

是故ᄆᆞ 此 正加行作意思惟ᄂᆞᆫ 宣說ᄂᆞᆫᄒᆞᆫ 名ᄒᆞ 心住方便ᄉᆞᄂᆞᄒᆞᆡ 是[如]ᄒᆞᆫᄂᆞᆫ 方便ᄂᆞᆫ [由]ᄋᆞᄀᆞᄉᆞᆨᄆᆞ
是故로 이 正加行作意思惟ᄅᆞᆯ 宣說ᄒᆞ아 일하 心住方便여 호리다 이 다ᄒᆞᆫ 方便ᄋᆞᆯ 쁜ᄃᆞ로

故ᄂᆞ 心 速ᄅᆡ 安住ᄂᆞᄒᆞᄉᆞᆨᄒᆞᆡ
故호 ᄆᆞᅀᆞᆷ 샐ᄅᆞ이 安住ᄒᆞ겸ᄉᆞ다

<25,18-26,02>
彼ᄀᆞ [於]ᄌᆞᆷᄂᆞᄀᆞ 時ᄉᆞᄂᆞᆫ 此 五因ᄒᆞ 二十種相ᄂᆞᆫ 由ᄒᆞᆫ 其 心ᄂᆞᆫ 攝持ᄂᆞᄒᆞᆫᄒᆞᄒᆞ[於]愛盡 寂滅ᄂᆞᄒᆞᄒᆞ
뎌는 ᄌᆞᆷᄒᆞᆫ 時여기 이 五因ᄉᆞ 二十種相ᄋᆞᆯ 블어 제 ᄆᆞᅀᆞᆷᄋᆞᆯ 攝持ᄒᆞ아금 愛盡 寂滅ᄒᆞᄂᆞᆺ

涅槃界ᄒᆞ 中ᄒᆞᆫ 善 安住ᄂᆞ [令]ᄅᆡᄒᆞ 復ᄒᆞ 退轉ᄂᆞᄆᆞ 无ᄒᆞᆸ 心ᄒᆞᆫ 驚怖ᄂᆞᄒᆞᆫᄒᆞᄒᆞ 謂ᄆᆞ 我ᄒᆞᄀᆞ 我ᄀᆞ
涅槃界ᄉᆞ 中아기 善 安住ᄒᆞ이하 復기 退轉홇 없제 ᄆᆞᅀᆞᆷ아기 驚怖ᄒᆞ아금 니ᄅᆞᆷ 나이 나ᄂᆞᆫ

今見[者] 何ᄀᆞ 所ᄒᆞᆫ 在ᄂᆞᄉᆞᄀᆞᄅᆡᄒᆞᆫᄃᆞᄅᆞᄂᆞᄆᆞ 无ᄒᆞᆸᄂᆞᄒᆞᄉᆞᆨᄒᆞᆡ[耶] 當ᄒᆞ [於]是 [如]ᄒᆞᆫ 心
今ᄀᆞ 何오 所아기 在ᄒᆞ건이앗고 홇 없제 ᄒᆞ겸ᄉᆞ다 반ᄃᆞ기 이 다히 ᄆᆞᅀᆞᆷ

安住ᄂᆞᄒᆞᆫ 時ᄉᆞᄂᆞᆫ 知ᄂᆞᄒᆞ[應]ᄒᆞᆫ 已ᄋᆞ 名ᄒᆞ 諦現觀ᄒᆞᆫ 入ᄂᆞᄉᆞᄀᆞᄐᆞᄂᆞᄒᆞᄅᆡᄀᆞᄐᆞ 是[如]ᄒᆞᆫᄂᆞᄀᆞᄂᆞ
安住ᄒᆞᄂᆞᆺ 時여기 知홈ᄉᆞ다 이믜사 일하 諦現觀아기 入ᄒᆞ건뎌 호리인뎌 이 다ᄒᆞᆫ올

名下 聖諦現觀ᄒᆞ十 入ᄂᆞᆫᄃᆡ 丁ᄂᆞᆺᄒᆡ 又 此 聖諦現觀ᄒᆞᆫ 義ᄀᆡ 廣ᄒᆡ 說ᄆᆞᆯᄉᆞᆫᄀᆡ 知ᄂᆞᄒᆞᆷ [應]ᄒᆞᆫᄃᆡ
일하 聖諦現觀아기 入ᄒᆞ건뎌 호리다 또 이 聖諦現觀ᄉᆞ 義는 넙이 니롫 ᄃᆞᆫ 知홈ᄉᆞ다

謂ᄀᆡ 心厭患相ᄒᆞ十 二十種 有ᄒᆞᆫᄀᆞᆺ 心 安住相ᄒᆞ十 亦 二十種ᄒᆡᄀᆞᆫᄂᆞᆫ 此ᄂᆡ 除ᄆᆞᆫᄀᆞᆯ 更ᄒᆞ 若過ᄂᆞᆼᄒᆞ
닐온 心厭患相아기 二十種 이스며 ᄆᆞᅀᆞᆷ 安住相아기 또 二十種인여 이롤 덜고ᄂᆞᆫ 가시아 若過ᄒᆞ제

若增ᄂᆞᆼᄒᆞᄂᆞᆫ 无ᄂᆞᆫᄀᆡᄒᆡᄀᆞᆫ
若增ᄒᆞ제 ᄒᆞᆫ 无ᄒᆞᆫ인뎌

<26,03-,09>
[云]何ᄂᆞᆫᄀᆡᄂᆡ 聖諦現觀ᄒᆞ十 入ᄆᆞᆫ 已ᄒᆞᄂᆞᆫ 諸 障导ᄂᆡ 離ᄂᆞᆼᄆᆞᆫᄋᆞᆨᄒᆡᄂᆞᄉᆞᆫᄆᆞ 當ᄒᆞ 知ᄒᆞᆫᄃᆡ 此
엇ᄒᆞᆫ올 聖諦現觀아기 드륨 이믜사 ᄒᆞ아 모ᄃᆞᆫ 障导ᄅᆞᆯ 離ᄒᆞᆶ디다 호리고 반ᄃᆞ기 알오다 이

障ᄒᆞ十 略ᄆᆞᆫᄀᆡ 二種 有ᄋᆞᄂᆞᆫᄀᆡᄒᆡᄀᆞᆫ (ᄂᆞᆫ상 ᄂᆞᆫᄀᆡᄒᆡᄀᆞᆫ) 一 行處障ᄉᆞ 二 住處障ᄉᆞᄒᆡᄂᆡ
障아기 略콘 二種 잇 ᄒᆞᆫ인뎌 (ᄂᆞᆫ상 ᄉᆞᄒᆞᆫ인뎌) 一 行處障과 二 住處障과이다

行處障ᄒᆡᄂᆞᆫᄀᆞᆫᄀᆡ[者] 謂ᄀᆡ 聖弟子 [如]ᄒᆞᄂᆞᆫᄀᆞᆫᄒᆡ 或 衆ᄂᆡ 與ᄒᆞᆫ 同居ᄂᆞᄒᆞ 其 生起ᄂᆞᆫ
行處障이다 ᄒᆞᆫ ᄃᆞᆫ 닐온 聖弟子 다ᄒᆞᆫ 이 或 衆올 다ᄆᆞᆺ 同居ᄒᆞ아 제 生起ᄒᆞᆫ

僧所作事ᄂᆡ 隨ᄂᆞ 善品ᄂᆡ 棄捨ᄂᆞᆫᄆᆞ 數ᄒᆡ 衆會ᄂᆡ 與ᄒᆞᆫᄂᆞᆫᄀᆞ 或 復 常乞食法ᄒᆞ十 安住ᄂᆞᄒᆞ 而ᄆᆞᆷ
僧所作事ᄅᆞᆯ 좇오 善品을 棄捨ᄒᆞ고 數이 衆會ᄅᆞᆯ 다ᄆᆞᆺᄒᆞ며 或 또 常乞食法아기 安住ᄒᆞ아 而로

飮食ᄂᆡ 愛重ᄂᆞᆫᄀᆞ 或 二處ᄂᆡ 兼ᄂᆞᄒᆞ 好樂ᄂᆞᄒᆞᄉᆞᆷ 衣鉢 等ᄂᆞᆫᄀᆡ 事ᄂᆡ 營爲ᄂᆞᆫᄀᆞ 或 經典ᄂᆡ 讀ᄂᆞᆼᄒᆞ
飮食을 愛重ᄒᆞ며 或 二處를 兼ᄒᆞ아 好樂ᄒᆞ아금 衣鉢 다ᄒᆞᆫ 事ᄅᆞᆯ 營爲ᄒᆞ며 或 經典을 讀ᄒᆞ제

誦ᄂᆞᆼᄒᆞᄂᆞᆫ [爲]ᄉᆞᆫᄂᆞᆫᄋᆞᆨ十 而ᄆᆞᆷ 談話ᄂᆡ 好樂ᄂᆞᆫᄀᆞ
誦ᄒᆞ제 ᄒᆞ과 호리기 而로 談話ᄅᆞᆯ 好樂ᄒᆞ며

<26,09-,14>
或 夜分ᄒᆞ十 居ᄂᆞᄒᆞᆫᄀᆞ 而ᄆᆞᆷ 睡眠ᄂᆡ 樂着ᄂᆞᆫᄀᆞ 或 晝分ᄒᆞ十 居ᄂᆞᄒᆞᆫᄀᆞ 王賊 等ᄂᆞᆫᄀᆡ 雜染言論ᄂᆡ

或 夜分아기 居ᄒᆞ아ᄂᆞᆫ 而로 睡眠을 樂着ᄒᆞ며 或 晝分아기 居ᄒᆞ아ᄂᆞᆫ 王賊 다ᄒᆞᆫ 雜染言論ᄋᆞᆯ

樂ᄂᆞᆫᄀᆞ 或 [於]是 處ᄋᆞᆫ+ 親戚交遊ㅅ 談謔ㅅ 等ᄂᆞᆫᄇᆡ [有]ㅣᄉᆞᆫ 住ᄂᆞᆫᄃᆞᄒᆞ 而ᄆᆞ [於]是 處ᄋᆞᆫ+ 遠離ᄒᆞ
樂ᄒᆞ며 或 이 곧아기 親戚交遊여 談謔여 다ᄒᆞᄂᆞ 두아 住ᄒᆞ아금 而로 이 곧아기 遠離를

樂ᄆᆞ 不ᄉᆞᆼᄂᆞᄆᆞᆷ 謂ᄀᆞ 長夜ᄋᆞᆫ+ 數習ᄂᆞᆫᄃᆞᄒᆞ 彼ᄒᆞ 與ᄇᆡ 共居ᄂᆞᄇᆡᄇᆡ 增上力ᄆᆞ 故ᄂᆞᆫᄀᆞ 或 復
즐깋 안ᄃᆞᆯ 홇더 닐온 長夜아기 數習ᄒᆞ아금 더를 다ᄆᆞ 共居호ᄂᆞ 增上力ᄋᆞ로 故호 ᄒᆞ제 或 ᄯᅩ

樂ᄀᆞ 二ᄉᆞ 第ᄃᆡᄌᆞᄒᆞ 與ᄇᆡ 共住ᄂᆞᆫᄀᆞᆫᄀᆞᆫᄂᆞᄆᆞ 諸ᄀᆞ 是 [如]ᄒᆞ 等ᄂᆞᆫᄀᆞᄒᆞ 名ᄒᆞ 行處障ㅅᄂᆞᄒᆡ
즐기오 二음 第ᄉᆡᄌᆞ를 다ᄆᆞ 共住ᄒᆞ제 ᄒᆞ며 홇 모더 이 다히 다ᄒᆞᆫ올 일하 行處障여 호리다

<26,14-,19>
住處障ㅣᄂᆞᆫᄀᆞᄉᆞᆫᄀᆞ [者] 謂ᄀᆞ 空閑ᄂᆞᆫᄀᆞᄀᆞᆫ+ 處ᄂᆞᆫᄋᆞ 奢摩他ㅅ 毘鉢舍那ㅅᄂᆞᄆᆞᄒᆞ 修ᄂᆞᄆᆞᄉᆞᆫᄂᆞᄒᆞ 摠ᄀᆞ
住處障이다 ᄒᆞᆫ ᄃᆞᆫ 닐온 空閑ᄒᆞᆫ이기 處ᄒᆞ아 奢摩他여 毘鉢舍那여 홇올 修홇 ᄃᆞᆯ 摠히

名ᄒᆞ [爲]住ㅅᄂᆞᄆᆞᄉᆞ 奢摩他ㅅ 毘鉢舍那ㅅᄂᆞᄆᆞᄒᆞ 依ᄒᆞ 當ᄉᆞ 知ᄀᆞᄒᆡ 復 四種障ᄅᆞ 有ᄂᆞᆫᄀᆞᄀᆞᄀᆞᄃᆡ
일하 住여 홇여 奢摩他여 毘鉢舍那여 홇올 븥어 반ᄃᆞ기 알오다 ᄯᅩ 四種障ᄅᆞ 有ᄒᆞᆫ인뎌

一十ᄀᆞ 毘鉢舍那支ᄋᆞᆫ+ 不隨順ᄂᆞᆫᄀᆞ 性ㅅ 二 奢摩他支ᄋᆞᆫ+ 不隨順ᄂᆞᆫᄀᆞ 性ㅅ 三 彼 俱品
ᄒᆞᄃᆞ나긴 毘鉢舍那支아기 不隨順ᄒᆞᆫ 性과 두블의긘 奢摩他支아기 不隨順ᄒᆞᆫ 性과 세희긘 뎌 俱品

念ᄋᆞᆫ+ 不隨順ᄂᆞᆫᄀᆞ 性ㅅ 四 處所ᄋᆞᆫ+ 不隨順ᄂᆞᆫᄀᆞ 性ㅅᄇᆡㅣ
念아기 不隨順ᄒᆞᆫ 性과 네희긘 處所아기 不隨順ᄒᆞᆫ 性과이다

<26,19-27,03>
若 已ᄒᆞᆫ 謂ᄋᆞᄒᆞ 聰明ᄂᆞᄀᆞᄇᆡᄋᆞᄒᆡᄂᆞᆫᄋᆞ 而ᄆᆞ 高擧ᄒᆞ 生ᄇᆡᄋᆞᄒᆞ 他ᄒᆞ 從ᄇᆡ 觀ᄋᆞᆫ+ 順ᄂᆞᆫᄀᆞ 正法ᄒᆞ
若 저의ᄅᆞᆯ 니ᄅᆞ아금 聰明ᄒᆞᆫ이앗다 ᄒᆞ아 而로 高擧를 나이아금 他ᄅᆞᆯ 좃 觀아기 順ᄒᆞᆫ 正法을

聞ᄆᆞ 不ᄉᆞᆼᄂᆞᄆᆞᄉᆞᆫᄒᆞ 是ᄒᆞ 名ᄒᆞ 毘鉢舍那支ᄋᆞᆫ+ 不隨順ᄂᆞᆫᄀᆞ 性ㅅᄂᆞᄒᆞᄀᆞ 若 身語意行ᄒᆞ 安靜
듣읋 안ᄃᆞᆯ홇 ᄃᆞᆯ 이ᄅᆞᆯ 일하 毘鉢舍那支아기 不隨順ᄒᆞᆫ 性여 호리며 若 身語意行올 安靜

不ᄒᆞᆫᄃᆞᄒᆞᆷ 躁動輕擧ᄒᆞᆫᄃᆞᆯ 數ᄇᆡ 尸羅ᄒᆞ 犯ᄒᆞᆫᄃᆞᄒᆞᆷ 憂悔等ᄒᆞᄀᆞᄒᆞ 生ᄒᆡᄒᆞᆯ 乃ᅀᅵ 至ᄇᆡ 得ᄒᆞᆷ 心 善 安住
안ᄃᆞᆨᄒᆞ아금 躁動輕擧ᄒᆞ아 數이 尸羅ᄅᆞᆯ 犯ᄒᆞ아금 憂悔 다ᄒᆞᆫᄋᆞᆯ 나이졔 니를이사 시러금 心 善 安住

不ᄒᆞᆫᄃᆞᄒᆞᆫᄑᆞᆨᄉᆞᆫᄒᆞ 當ᄒᆞ 知ᄒᆞᆼᄋᆡ 是ᄒᆞ 名ᄒᆞᆫ 奢摩他支ᄒᆞᆯᄉᆞᆸ 不隨順ᄒᆞᆫᄀᆞ 性ᄉᆞᆫᄒᆞᄀᆞᄒᆡᄀᆞᄀᆞᆼ 若 有ᄂᆞᆫᄋᆡ
안ᄃᆞᆨᄒᆞ졔 홇 ᄃᆞᆯ 반ᄃᆞ기 알오다 이ᄅᆞᆯ 일하 奢摩他支아지 不隨順ᄒᆞᆫ 性여 호리인뎌 若 잇겨다

忘念 增上力ᄆᆞᆫ 故ᄂᆞᆫ [於]沈掉 等ᄒᆞᆫᄀᆞ 諸 隨煩惱ᄒᆞᆯᄉᆞᆸ 心ᄒᆞ 遮護 不ᄒᆞᆫᄂᆞᄒᆞᆫᄉᆞᆫ 當ᄒᆞ 知ᄒᆞᆼᄋᆡ 是ᄒᆞ
忘念 增上力ᄋᆞ로 故ᄒᆞᆫ 沈掉 다ᄒᆞᆫ 모ᄃᆞᆫ 隨煩惱아지 ᄆᆞᅀᆞᆷᄋᆞᆯ 遮護 안ᄃᆞᆨᄒᆞ겨리여 반ᄃᆞ기 알오다 이ᄅᆞᆯ

名ᄒᆞᆫ 彼 俱品念ᄒᆞᆯᄉᆞᆸ 不隨順ᄒᆞᆫᄀᆞ 性ᄉᆞᆫᄒᆞᄀᆞᄒᆡᄀᆞᄀᆞᆼ
일하 뎌 俱品念아지 不隨順ᄒᆞᆫ 性여 호리인뎌

<27,03-,09>
若 有ᄂᆞᆫᄋᆡ 五失 相應ᄒᆞᆫᄀᆞ 諸 坐臥具ᄒᆞᆫ 習近ᄒᆞᆫᄂᆞᄒᆞᆫᄉᆞᆫ 當ᄒᆞ 知ᄒᆞᆼᄋᆡ 是ᄒᆞ 名ᄒᆞᆫ 處所ᄒᆞᆯᄉᆞᆸ
若 잇겨다 五失 相應ᄒᆞᆫ 모ᄃᆞᆫ 坐臥具ᄅᆞᆯ 習近ᄒᆞ겨리여 반ᄃᆞ기 알오다 이ᄅᆞᆯ 일하 處所아지

不順隨ᄒᆞᆫᄀᆞ 性ᄉᆞᆫᄒᆞᄀᆞᄒᆡᄀᆞᄀᆞᆼ 或 [於]晝分ᄒᆞᆯᄉᆞᆸᄀᆞ 諸 諠逸 多ᄀᆞᆷ [於]夜分中ᄒᆞᆯᄉᆞᆸᄀᆞ 蚊虻等ᄒᆞᆫᄀᆞ 衆苦ᄆᆞᆫ
不順隨ᄒᆞᆫ 性여 호리인뎌 或 晝分아긘 모ᄃᆞᆫ 諠逸 하며 夜分中아긘 蚊虻 다ᄒᆞᆫ 衆苦로

觸ᄂᆞᆫᄀᆞ 所 多ᄀᆞᆷ 又 怖畏 多ᄒᆞᆯ 諸 災厲 多ᄒᆞᆫᄀᆞᆷ 衆具 匱乏ᄒᆞᆫᄃᆞᄒᆞᆷ 愛樂ᄂᆞᆷᄑᆞ 可ᄒᆞᆫᄂᆞᆫᄀᆞ 不ᄋᆞᆺᄀᆞᆷ
觸ᄒᆞᆫ 바 하며 ᄯᅩ 怖畏 하졔 모ᄃᆞᆫ 災厲 하졔 ᄒᆞ며 衆具 匱乏하아금 愛樂홈짓 ᄒᆞᆫ 안디며

惡友ᄅᆞᆯ 攝持ᄂᆞᆫᄀᆞᄒᆡᄆᆞᆷ 諸 善友 無ᄀᆞᆷᄂᆞᆫᄑᆞᆨᄋᆞᆺᄋᆡ 諸ᄅᆞᆯ 是 [如]ᄒᆞᆯ 等ᄒᆞᆫᄀᆞᄒᆞᆫ 名ᄒᆞᆫ 住處障ᄉᆞᆫᄒᆞᄀᆞᄒᆡ
惡友이 攝持ᄒᆞᆫ이라 모ᄃᆞᆫ 善友 없으며 홇다다 모다 이 다히 다ᄒᆞᆫᄋᆞᆯ 일하 住處障여 호리다

<27,09-,16>
又 此 二障ᄒᆞᆯᄉᆞᆸ 當ᄒᆞ 知ᄒᆞᆼᄋᆡ 摠ᄆᆞᆨᄀᆞ 二種 因緣ᄇᆡ 能ᄀᆞᆷ 遠離ᄇᆡᄑᆞ [爲]ᄉᆞᆫᄂᆞᆫᄉᆞᆷ 有ᄂᆞᆫᄀᆞᄒᆡᄀᆞᄀᆞᆼ
ᄯᅩ 이 二障아지 반ᄃᆞ기 알오다 摠콘 二種 因緣이 能며 遠離잃 ᄃᆞᆯ ᄒᆞ리 有ᄒᆞᆫ인뎌

一ᄒᆞᆫᄀᆞ 多諸定樂ᄉᆞᆺ 二 多諸恩擇ᄉᆞᆺᄇᆡᄋᆡ 多諸定樂ᄒᆞᆯᄉᆞᆸ 知ᄂᆞᆷᄑᆞ [應]ᄒᆞᆫᄋᆡ 略ᄆᆞᆨᄀᆞ 六種 有ᄂᆞᆫᄀᆞᄒᆡᄀᆞᄀᆞᆼ
ᄒᆞᄃᆞ나긘 多諸定樂과 두블의긘 多諸恩擇과이다 多諸定樂ᄋᆞ기 知홈ᄉᆞ다 略콘 六種 有ᄒᆞᆫ인뎌

謂ㄱ 若 有ナㅣ 已ᄒᆞ 三摩地ㄴ 得ᄒᆞㄱㅗ 而ㄱ 圓滿 未ㅢᄂᆞᄒᆞ 自在ᄂᆞㄱ入ㄴ 得尸
닐온 若 잇겨다 이믜사 三摩地ᄅᆞᆯ 얻언여 而는 圓滿 아니ᄒᆞ제 自在ᄒᆞᆫ ᄃᆞᆯ 얻읋

未ㅢᄂᆞᄒᆞᄂᆞナㄱ ㅢㅗ 彼ㄱ 止 擧 捨ㄷ 三種 善巧ㄴ 修習ᄂᆞᄒᆞᄉᆞ 此ㄴ 由ᄒᆞ 多ㅢㄱ 諸 定樂ㄴ
안이ᄒᆞ제 ᄒᆞ견이여 뎌는 止 擧 捨ㅅ 三種 善巧ᄅᆞᆯ 修習ᄒᆞ아금 이ᄅᆞᆯ 븥어 하인 모ᄃᆞᆫ 定樂ᄋᆞᆯ

發生ᄂᆞᄉᆞ [應]ㄷᄂᆞᄀᆞ 若 有ナㅣ [於]三摩地ᄒᆞ十 已ᄒᆞ 得ᄉᆞ 圓滿ᄂᆞᄒᆞ 亦 自在ㄴ 得ᄒᆞᄂᆞナㄱ ㅢㅗ
發生ᄒᆞᆷㅅ ᄒᆞ며 若 잇겨다 三摩地아기 이믜사 시러금 圓滿ᄒᆞ제 ᄯᅩ 自在ᄅᆞᆯ 얻제 ᄒᆞ견이여

彼ㄱ 入 住 出定ㄷ 三種 善巧ㄴ 修習ᄂᆞᄒᆞᄉᆞ 此ㄴ 由ᄒᆞ 多ㅢㄱ 諸 定樂ㄴ 發生ᄂᆞᄉᆞ [應]ㄷㅣ
뎌는 入 住 出定ㅅ 三種 善巧ᄅᆞᆯ 修習ᄒᆞ아금 이ᄅᆞᆯ 븥어 하인 모ᄃᆞᆫ 定樂ᄋᆞᆯ 發生ᄒᆞᆷㅅ다

<27,16-,21>
[云]何ᄂᆞㄱㄴ 名下 [爲]多諸思擇ㅢㅣㄴᄉᆞㅁㅁ 謂ㄱ 勝善慧ㄴ 名下 [爲]思擇ㅗㄴᄆᆞㅗ 此 慧ㄴ
엇ᄒᆞᆫᄋᆞᆯ 일하 多諸思擇이다 호리고 닐온 勝善慧ᄅᆞᆯ 일하 思擇여 흫여 이 慧ᄅᆞᆯ

[由]ᄒᆞㄱ入ㅱ 故ㄴ [於]晝夜分ᄒᆞ十 自己ㅋ [有]ㅂㄴㄱ 所ㄷ 善法 增長ᄂᆞㅏㄴㄱ入ㄴ 實 [如]ᄒᆞ
ᄲᅳᆫ ᄃᆞ로 故ᄒᆞ 晝夜分아기 自己ᄋᆡ 두ᄒᆞᆫ 밧 善法 增長ᄒᆞ누 ᄒᆞᆫᄃᆞᆯ 實 다히

了知ᄂᆞᄒᆞ 不善法 增長ᄂᆞㅏㄴㄱ入ㄴ 實 [如]ᄒᆞ 了知ᄂᆞᄒᆞᄂᆞᄒᆞ 善法 衰退ᄂᆞㅏㄴㄱ入ㄴ 實 [如]ᄒᆞ
了知ᄒᆞ제 不善法 增長ᄒᆞ누 ᄒᆞᆫᄃᆞᆯ 實 다히 了知ᄒᆞ제 ᄒᆞ며 善法 衰退ᄒᆞ누 ᄒᆞᆫ ᄃᆞᆯ 實 다히

了知ᄂᆞᄒᆞ 不善法 衰退ᄂᆞㅏㄴㄱ入ㄴ 實 [如]ᄒᆞ 了知ᄂᆞᄒᆞᄂᆞᄒᆞ
了知ᄒᆞ제 不善法 衰退ᄒᆞ누 ᄒᆞᆫ ᄃᆞᆯ 實 다히 了知ᄒᆞ제 ᄒᆞ며

<27,21-28,03>
又 彼ㄱ [於]晝夜ᄒᆞ十 若 行ᄂᆞᄀᆞ 若 住ᄂᆞᄀᆞ 衣服ㅗ 飮食ㅗ 命緣ㅗㄴᄆᆞㅗ 習近ㄴㄱ入ㄴ [如]ㅏ
ᄯᅩ 뎌는 晝夜아기 若 行ᄒᆞ나 若 住ᄒᆞ나 衣服여 飮食여 命緣여 흫ᄋᆞᆯ 習近ᄒᆞᆫ ᄃᆞᆯ 곧기

習近ᄂᆞㄱ入ㄴ [由]ᄒᆞㄱ入ㅱ 故ㄴ 不善法 增長ᄂᆞᄒᆞ 善法 衰退ᄂᆞᄒᆞ 或 善法 增長ᄂᆞᄒᆞ 不善法
習近ᄒᆞᆫ ᄃᆞᆯ ᄲᅳᆫ ᄃᆞ로 故ᄒᆞ 不善法 增長ᄒᆞ제 善法 衰退ᄒᆞ제 或 善法 增長ᄒᆞ제 不善法

衰退ᄒᆞᄆᆞᄉᆞᄐᆞᄂᆡᄀᆡ ᄉᆞᆫᆞᆫ 皆實 [如]ᄒᆞᆫ 了知ᄂᆞᆫᄀᆞᆯ 卽 此 思擇ᄒᆞᆫ 依止 [爲]ᄒᆞᄀᆡ ᄉᆞᆷ 故ᄂᆡ [於]生起ᄂᆞᆫᄀᆞ
衰退ᄒᆞᆫ제 ᄒᆞ누 ᄒᆞᆫ ᄃᆞᆯ 皆實 다히 了知ᄒᆞ며 卽 이 思擇ᄋᆞᆯ 依止 삼ᄋᆞᆫ ᄃᆞ로 故호 生起ᄒᆞᆫ

所ᄒᆞᆫ 諸 不善法ᄋᆞᆫᄀᆞᆯ 不堅着ᄂᆞᆫᄀᆞᄉᆞᆫ 由ᄋᆞᆫ 方便道理ᄆᆞᆷ 駈擯遠離ᄂᆞᆫᄆᆞᄒᆞᆷ [於]諸 善法ᄋᆞᆫᄀᆞᆯ 能ᄀᆞᆫ 勤ᄒᆞᆫ
밧 모ᄃᆞᆫ 不善法아기 不堅着ᄒᆞᆫ ᄃᆞᆯ 븥어 方便道理로 駈擯遠離ᄒᆞᆫ제 모ᄃᆞᆫ 善法아기 能며 브즈런

修習ᄂᆞᆫᄆᆞᄂᆞᆫᄇᆞᆨᄉᆞᄋᆡ
修習ᄒᆞᆫ제 ᄒᆞᆷ디다

<28,04-,08>
是 [如]ᄒᆞᆫᄂᆞᆯ 二處ᄒᆞᆫ 十種 善巧ᄀᆞᆯ [於]二處所ᄋᆞᆫᄀᆞᆯ 十一種 障ᄒᆞᆫ 能ᄀᆞᆫ 斷滅ᄂᆞᆫ [令]ᄇᆡᄒᆞ
이 다ᄒᆞᆫ 二處ᄉᆞᆫ 十種 善巧ᄂᆞᆫ 二處所아기 ᄒᆞᆫ 十一種 障ᄋᆞᆯ 能며 斷滅ᄒᆞ이하

生起ᄂᆞᆫᄀᆞ 所ᄒᆞᆫ 隨ᄂᆞᆫ 卽ᄀᆞᆼ 便ᄒᆞᆨ(ᄀᆞᆼ?) 遠離ᄂᆞᆫᄂᆞᄒᆞᄎᆞᄆᆞ 是 [如]ᄒᆞᆫᄂᆞᆫᄀᆞᄒᆞᆫ 名ᄒᆞᆫ [爲]遠離障导ᅀᆞᄂᆞᄒᆞᄋᆡ
生起ᄒᆞᆫ 바ᄅᆞᆯ 좇오 卽오 便의(오?) 遠離ᄒᆞᆫ겨리라 이 다ᄒᆞᆫᄋᆞᆯ 일하 遠離障导여 호리다

又 此 遠離障导ᄒᆞᆫ 義ᄀᆡ 廣ᄇᆡ 說ᄆᆞᄉᆞᆫᄀᆞ 知ᄂᆞᆼᄒᆞᆷ [應]ᄒᆞᆫᄃᆡ 說ᄂᆞᆫᄀᆞ 所ᄒᆞᆫ 相ᄒᆞᆫ 如ᄒᆞᄉᆞᆫᄀᆞᄉᆞᆫᄇᆞᆨ 此ᄒᆞᆫ
또 이 遠離障导ᄉᆞ 義는 넙이 니ᄅᆞᆷ ᄃᆞᆫ 知홈ᄉᆞ다 說ᄒᆞᆫ 밧 相ᄋᆞᆯ ᄀᆞᆫ기 ᄒᆞᆫ여 이ᄅᆞᆯ

除ㅁ斤 更ᄋᆞᆷ 若過ᄂᆞᆷᄒᆞ 若增ᄂᆞᆷᄒᆞᄂᆞᆫᄀᆞ 无ᄂᆞᆫᄀᆞᄇᆡᄀᆞᄀᆞ
덜고는 가ᄉᆡ아 若過ᄒᆞᆫ제 若增ᄒᆞᆫ제 ᄒᆞᆫ 无ᄒᆞᆫ인며

<28,09-16>
[云]何ᄂᆞᆫᄀᆞᆫᄂᆞᆫ 聖諦現觀ᄋᆞᆫᄀᆞᆯ 入ᄆᆞ 已ᄒᆞᄂᆞᄋᆞᆫᄉᆞ 速疾通慧ᄂᆞᆫ 證得ᄂᆞᆫ [爲欲]ᄉᆞᆫ 諸 歡喜事ᄂᆞᆫ 作意
엇ᄒᆞᆫᄋᆞᆯ 聖諦現觀아기 드ᄅᆞᆷ 이믜사 ᄒᆞ아ᄂᆞᆯ 速疾通慧를 證得ᄒᆞ과 모ᄃᆞᆫ 歡喜事ᄅᆞᆯ 作意

思惟ᄂᆞᆫᄆᆞᄉᆞᄋᆡᄂᆞᄉᆞㅁ 謂ᄀᆞ 聖弟子ᄇᆡ 已ᄒᆞ 聖諦ᄂᆞᆫ 見ᄂᆞᆷᄒᆞ 已ᄒᆞ 證淨ᄂᆞᆫ 得ᄒᆞᄂᆞᆫᄋᆞᆫ 卽ᄀᆞᆼ 證淨ᄂᆞᆫ
思惟홈디다 호리고 닐온 聖弟子이 이믜사 聖諦를 見ᄒᆞᆫ제 이믜사 證淨을 얻제 ᄒᆞ아 卽오 證淨을

[以]ᄒᆞ 依止 [爲]ᄒᆞᄀᆞᆯ 入ᄆᆞ 故ᄂᆡ [於]佛法僧ᄇᆡᄀᆞ 勝功德田ᄋᆞᆫᄀᆞ 作意思惟ᄂᆞᆫᄀᆞᄒᆞ 歡喜ᄂᆞᆫ 發生ᄂᆞᆫᄀᆞ 又
ᄡᅳ아 依止 삼ᄋᆞᆫ ᄃᆞ로 故호 佛法僧인 勝功德田아기 作意思惟ᄒᆞ아금 歡喜를 發生ᄒᆞ며 또

自ㅋ 增上生事ㅅ 及ㅌ 決定勝事ㅅ니 依ᄒᆞ노ᄆᆞㅁ 謂ㄱ 已ㅋ 身ㅡ 財寶ㅡ노ᄉᆞᆫㅅ 所證ㅅㅌ 盛事ᄒᆞ十
저의 增上生事와 밋 決定勝事와를 븥어 홇더 닐온 저의 몸여 財寶여 호리와 所證괏 盛事아기

作意思惟ㅅᄒᆞᄉᆞ 歡喜ㅣ 發生ㅅᄉᆞ 又 无嫉ㅅ노ᄆᆞ入ㅣ 依ᄒᆞ노ᄆᆞㅁ [於]自ㅋ 身ᄒᆞ十노ᄆᆞ入ㅣㅅㄱ
作意思惟ᄒᆞ아금 歡喜를 發生ᄒᆞ며 ᄯᅩ 无嫉홇 ᄃᆞᆯ 븥어 홇더 저의 몸아기 홇 ᄃᆞᆯ ᄒᆞᆫ

[如]ㅈ [於]他ㅋ十노ᄆᆞ 亦 亦ㅡㅅᄉᆞ
다히 他이기 홇 ᄯᅩ 亦여 ᄒᆞ며

<28,16-22>
又 知恩노ᄆᆞ入ㅣ 依ᄒᆞ노ᄆᆞㅁ 謂ㄱ 有恩ㅅㅌㅊ 者ㅋ十 大師ㅋ 恩ㅣ 念ㅅᄒᆞᄉᆞ 作意思惟ㅅᄒᆞ 歡喜ㅣ
ᄯᅩ 知恩홇 ᄃᆞᆯ 븥어 홇더 닐온 有恩ᄒᆞᄂᆞᆮ 者이기 大師이 恩을 念ᄒᆞ아금 作意思惟ᄒᆞ아 歡喜를

發生ㅅᄉᆞᄆᆞ노ㅡ 彼ㅣ 依ㅅㄱ入ㅣ [由]ᄒᆞㄱ入ㅱ 故ㅅ 衆苦ㅡ 及 與ㅌ 苦因ㅡ노ᄆᆞ니 遠離ㅅㅇㅁ
發生ᄒᆞ며 홇여 뎌를 依ᄒᆞᆫ ᄃᆞᆯ ᄇᆞᆫ ᄃᆞ로 故호 衆苦여 밋 다ᄆᆞᆺ 苦因여 홇을 遠離ᄒᆞ고

衆樂ㅡ 及 與ㅌ 樂因ㅡ노ᄆᆞ니 引發ㅅᄆᆞᄉᆞㅣ 是 [如]ㅈ 修道ᄒᆞ十 隨順ㅅㄱ 歡喜事ㅣ 思惟ㅅㄱ入ㅱ
衆樂여 밋 다ᄆᆞᆺ 樂因여 홇을 引發홇디다 이 다히 修道아기 隨順ᄒᆞᆫ 歡喜事를 思惟ᄒᆞᆫ ᄃᆞ로

故ㅅ 便ㅇ 能ㅎ 速疾通慧ㅣ 證得ㅅㄴㅎㅌㅣ 又 此 修道ᄒᆞ十 隨順ㅅㄱ 歡喜事ㅣ 思惟ㅅᄉᆞㅌ 義ㄱ
故호 便오 能며 速疾通慧를 證得ᄒᆞ겸ㅅ다 ᄯᅩ 이 修道아기 隨順ᄒᆞᆫ 歡喜事를 思惟ᄒᆞ릿 義는

廣ㅐ 說노入ㄱ 知ㅅㅎ [應]ㅌㅣ 說ㅅㄱ 所ㅌ 相ㅣ 如ㅎㅅㄱㅡ 此ㅣ 除ㅁ斤 更ᄒᆞ 若過ㅅᄒᆞ
넙이 니를 ᄃᆞᆫ 知홈ㅅ다 說ᄒᆞᆫ 밧 相을 ᄀᆞᆮ기 ᄒᆞ여 이를 덜고는 가ᄉᆡ아 若過ᄒᆞ졔

若增ㅅᄒᆞᄉᆞㅅㄱ 无ㅅㄱㅐㄱㅜ
若增ᄒᆞ졔 ᄒᆞᆫ 无ᄒᆞᆫ인뎌

<28,23-29,05>
[云]何ㅅㄱㅣ 得ㅅㄱ 所ㅣ [如]ㅎㅅㄱ 道ㅣ 修習ㅅᄆᆞ노ㅣㅅㅁㅁ 謂ㄱ 彼ㄱ 是 [如]ㅈ 生ㅅㄱ 所ㅌ

엇ᄒᆞᆯ　得ᄒᆞᆫ　바ᄅᆞᆯ　ᄀᆞᆮ기 ᄒᆞᆫ 道ᄅᆞᆯ 修習ᄒᆞᆶ다다 ᄒᆞ리고 닐ᄋᆞᆫ 뎌는 이 다히 生ᄒᆞᆫ 밧

廣大无罪歡喜ᄆᆞᆫ 其心ᄂᆞᆫ 溉灌ᄂᆞᆞᄒᆞᄉᆞ 究竟ᄂᆞᆫ 趣ᄂᆞ [爲]ㅅ [於]現法ᄋᆞᆫ 中ᄒᆞᆞᄉᆞᆫ 心 極 思慕ᄂᆞᄆᆞᆷ
廣大无罪歡喜로 제 ᄆᆞᅀᆞᆷᄋᆞᆯ 溉灌ᄒᆞ아ᄀᆞᆷ 究竟을 趣ᄒᆞ과　現法ㅅ 中아기 ᄆᆞᅀᆞᆷ 極 思慕ᄒᆞᆶ뎌

彼ᄀᆞ 是 [如]ᄒᆞᆫ 心ᄒᆞᆞᄉᆞᆫ 思慕ᄂᆞᆫ 生ᄒᆞᄀᆞᄉᆞᆫ 由ᄒᆞ 出離樂欲ᄂᆞᆫ 數數ᄒᆞ 現行ᄂᆞᆞᄒᆞᄉᆞ 謂ᄆᆞ 我ᄀᆞ
뎌는 이 다히 ᄆᆞᅀᆞᆷ아기 思慕ᄅᆞᆯ 나ᄋᆞᆫ ᄃᆞᆯ ᄇᆞᆮ어 出離樂欲ᄋᆞᆯ 數數ᄋᆡ 現行ᄒᆞ아ᄀᆞᆷ 니ᄅᆞᆷ 나ᄂᆞᆫ

何ㅅᄀᆞᆞᄆᆞᄂᆞᆨᄀᆞ 當ㅅ 能ᄀᆞ 具足ᄀᆞᆞ 是 [如]ᄒᆞᄂᆞᆨᄀᆞ 聖處ᄒᆞᄀᆞ 阿羅漢ᄀᆞ 所具足住 [如]ᄒᆞᄂᆞᄀᆞᄀᆞᆫ
何여 힗 ᄃᆞᆫ 반ᄃᆞ기 能며 具足히 이 다ᄒᆞᆫ　聖處ᄋᆡᆫ　阿羅漢ᄋᆡ 所具足住　다ᄒᆞᆫ이기

住ノᄒᆞᄀᆞᄒᆞᄒᆞᄒᆞᄂᆞᆫᄀᆞ
住ᄒᆞ린이앗고 ᄒᆞ며

<29,05-,08>
是 [如]ᄒᆞᆫ 欲樂ᄂᆞᆫ 生ᄒᆞᄆᆞ 已ᄒᆞᄂᆞᆞᄒᆞᄉᆞ 勤精進ᄂᆞᆫ 發ᄂᆞᆞᄒᆞᄉᆞ 无間常委ᄀᆞ [於]三十七 菩提分法ᄒᆞᆞᄉᆞᆫ
이 다히 欲樂ᄋᆞᆯ 나ᄋᆡᆭ 이믜사 ᄒᆞ아ᄂᆞᆯ 勤精進을 發ᄒᆞ아ᄀᆞᆷ 无間常委히　三十七 菩提分法아기

方便ᄆᆞ 勤修ᄂᆞᄀᆞ 又 彼ᄀᆞ 是 [如]ᄒᆞᆫ 勤精進ᄂᆞᄀᆞᄉᆞᄆᆞ 故ノ 在家ㅅ 出家ㅅノᄉᆞᆫᄋᆞᆫ 衆ᄂᆞᆫ 與ᄂᆞᆫ 相ᄀᆞ
方便ᄋᆞ로 勤修ᄒᆞ며 ᄯᅩ 뎌는 이 다히 勤精進ᄒᆞᆫ ᄃᆞ로 故ᄒᆞᆫ 在家여 出家여 ᄒᆞ릿 衆ᄋᆞᆯ 다ᄆᆞᆺ 서로

雜住ᄂᆞᆞᄆᆞ 不ᄉᆞᄂᆞᆞ 邊際ᄂᆞᆫ 諸 坐臥具ᄂᆞᆫ 習近ᄂᆞᆞᄒᆞᄉᆞ 心ᄒᆞᆞᄉᆞᆫ 遠離ᄂᆞᆫ 樂ᄀᆞ
雜住ᄒᆞᆶ 안ᄃᆞᆯᄒᆞ아　邊際ㅅ 모ᄃᆞᆫ 坐臥具를 習近ᄒᆞ아ᄀᆞᆷ ᄆᆞᅀᆞᆷ아기 遠離를 즐기며

<29,09-,13>
又 彼ᄀᆞ 是 [如]ᄒᆞᆫ 欲樂ᄂᆞᆫ 發生ᄂᆞᄒᆞᄒᆞ 勤精進ᄂᆞᆫ 發ᄂᆞᄒᆞᄒᆞ 遠離ᄂᆞᆫ 樂ᄒᆞᄂᆞᆞᄆᆞ 已ᄒᆞᄂᆞᆞᄂᆞᄆᆞ 喜足ᄂᆞᆫ 生ᄆᆞ
ᄯᅩ 뎌는 이 다히　欲樂ᄋᆞᆯ 發生ᄒᆞ제 勤精進을 發ᄒᆞ제 遠離를 즐기제 ᄒᆞᆶ 이믜사 ᄒᆞ고 喜足ᄋᆞᆯ 나ᄋᆡᆭ

不ᄉᆞᄂᆞᆞᄆᆞᄆᆞᆷ 謂ᄀᆞ [於]少分殊勝ᄂᆞᆞᄀᆞ 所證ᄒᆞᆞᄉᆞᆫ 心ᄒᆞᆞᄉᆞᆫ 喜足ᄂᆞᆞᄆᆞ 无ᄒᆞ [於]諸 善法ᄋᆡ 轉上ᄂᆞᄒᆞ
안ᄃᆞᆯᄒᆞᆶ뎌 닐ᄋᆞᆫ　少分殊勝ᄒᆞᆫ　所證아기 ᄆᆞᅀᆞᆷ아기 喜足ᄒᆞᆶ 없어　모ᄃᆞᆫ 善法이 轉上ᄒᆞ제

轉勝ᄂᆞᆯ 轉微妙ᄂᆞᆯᄂᆞᆫ 處ᄋᆞ十 悕求ᄂᆞᄋᆞᄒᆞ 而ᄆᆞ 住ᄂᆞᆫᄀᆞᆫᄎᆞᄆᆞ 此 四法ᄂᆞ 由ᄒᆞ 修道ᄂᆞ
轉勝ᄒᆞ제 轉微妙ᄒᆞ제 ᄒᆞᆫ 곧아기 悕求하아금 而로 住ᄒᆞ며 ᄒᆞ리라 이 四法ᄋᆞᆯ 븥어 修道ᄅᆞᆯ

攝受ᄂᆞᄋᆞᄒᆞ 極善攝受ᄂᆞᆫᄀᆞᄒᆞᄂᆡ
攝受ᄒᆞ아금 極善攝受ᄒᆞ겸ㅅ다

<29,13-,19>
卽ᄒᆞ 此 四種 修道ᄂᆞ 依 [爲]ᄒᆞᄋᆞ 先ᄒᆞ 說ᄂᆞᆫ 所ᄂᆡ 諸 歡喜事ᄒᆞ十 生ᄂᆞᆫ 所ᄂᆡ 歡喜ᄂᆞ 如ㅅ
卽오 이 四種 修道ᄅᆞᆯ 依 삼아 ᄆᆞᆫ지하 說ᄒᆞᆫ 밧 모ᄃᆞᆫ 歡喜事아기 生ᄒᆞᆫ 밧 歡喜ᄅᆞᆯ ᄀᆞᆮ기

彼ᄀᆞ [於]亦ᄂᆞᆫᄀᆞ 時ㅅ十 修得圓滿ᄉᆞᄅᆡᄀᆞᆫ 最極損減ᄉᆞᄅᆡᄀᆞᆫᄂᆡ 方便道理ᄆᆞ 煩惱ᄂᆞ 斷ᄂᆞᆫᄀᆞ ㅅᄆᆞ 故ᄀᆞᆫ
뎌는 亦ᄒᆞᆫ 時여기 修得圓滿ᄒᆞ이며 最極損減ᄒᆞ이릿 方便道理로 煩惱ᄅᆞᆯ 斷ᄒᆞᆫ ᄃᆞ로 故며

殊勝ᄂᆞᆫᄀᆞ 所證法ᄂᆞ 獲得ᄂᆞᆫᄀᆞ ㅅᄆᆞ 故ᄂᆞ 亦 喜悅ᄂᆞ 修得圓滿ᄂᆞᆫ[令]ᄅᆡᄀᆞᆫ 又 修所斷ᄂᆡ 惑品麤重ᄂᆞ
殊勝ᄒᆞᆫ 所證法ᄋᆞᆯ 獲得ᄒᆞᆫ ᄃᆞ로 故ᄒᆞᆫ ᄯᅩ 喜悅ᄋᆞᆯ 修得圓滿ᄒᆞ이며 ᄯᅩ 修所斷ㅅ 惑品麤重ᄋᆞᆯ

已ᄒᆞᄋᆞ 遠離ᄂᆞᆫᄀᆞ ㅅᄆᆞ 故ᄂᆞ 輕安ᄂᆞ 獲得ᄂᆞᆫᄀᆞᆫ 輕安ᄆᆞ 故ᄂᆞ 生ᄂᆞᆫ 身心 淸凉ᄆᆞ 攝受ᄂᆞᆫᄀᆞ
이믜사 遠離ᄒᆞᆫ ᄃᆞ로 故ᄒᆞᆫ 輕安ᄋᆞᆯ 獲得ᄒᆞ며 輕安ᄋᆞ로 故ᄒᆞᆫ 生ᄒᆞᆫ 身心 淸凉ᄋᆞ로 攝受ᄒᆞᆫ

極所ᄅᆡᄂᆞᄀᆞᆫ ᄅᆡᄆᆞ
極所이견이라

<29,19-30,01>
是 [如]ᄎᆞ 二種ᄂᆞ 修得圓滿ᄉᆞᄅᆡᄀᆞᆫ 又 此 有學ᄒᆞᄀᆞ 金剛喩定ᄅᆡ 究竟ᄒᆞ十 到ᄃᆞᄀᆞᆫᄆᆞ 故ᄂᆞ
이 다히 二種ᄋᆞᆯ 修得圓滿ᄒᆞ이며 ᄯᅩ 이 有學ᄋᆡ 金剛喩定이 究竟아기 到퀸 ᄃᆞ로 故ᄒᆞᆫ

修得圓滿ᄉᆞᄂᆞᆫᄀᆞᄂᆡ 是ᄂᆞ 名ᄒᆞ 得ᄂᆞᆨ 所ᄂᆞ [如]ᄒᆞᄂᆞᆨ 道ᄂᆞ 修習ᄂᆞᄋᆞᄀᆞᆨᄀᆞᄂᆞᄎᆞᄂᆡ 又 此 得ᄂᆞᆨ
修得圓滿ᄒᆞ이겸ㅅ다 이ᄅᆞᆯ 일하 得ᄒᆞᆫ 바ᄅᆞᆯ ᄀᆞᆮ기 ᄒᆞᆫ 道ᄅᆞᆯ 修習ᄒᆞ안뎌 호리다 ᄯᅩ 이 得ᄒᆞᆫ

所ᄂᆞ 如ᄒᆞᄂᆞᆨ 道ᄂᆞ 修習ᄂᆞᄉᆞᄂᆡ 義ᄀᆞ 廣ᄅᆡ 說ᄇᆞᄉᆞᆨᄀᆞ 知ᄂᆞᄒᆞ [應]ᄂᆡ 謂ᄀᆞ 四種法ᄂᆞ 依止
바ᄅᆞᆯ ᄀᆞᆮ기 ᄒᆞᆫ 道ᄅᆞᆯ 修習호릿 義는 넙이 니ᄅᆞᆷ ᄃᆞᆫ 知홈ㅅ다 닐온 四種法ᄋᆞᆯ 依止

[爲]ᄒᆞᆫᄭᅳᆺ 故ᄂᆞᆫ 能ᄒᆞ 五法ᄋᆞᆯ 修習圓滿ᄒᆞ[令]ᄆᆞᄅᆞᄆᆞᆫ 此ᄋᆞᆯ 除ᄒᆞ斤 更ᄋᆞ 若過ᄒᆞᄂᆞᆫ 若增ᄒᆞᄂᆞᆫᄀᆞ
삼은 ᄃᆞ로 故ᄒᆞᆫ 能며 五法을 修習圓滿ᄒᆞ잃여 이ᄅᆞᆯ 덜고ᄂᆞᆫ 가시아 若過ᄒᆞ제 若增ᄒᆞ제 ᄒᆞᆫ

无ᄂᆞᆫᄀᆞᄆᆞᆫᄀᆞ 丁
无ᄒᆞᆫ인뎌

<30,02-,05>
[云]何ᄂᆞᆫᄀᆞᄋᆞᆫ 極淸淨道ᄉᆞᆫ 及ᄒᆞᆫ 果功德ᄉᆞᆫᄋᆞᆫ 證得ᄂᆞᆫᄆᆞᄋᆞᆨᄂᆞᆫᄉᆞᆫᄒᆞᆫᄆᆞᆫ 謂ᄀᆞ [於]三位ᄆᆞᄀᆞ 樂位ᄉᆞᆫ
엇ᄒᆞᆫᄋᆞᆯ 極淸淨道와 밋 果功德과ᄅᆞᆯ 證得ᄒᆞᆷ디다 ᄒᆞ리고 닐은 三位인 樂位와

苦位ᄉᆞᆫ 不苦不樂位ᄉᆞᄋᆞᆫᄉᆞᆫ 諸 煩惱ᄋᆞᆨ[之] 隨眠ᄂᆞᆫᄆᆞ 所ᄋᆞᆫ 爲ᄒᆞᄂᆞᆫᄆᆞᄆᆞᆷ 二種 補特伽羅ᄋᆞᆨ 多分
苦位와 不苦不樂位와아기 모ᄃᆞᆫ 煩惱ᄋᆡ 隨眠ᄒᆞᆷ 바ᄅᆞᆯ 爲기 ᄒᆞᆷ디 二種 補特伽羅ᄋᆡ 多分

顯ᄂᆞᆫᄀᆞ 所ᄆᆞᄇᆞᆫ 有ᄂᆞᆨᄀᆞᄆᆞᄂᆡ 一十ᄀᆞ[者] 異生ᄉᆞᆫ 二者 有學ᄉᆞᆫᄆᆞᄂᆡ
顯ᄒᆞᆫ 바이ᄂᆞᆫ 잇견이다 ᄒᆞᄃᆞ나긘 異生과 두블의긘 有學과이다

<30,05-,13>
又 二種ᄒᆞᆫ 能發起ᄒᆞᆫ 雜染品 有ᄒᆞᄂᆡ 一十ᄀᆞ[者] 取雜染品ᄉᆞᆫ 二者 行雜染品ᄉᆞᆫᄆᆞᄂᆡ 卽 此 二
또 二種ᄉᆞ 能發起ᄉᆞ 雜染品 잇다 ᄒᆞᄃᆞ나긘 取雜染品과 두블의긘 行雜染品과이다 卽 이 二

雜染品ᄋᆞᆯ 斷ᄂᆞᆫ [爲]ᄉᆞᆫ 善說法ᄉᆞᆫ 毘柰耶ᄉᆞᆫᄂᆞᆫᄉᆞᆫ 入ᄂᆞᆫᄇᆞᆫᄒᆞᆫ 時ᄉᆞᆫ 能ᄒᆞ 障导ᄋᆞᆯ [爲]ᄀᆞᄆᆞᄂᆞᆫᄒᆞ
雜染品을 斷ᄒᆞ과 善說法여 毘柰耶여 ᄒᆞ리기 入ᄒᆞᄂᆞᆺ 時여기 能며 障导ᄅᆞᆯ 삼이릿

有ᄂᆞᆫᄀᆞ 所ᄒᆞᆫ 煩惱ᄆᆞᄀᆞ 此 諸 煩惱ᄀᆞ 能ᄒᆞ 隨眠ᄆᆞᄅᆞ[爲]入ᄉᆞᄂᆞᆫᄋᆞᆫ 深遠ᄒᆞᆼ 心ᄋᆞᆫᄉᆞᆫ 入ᄂᆞᆫᄒᆞᆼ 又
有ᄒᆞᆫ 밧 煩惱인 이 모ᄃᆞᆫ 煩惱ᄂᆞᆫ 能며 隨眠잃ᄃᆞᆯ ᄒᆞ아 深遠히 ᄆᆞᄉᆞᆷ아기 入ᄒᆞ제 또

能ᄒᆞ 種種ᄒᆞᆫ 諸苦ᄉᆞᆫ 發生ᄂᆞᆫᄉᆞᄒᆞᄆᆞᆷ 若 能ᄒᆞ [於此]ᄒᆞᆫ 餘艮 无ᄒᆞ 永斷ᄂᆞᆫᄆᆞᄋᆞᆨᄂᆞᆫᄉᆞᆫ 名ᄒᆞ 極淨道果ᄉᆞᆫ
能며 種種ᄉᆞ 諸苦ᄅᆞᆯ 發生ᄒᆞ제 ᄒᆞ리라 若 能며 이의긔 남ᄌᆞ 없이 永斷ᄒᆞᆷ ᄃᆞᆯ 일하 極淨道果ᄅᆞᆯ

[爲]證得ᄂᆞᆫᄀᆞᄀᆞᄆᆞᄂᆞᄒᆞᄂᆡ 又 十無學支ᄆᆞᆫ 攝ᄂᆞᆫᄆᆞ 所ᄒᆞᆫ 五无學蘊ᄆᆞᄀᆞ 謂ᄀᆞ 所ᄀᆞ 戒蘊ᄉᆞᆫ 定蘊ᄉᆞᆫ
證得ᄒᆞ안뎌 ᄒᆞ리다 또 十無學支로 攝ᄒᆞᆷ 밧 五无學蘊인 닐은 바ᄂᆞᆫ 戒蘊과 定蘊과

慧蘊人 解脫蘊人 解脫知見蘊人し 名下 極淸淨道ㅡノ孑ㅣ
慧蘊과 解脫蘊과 解脫知見蘊과를 일하 極淸淨道여 호리다

<30,13-,18>
又 此 極淨道し 證得ノ기入し 由ㅋ 十過失し 離ノロ 聖所住ㅋ十 住ノナ亇七ㅣ [云何ノ기し 名下
또 이 極淨道를 證得ᄒᆞᆫ 둘 븥어 十過失을 離ᄒᆞ고 聖所住아기 住ᄒᆞ겸ㅅ다 엇ᄒᆞᆫ올 일하

[爲]十種過失ㅣㅣノ今ロ 謂기 所기 外七 諸欲し 依ノ기ㄱ十 有七기 所七 愁歎 憂苦 種種惱亂ㅣㅣ기
十種過失이다 호리고 닐온 바ᄂᆞᆫ 밧 諸欲을 依ᄒᆞᆫ이기 이슨 밧 愁歎 憂苦 種種惱亂인

苦苦相應ノ기 過失ㅣㅣ가 又 內し 依ㅋ 諸根し 不護ノ今七 過失 [有]ㅐノ尸ム 諸根し 不護ノ기入し
苦苦相應ᄒᆞᆫ 過失이며 또 內를 븥어 諸根을 不護호릿 過失 두흠디 諸根을 不護ᄒᆞᆫ 둘

[由]ㅋ기入ㅟ 故ノ 愁歎 等ノ기し 生ㅣㅣ가
쁜 ᄃᆞ로 故호 愁歎 다ᄒᆞᆫ올 나이며

<30,18-31,02>
又 樂住し 愛味ノ今七 過失 [有]ㅐ가 又 行住ㅋ十 放逸ノ今七 過失 [有]ㅐ가 又 外道ㄱ 不共ノ기
또 樂住를 愛味호릿 過失 두며 또 行住아기 放逸호릿 過失 두며 또 外道ᄋᆡ 不共ᄒᆞᆫ

卽ㄱ 彼 各別ノ기 邪見ㅟ 起ノ기 所七 語言ㅗ 尋思ㅗ 追求ㅗノ今七 三種過失 [有]ㅐ가 又 靜慮
卽오 뎌 各別ᄒᆞᆫ 邪見ᄋᆞ로 起ᄒᆞᆫ 밧 語言여 尋思여 追求여 호릿 三種過失 두며 또 靜慮

邊際し 依ノ今七 過失 [有]ㅐ가 又 緣起ㅟ 攝ノ尸 所七 發起取雜染品七 過失 [有]ㅐ가 又 發起行
邊際를 依호릿 過失 두며 또 緣起로 攝홇 밧 發起取雜染品ㅅ 過失 두며 또 發起行

雜染品七 過失 [有]ㅐ가ノ尸矢ㅣ 若 [於] 是 [如]ㅈノ기 十種過失ㅋ十 永ㅋ 不相應ノ기ㄱ 唯ㅅ
雜染品ㅅ 過失 두며 홇디다 若 이 다ᄒᆞᆫ 十種過失아기 永아 不相應ᄒᆞᆫ온 오직

最後身ㄱ 任持ノ기 所ㅋ [有]ㅐロ기 第二 餘身기 畢竟 不起ノナ孑ㅛ
最後身의 任持혼 바사 두곤 第二 餘身은 畢竟 不起ᄒᆞ겨리라

<31,02-,07>
[於]最寂靜ᄋᆞᄒᆞᄂᆞᆫ 涅槃界ᄅᆞᆯ 中ᄒᆞ야 究竟安住ᄒᆞᄂᆞᆫ ᄃᆡ 一切 有情ᄃᆡ 乃ᄋᆞ至ᄃᆡ 上ㅅ
最寂靜ᄒᆞᄂᆞᆫ 涅槃界ㅅ 中아기 究竟安住ᄒᆞ견 ᄃᆞ로 一切 有情ᄃᆡ 니를이사 우기

第一有ᄒᆞ야 生ᄋᆞᄒᆞᄂᆞᆫ 者ᄃᆡ [於] 彼 一切 有ᄂᆞᆫ 所ᄂᆞᆫ 有情ᄅᆞ야 得ᄒᆞᆷ 最勝ᄋᆞᄒᆞᆫ [爲]ᄒᆞ노ᄒᆞᄆᆞ
第一有아기 生ᄒᆞᄂᆞᆫ 者ᄃᆡ 뎌 一切 이슨 밧 有情의긔 시러금 最勝ᄒᆞᄂᆞᆫ 삼호리라

是故ᄆᆞ 說ᄆᆞ 名ᄒᆞ 聖所住ᄒᆞ야 住ᄋᆞᄉᆞᆨᄀᆞᆫᄂᆞᆺᄒᆡ 能ᄀᆞᆼ 十種過失ᄂᆞᆯ 遠離ᄋᆞᄒᆞᆷ 又 能ᄀᆞᆼ 聖所住處ᄒᆞ야
是故로 니륽 일하 聖所住아기 住ᄒᆞ건뎌 호리다 能며 十種過失을 遠離ᄒᆞ졔 ᄯᅩ 能며 聖所住處아기

安住ᄋᆞᄒᆞᄋᆞᄀᆞ ᄉᆞᆫᄂᆞᆯ [以]ᄒᆞᄋᆞ 故ᄉᆞ 名ᄒᆞ 功德ㅣᄂᆞᆺᄒᆡ
安住ᄒᆞ졔 ᄒᆞᆫ ᄃᆞᆯ ᄡᅳ아 故커 일하 功德여 호리다

<31,07-,11>
又 若 彼 果ㅅ 若 極淨道ㅅ 若 彼 功德ㅅᄋᆞᆫ 是 [如]ᄒᆞᄋᆞᄀᆞ 一切ᄂᆞᆯ 摠略ᄋᆞᄒᆞ야 說ᄆᆞ 名ᄒᆞ
ᄯᅩ 若 뎌 果와 若 極淨道와 若 뎌 功德괏 이 다ᄒᆞᆫ 一切를 摠略ᄒᆞ아금 니륽 일하

極淸淨道ㅅ 及 果功德ㅅᄂᆞᆯ 證得ᄋᆞᄆᆞᄃᆞᆼ노ᄒᆡ 又 此 極淸淨道ㅅ 及ᄋᆞᆫ 果功德ㅅᄂᆞᆯ 證得ᄂᆞᆼᄉᆞᆫᄋᆞᆫ
極淸淨道와 밋 果功德과ᄅᆞᆯ 證得홇뎌 호리다 ᄯᅩ 이 極淸淨道와 밋 果功德과ᄅᆞᆯ 證得호릿

義ᄀᆞ 廣ᄃᆡ 說ᄆᆞ 入ᄀᆞ 知ᄂᆞᆼ [應]ᄂᆞᆫᄒᆡ 說ᄂᆞᆫ 所ᄂᆞᆫ 相ᄂᆞᆯ 如ᄒᆞᄂᆞᆫᄃᆞ 此ᄂᆞᆯ 除ᄆᆞ斤 更ᄒᆞ 若過ᄋᆞᆷ
義는 넙이 니륽 ᄃᆞᆫ 知홈ㅅ다 說혼 밧 相ᄋᆞᆯ ᄀᆞᆫ기 ᄒᆞ여 이ᄅᆞᆯ 덜고ᄂᆞᆫ 가ᄉᆡ아 若過ᄒᆞ졔

若增ᄋᆞᆷᄋᆞᄀᆞ 无ᄂᆞᆫᄃᆡᄀᆞᆫ
若增ᄒᆞ졔 ᄒᆞᆫ 无ᄒᆞᆫ인뎌

<31,11-,17>
若 是 [如]ᄒᆞᄋᆞᄀᆞ 最上无學ᄋᆞ 諸 聖法ᄂᆞᆯ 得ᄋᆞᄒᆞᄂᆞᆫ 者ᄀᆞ 是 [如]ᄒᆞᄋᆞᄀᆞ 聖法相應ᄋᆞᄒᆞᄂᆞᆫ[之]
若 이 다ᄒᆞᆫ 最上无學의 모ᄃᆞᆫ 聖法을 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이 다ᄒᆞᆫ 聖法相應ᄒᆞᄂᆞᆫ

心ㅣ [於]妙五欲ᄋᆞ十 極 猒背ᄂᆞᆫ [爲]ᄒᆞ ᄂᆞᆺᄒᆞᄆᆞ 異熟 無ᄀᆞᆨᄀᆞᆫ 故ᄂᆞ 後ᄋᆞ十 更ᄋᆞ 續 不ᄉᆞᆼᄒᆞᄆᆞ
ᄆᆞᅀᆞᆷ이 妙五欲아기 極 猒背ᄒᆞᄂᆞᆫ 삼호리라 異熟 無컨 ᄃᆞ로 故호 後아기 가ᄉᆡ아 續 안ᄃᆞᆯᄒᆞ졔

若 世間ᄂᆡ 心ᄀᆞ 復ᄒᆞ 已斷ᄂᆞᆼᄒᆞᄂᆡᄉᆞᆫ [雖]ᅀᅡ 猶ㅣ 得ᄒᆞᆺ 現行ᄂᆞᆼᄆᆞᄂᆞ 彼ᄀᆞ [於]後ᄂᆡ 時ᄂᆞ十 任運ᄒᆞᄀᆞ
若 世間ᄉᆞ ᄆᆞᅀᆞᆷ은 復기 已斷ᄒᆞᆷᄉᆞ과두 猶이 시러금 現行ᄒᆞᆷ여 뎌는 後ᄉᆞ 時여긔 任運히

而ᄆᆞ 滅ᄂᆞᆼᄒᆞᄂᆞᆺᄒᆞᄒᆞᄀᆞ 又 煩惱道ᄂᆞ 後有業道ᄂᆞᄂᆞᄆᆞᄀᆞ [於]現法ᄂᆡ 中ᄋᆞ十 已ᄒᆞ 永ᄋᆞ 斷絶ᄂᆞᆼᄒᆞ 彼
而로 滅ᄒᆞ졔 ᄒᆞ겨리며 또 煩惱道여 後有業道여 ᄒᆞᆷ은 現法ᄉᆞ 中아기 이믜사 永아 斷絶ᄒᆞ졔 뎌

絶ᄂᆞᆫᄀᆞᆨᄉᆞᆫᄂᆡ [由]ᄒᆞᄀᆞᆨᄉᆞᆷ 故ᄂᆞ 當來ᄂᆡ 苦道ᄀᆞᆯ 更ᄋᆞ 復ᄒᆞ 轉 不ᄉᆞᆼᄒᆞᄂᆞᆼᄒᆞᄂᆞᆺᄒᆞᄆᆞ
絶ᄒᆞ건 ᄃᆞᆯ 쓴 ᄃᆞ로 故호 當來ᄉᆞ 苦道도 가ᄉᆡ아 復기 轉 안ᄃᆞᆯᄒᆞ졔 ᄒᆞ겨리라

<31,17-23>
此 因果ㅣ 永ᄋᆞ 滅盡ᄂᆞᆫᄀᆞᆨᄉᆞᆫᄂᆡ [由]ᄒᆞᄀᆞᆨᄉᆞᆷ 故ᄂᆞ 卽 名ᄒᆞ 苦邊ᄂᆞᄂᆞᄆᆞᄀᆞ 更ᄋᆞ 餘 所 无ᄋᆞᆺ
이 因果이 永아 滅盡ᄒᆞ건 ᄃᆞᆯ 쓴 ᄃᆞ로 故호 卽 일하 苦邊여 ᄒᆞᆷ여 가ᄉᆡ아 餘 바 없어금

無上ᄂᆞᆼᄒᆞ 无勝ᄂᆞᆼᄒᆞᄂᆞᆺᄒᆞᄒᆞᄂᆡ 此ᄂᆡ 中ᄋᆞ十 若 聖諦現觀ᄋᆞ十 入ᄂᆞᄆᆞᄉᆞ 若 障导ᄒᆞ 離ᄂᆞᄆᆞᄉᆞ 若
無上ᄒᆞ졔 无勝ᄒᆞ졔 ᄒᆞ겸ᄉᆞ다 잇 中아기 若 聖諦現觀아기 入ᄒᆞᆷ와 若 障导ᄅᆞᆯ 離ᄒᆞᆷ와 若

速疾通慧ᄒᆞ 證得ᄂᆞ [爲]ᄉᆞ 諸 歡喜事ᄒᆞ 作意思惟ᄂᆞᄆᆞᄉᆞ 若 得ᄂᆞᄀᆞ 所ᄒᆞ 如ᄒᆞᄂᆞᄀᆞ 道ᄒᆞ
速疾通慧ᄅᆞᆯ 證得ᄒᆞ과 모ᄃᆞᆫ 歡喜事ᄅᆞᆯ 作意思惟ᄒᆞᆷ와 若 得ᄒᆞᆫ 바ᄅᆞᆯ 곧기 ᄒᆞᆫ 道ᄅᆞᆯ

修習ᄂᆞᄆᆞᄉᆞ 若 極淸淨道ᄂᆞ 及 果功德ᄂᆞᄂᆞᄆᆞᄒᆞ 證得ᄂᆞᄆᆞᄉᆞᄂᆞᄆᆞ 是 [如]ᄎᆞᄂᆞᄀᆞᄒᆞ 名ᄒᆞ [爲]出世間
修習ᄒᆞᆷ와 若 極淸淨道여 ᄲᅵ 果功德여 ᄒᆞᆷ올 證得ᄒᆞᆷ와 ᄒᆞᆷ 이 다ᄒᆞᆫ올 일하 出世間

一切種 淸淨ᄂᆞᄂᆞᆺᄒᆞᄂᆡ
一切種 淸淨여 호리다

<31,23-32,06>
又 此 出世間 一切種 淸淨ᄂᆡ 義ᄀᆞ 廣ㅣ 說ᄆᆞᄉᆞᆨᄀᆞ 知ᄂᆞᄒᆞ [應]ᄂᆡᄒᆞᄂᆡ 說ᄂᆞᄀᆞ 所ᄂᆡ 相ᄒᆞ 如ᄒᆞᄂᆞᄀᆞᄂᆞ

또 이 出世間 一切種 淸淨ㅅ 義는 녑이 니롫 ᄃᆞᆫ 知홈ㅅ다 說ᄒᆞᆫ 밧 相ᄋᆞᆯ ᄀᆞᆮ기 ᄒᆞ여

此ㄴ 除ㅁ斤 更ᄀᆞᆞ 若過ㅅᄒᆞ 若增ㅅᄒᆞㅅㄱ 无ㅅㄱㅣㄱㄱㅜ 是[如]ᄎᆞ 若 先下 說ㅅㄱ 所ㄷ 世間
이ᄅᆞᆯ 덜고ᄂᆞᆫ 가시아 若過ᄒᆞ제 若增ᄒᆞ제 ᄒᆞᆫ 无ᄒᆞᆫ인뎌 이 다히 若 몬지하 說ᄒᆞᆫ 밧 世間

一切種 淸淨ㅅ 若 此 說ㅅㄱ 所ㄷ 出世間 一切種 淸淨ㅅㄴ 摠略ㅅᄀᆞᆞㅎ 一[爲]ᄀᆞᄀᆞ 說ㄲ 名下
一切種 淸淨과 若 이 說ᄒᆞᆫ 밧 出世間 一切種 淸淨과ᄅᆞᆯ 摠略ᄒᆞ아금 一 삼아 니롫 일하

修果ㅓㅅㅜㅓㅣ 是[如]ᄎᆞ 先下 說ㅅㄱ 所ㄴ 如ㅎㅅㄱ 若 修處所ㅅ 若 修因緣ㅅ 若 修瑜伽ㅅ 若
修果여 호리다 이 다히 몬지하 說ᄒᆞᆫ 바ᄅᆞᆯ ᄀᆞᆮ기 ᄒᆞᆫ 若 修處所와 若 修因緣과 若 修瑜伽와 若

修果ㅅㅅㅜㄲ 一切ㄴ 摠ᄌᆞ 說ᄀᆞᆞ [爲]修所成地ㅓㅅㅜㅓㅣ
修果와 홈 一切를 摠히 니르아 修所成地여 호리다

『瑜伽師地論』 卷第二十
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
勅雕造